

일기, 읽고 깨닫자

나의사랑나의생명

소개글

시간의 흐름과 깨닫는 지혜를 기록하노라

목차

1	2008년09월18일 다이어리	8
2	2008년10월09일 다이어리	11
3	2008년10월07일 다이어리	12
4	2008년10월06일 다이어리	17
5	2008년10월05일 다이어리	19
6	2008년10월03일 다이어리	24
7	2008년09월27일 다이어리	26
8	2008년10월19일 다이어리	29
9	2008년10월18일 다이어리	33
10	2008년10월16일 다이어리	36
11	2008년10월15일 다이어리	39
12	당신의 마음도 슬프고 나의 마음도 슬프다.	41
13	2008년10월29일 다이어리	43
14	2008년10월26일 다이어리	46
15	2008년10월24일 다이어리	48
16	2008년10월23일 다이어리	53
17	2008년10월22일 다이어리	56
18	2008년10월21일 다이어리	58
19	2008년11월09일 다이어리	60
20	2008년11월06일 다이어리	63
21	2008년11월04일 다이어리	66
22	2008년11월02일 다이어리	68
23	2008년11월28일 다이어리	71
24	2008년11월27일 다이어리	74
25	2008년11월25일 다이어리	76

26	2008년11월17일 다이어리	81
27	2008년11월16일 다이어리	84
28	2008년11월15일 다이어리	85
29	2008년11월11일 다이어리	89
30	2008년11월10일 다이어리	92
31	2008년12월13일 다이어리	94
32	2008년12월06일 다이어리	96
33	2008년12월04일 다이어리	99
34	2008년12월02일 다이어리	102
35	2008년12월01일 다이어리	104
36	2008년11월30일 다이어리	107
37	2008년12월30일 다이어리	109
38	2008년12월29일 다이어리	111
39	2008년12월28일 다이어리	113
40	2008년12월22일 다이어리	116
41	2008년12월21일 다이어리	119
42	2008년12월18일 다이어리	122
43	2008년12월15일 다이어리	124
44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25
45	2009년01월13일 다이어리	126
46	2009년01월12일 다이어리	130
47	2009년01월08일 다이어리	132
48	2009년01월07일 다이어리	139
49	2009년01월06일 다이어리	141
50	2009년01월03일 다이어리	143

51	2009년01월02일 다이어리	147
52	2009년01월01일 다이어리	151
53	2009년01월21일 다이어리	153
54	2009년01월20일 다이어리	155
55	2009년01월19일 다이어리	158
56	2009년01월16일 다이어리	162
57	2009년01월15일 다이어리	164
58	2009년01월14일 다이어리	166
59	2009년01월29일 다이어리	170
60	2009년01월28일 다이어리	174
61	2009년01월27일 다이어리	176
62	2009년01월26일 다이어리	179
63	2009년01월24일 다이어리	185
64	2009년01월23일 다이어리	189
65	2009년01월22일 다이어리	192
66	2009년02월14일 다이어리	195
67	2009년02월10일 다이어리	197
68	2009년02월06일 다이어리	200
69	2009년02월04일 다이어리	203
70	2009년02월02일 다이어리	204
71	2009년01월31일 다이어리	205
72	2009년02월24일 다이어리	207
73	2009년02월21일 다이어리	210
74	2009년02월20일 다이어리	213
75	2009년02월19일 다이어리	216

76	2009년02월18일 다이어리	219
77	2009년02월17일 다이어리	221
78	2009년02월16일 다이어리	223
79	세상에는 죄인이 없다구요?	226
80	2009년03월05일 다이어리	228
81	2009년03월02일 다이어리	229
82	2009년03월01일 다이어리	231
83	2009년02월28일 다이어리	233
84	2009년03월19일 다이어리	236
85	2009년03월17일 다이어리	238
86	2009년03월16일 다이어리	240
87	2009년03월15일 다이어리	241
88	2009년03월14일 다이어리	243
89	2009년03월10일 다이어리	247
90	2009년03월09일 다이어리	248
91	2009년04월04일 다이어리	249
92	2009년03월31일 다이어리	252
93	2009년04월21일 다이어리	257
94	2009년04월19일 다이어리	259
95	2009년04월16일 다이어리	263
96	2009년04월09일 다이어리	265
97	2009년05월08일 다이어리	269
98	2009년05월06일 다이어리	271
99	2009년05월05일 다이어리	273
100	결국...	275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마음이 엄청 분주하다.
어린이집에서 12월달에...재롱발표회를 준비하라고 했다.
각 반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율동을 가르쳐야 한다...
어떤율동을 가르칠것인지.뭐가 유행인지.부터 해서...
생각할 것들이 갑자기 많아져버렸다.

그리고 원아모집이 다가와서인지 모르지만..원장쌤님이
우리 교사들에게 주문이 많아졌다..
학습에 더욱 신경쓰고 뭔가..아이가..원에 가서 배워왔고 달라졌더라는것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학습하라는 것이다...
3~4세...아직 발음도 어눌한 아이들...소근육도 덜 발달되어 스스로 잘 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보여주기 위한 학습이라는 말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자료는 많이 준비할 수 있지만..
아직 준비도 안된 아이들에게...인지적인 것을 시킨다는 것이
이해력도....집중력도 길어봐야 15분정도 되는 아이들을 앉혀 놓고...
1시간정도 수업을 하라니.....그것참...돌아가시겠네....
어쨌든 그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뒷반에 올라가기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습관과 태도를 만들어 놓으라네.....

5~6세가 되면..이해력도...집중력도 함께 커갈 것이구만...

친구이해하기 사이좋게 놀기,인사잘하기.자기물건 정리정돈하기 등...이러한 기본습관 위주로..가르쳐야 할 아이들을....
원장님 생각인가? 아님 학부모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일까?...
참...문제다..

재롱발표회도....사실 아이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
물론 아이들중에 적극적이고 애살많은 아이들은 재미있어하고 더 신나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여주기위한 쇼에 불과하는 행사일뿐이다..
원아모집에 많은 영향이 있는 모양이다...
우리가 이해해야지...
12월달이면....기말시험이 있는 달인데...
나원참.....
공부도 해야하고....
아이들 율동도 가르쳐야 하고...

어제는 총학생회 임원 임시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각 국별로 지금까지 일했던 자료 다 수집해서 파일을 만들라는 것이다..
오마이갓.....
하라면 해야지 별수 있겠나만서도....

안그래도 어린이집 일도 많고...공부도 해야하고....
이번에 과제물(리포터)4편을 써야 한다.
가득이나....자료수집하는데 시간도 부족해서 신경 쓰이는데...
옆친데 댄친격으로..
갑자기 해야할일들이 많아져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어린이집도....
나와 함께 담임을 맡고 있는 쌤님이....
나보다 더 몰라서....
내가 정보를 주고...가르쳐야 할 판이고....
공부를 하고 있어서..정교사로 온것이 아니라..
보조교사로 와서 많이 배워야지..생각했는데...
배우는것은 고사하고 내가 가르쳐야 할 판이다...

나는 올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졸업을 해서...
교수방법에 대해서..또는 아이들의 성장발달특징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잘 알고 있다...

그런데...함께 가르치는 교사님은..
아..글쎄...유과 졸업한지가 13년이 넘었고..
내내 아이들 키우다가....취업을 해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이라네..
그러니까...
교수방법도 아이들 발달 특징도 다 까먹고...없을만 하지 않는가..
그래서인지....
쌤님이 나에게 자꾸 의지하고 배우려고 하는것 같다.

내가 보기에도 잘해보인다고..그리고 사실 뭐든 잘한다고...칭찬하시네...

내가 학교 공부만 아니면...
더 완벽하게 확실하게 능력있는 교사로...인정받을 만큼..잘할자신이 있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예 그쪽으로 신경을 안쓰고 주어진 근무하는 시간에만 최선을 다하려고..했었다.

근대 같은 반 선생님이 자꾸 나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인터넷 정보를 뒤지게 되고..

내일 무엇을 해 볼까...자료를 수집하게 되고 하다보니.
공부해야할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것이다....

2학기 이래가지고..
과락없이..통과하겠나....
공부해야하는데.....

아이들하고 놀면 재밌다.ㅋ
내 수준하고 딱맞네....

공부한다고 요점 정리를 해 놓고..
학교일이니..예기치 않는 일로....
공부를 할수가 없었다...

오늘부터 열심히 4일동안 하면...
되겠다 싶다...

여유없이 공부하는건 참이네..
내 머리를 믿자...

같이 일하는 쌤님이...하시는 말씀..

정선쌤님은..뭐든 잘하시고 마인드가 엄청 커 보여서 보통 사람하고 틀리게 보여요..

자기는 소심해서..작은거 하나라도 근심되고 강하게 못하고 그러는데...

정선쌤님은 ..깔끔하고 터프하고,시원시원하시는게...

부럽기도 하고..괜시리 자신이 주눅들기까지 해요....

외모는 여자처럼 생겼는데..엄청 대범하시고 강하고 시원시원해요..

남자처럼.....

그렇게 보여요?....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한결같이 하는말이 있다..

생각도 크고 마인드도 크고...평범한 사람은 아니라고...

함께 일하는 선생님도..그렇게 보였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것참!!

난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심없이...

모든이들에게 친절하게 했으며..

내가 해야하는 일에 책임을 다했고....

누구에게라도 피해를 준 적이 없으며

피해를 줘서도 안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항상 부지런하다...

피를 부려본 적도 없고..

오히려..내 육체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정신이 훈련을 시키며...정말 내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다 보니.

다른선생님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원장쌤님한테도 인정을 받았고....

요몇일전에....

내가 맡은 반 환경정리를 하나씩 해 나갔다.

해 놓은거 보고 다들.맘이 흡족..

아이디어도 번쩍~~.

하는 일도 시원시원....(내스스로도 나를 그러게 평가한다)

난 어렸을때부터 야무치다는 소리를 듣고 컸다.

뭐든 하면 똑부러지게 해야 내 직성이 풀리고

혹 내 능력이 부족하면.

난....아무도 몰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

그래서.....

노..프라블럼....(난 전혀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나타난다.(ㅋㅋ)

오픈해서.노력하는 모습은 자존심 상해서 잘 안보여줄려고 한다..

몰래..몰래....노력해서...오픈했을땐 당당하게.....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다.

태어날때 가지고 나오는 성향도 있을것이고

소극적일수도 대범할수도..

강할수도 , 약할수도.....

노력에 따라 능력이 있을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을 평가할때가 많다.

사실 대부분이 그렇다...

그럴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되나보다..

혹....

내가 ...능력있어 보였다면....

그건..그사람의 착각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을 위해 자기개발을 부지런히 했던 결과라고 말하고 싶다.

내 자신을 위해...시간과 노력과 금전적인 댓가를.....

거의 30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여질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다른사람들은....모이면 다른사람 흉을 보거나...비판하고 하는데...
나는 함께 있어도 누구 비판한다든지...함께 장단을 맞춰준다든지..
절대 그리하지 않는다..항상 중립을 지킬뿐이고...
침묵할 뿐이다...(뿌린만큼 거둔다는 원리를 알기에....)

원장선생님이.....6세반 선생님 싫어서 그렇게..오픈해서...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말했어도 난 그냥 듣고만 있었고.
그 이후에도 병문안갔더니.어찌구 저찌구..다른선생님들에게 그 선생님이 대해 부정적인 말을 전하려 할때에도(원장샘님이 말씀하시니까.들어
야함에도 불구하고...
칭찬이 아니구 부정적인말이라 판단되니. 안듣고 말자.는 것이다)
나는 슬그머니 내 교실로 가버리고 듣지 않는다...

아물튼 난 그런 사람이다.....

6세를 맡아 고생 엄청 많이하고도...
애들이 너무 재미있어 한다고 선생님들이 나를 띄워주었지만..
난 말했다.
항상 먹는 밥에 실증이 나 있는 애들에게
잠시 외식을 시켜줘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일뿐이라고!

원장선생님....
정선생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라고 했을때도...
좋은경험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마도...그런 말 한마디속에
문제에대한 해석이 긍정적이고 겸손함이 배여 있어서..평범하지는 않구나
생각을 했을수도 있다.

다른사람들은....다만 얼마의 댓가를 바랬을지도 모르겠고
혹 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불평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이것을 하나 저것을 하나.. 말이 없다.
표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이번에 깨달은것이 있다.....그냥 너무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말자이다.)

열심히 하는 교사에게 그 댓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원장
정말 원장으로써 잘해주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함을 모르는 교사...가
있다면....
열심히 하는 교사도,,,,정말 잘해주는 원장도...번뇌하기는 마찬가지걸거라는 생각을 해 봤다...

잘해줘도....열심히 해줘도....그 마음을 몰라주고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교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의 그 이상을 발휘하지 않겠다 생각할 것이고
원장은....다 잘해줬잖아...마음도 몰라주는데...적당히...그냥 적당히.
할만큼만 하자..라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 보니...
나도 그런 결론에 이른다....
애써...더 많이 일하지는 말자....그냥 주어진 시간에만..최선을 다하자..
인정이 앞서, 원을 생각해서, 원장님 앞에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함을 아는자를 분별해서....
내 능력 , 또는 내가 해야할 그 이상의 일을 하자고....

주어도 받지 못하는 그릇에게는....
그 그릇에 담을만큼만 해도 충분하다고.....

내가 경영자가 된다면....
내 수하에 있는 모든이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픈 마음을 갖도록 하리라...
종업원 입장이 아니라..경영자 입장에서 일을 할수있도록
리더하리라....인간적인면에서든..상사와 종업원과의 관계에서든...
그 은혜가 감사해서....그 마음이 감사해서...그 배려가 감사해서.
스스로 능력이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종업원은.....
하는만큼 충분한 댓가를 주어 욕구불만을 없애면...
스스로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런데....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에 대한 댓가가 부족하다면...불평이 나오게 되고...
열심으로 해주지 않는다...또는...자신이 해야하는일은 하되
그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동기를 부여받지 못한다....

아무나 경영자 되나...
경영자의 철학, 또는 사명을 보면
그 경영자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경영을 하는지 알수 있다.
사실 사람을 제대로 잘 다스리면 ..성공한 경영자가 될 수 있다.
사람을 잘 다스릴려면 사람을 잘 알아야 한다....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내 삶을 뒤돌아본다..

내 자신을 뒤돌아반성한다....

잘못된 점은 수정,보안하고...

스스로 고치겠노라고 다짐한다...

이러한 반성적 고찰이 좀 더 긍정적 사고를 만들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더불어 다른이들에게 유익된 삶을 살려는 기틀이

만들어지는게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아침에 손을 대었다...
약을 바르고.....출근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에...교구 만들다가..
손을 무려 4군대를 대었다.

글로건이 식지 않는 상태에 만지게 되서

아..오늘 엄청...안좋네..왜 이렇지?

당직이라서..
학교를 왔다...
오는길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데...
나에게 있어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다.
화를 냈다....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학교를 걸어오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봤다.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됐나?...
왜 그 상황에서 꼭 화를 냈어야 했나?
좀더..침착하게...상황에 대처 할 수는 없었는가? 등등...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
화를 내고...침착하지 못한 나의 태도에
은근히 화가 났다...

신랑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옆에 지켜보니...
우리나라 경제질서나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나라 법은 기득권층을 위한 법이며
더욱이 경제적인 법이라 할수 있는것은
대기업 위주로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특혜로..보아지는 것이다.

내 속에 깊은 곳에...

이나라 법 제도, 질서 문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한마디로 신뢰하지 않는다.
잘못되었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다.
그로 인해 피해를 내가 직접 현실에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조금 밀리면
기업이 죽든 살든. 그건 자신들이 관여할바 아니구
무조건 세금만 받으면 된다는 세무소 직원들.
사실 세무소 직원들 잘못이겠나....
탁상행정의 정치인들이며...
정경유착으로 생긴 후유증이다...

어찌되었던
나는 이 사회에 불만이 많다..
잘못된게 너무 많은것을 알기때문에
쌍인게 많다.

아뿔튼 오늘 내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이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바보같이 느껴졌다.
나란 인간이 이정도밖에 안했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에서
현상을 해석하려 한다.
그래서 오류를 범하고,오해를 하고,이해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따라서 갈등과 고뇌속에서 서로의관계들이 힘들어지게 한다....

마음을 넓게...그리고...
사람얼굴이 다르듯 생각들도 해석들도 다르다는 전제하에....
말을하고 이해하려고 해야한다.

철학자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논리,타당,보편적으로 인정이 되어야지만
인정한다고 한다....
만약 기독교인과 철학자가...종교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있다라고 가정한 후에....
논쟁을 한다고 한다.

그래야지만...같은 시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된다.
만약...철학자들이 신에대해 인정하지 못한다면
더이상 논쟁도 대화도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도...
각 사람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자라온 환경에서 생성된 성격,감성이 틀리고 사고, 가치관 지각 차이와 해석도 틀리게 된다.
그래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며 다툼이 나게 되는것 같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저사람은 틀려,,라고 한다면...
더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 주자....
만약 내 의견이 어떠한 상황에서 더 맞다고 생각한다면..
논리적으로 보편 타당성을 제시하여서
상대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한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다.

사람의 사고의 틀의 용량이...이해와 지식의 틀 용량이
사람마다 틀려서..
아무리 논리적이고 보편 타당성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말이다...

남부러울게 없는 사람이 하루 한끼 해결하려는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부재로 인해..이해못하듯.....

이해의 틀이...적은 사람은 늘 자신의 제한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언젠가...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

껍질은 속을 단단히 감싸는 역할을 해서...속 알맹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속 알맹이는 항상 껍질에 보호를 받고 싶어한다.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속 알맹이가.....좀 더 강해지려면 껍질을 벗어버리는
힘든 작업을 해야한다..... 성숙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낡은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던져야 한다.
그래야 자신도 편해지고 타인들과 갈등도 줄어들게 된다

우리가 가진 사고의 틀...

그 틀이 낡을수도 있고 너무 개방적일수도 있다...
어떤것이 보편적인지.....그 기준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시장에 가면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학교에 가면 바른생활..즉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다..
개개인에게는 양심이 있고
사회에 나가면...상식이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보편 타당하다고 말한다...

가끔..기성세대들은 자신의 껍질들을 벗지 않고...

그 껍질로 단단히 알맹이를 쌓고 있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른 정보임에도..아니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부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무지에서일수도 있고 쓸데없는 자존심일수도 있고, 권위적인생각일수도 (즉.인생을 많이 산 내
가 더 잘 알지 니가 잘 알겠어?.)

따라서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서 얻는 지식과 지혜가 전부인냥...

.

그렇게 되면.....세대가 다른 이들과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배움의 목적은

우리사고의 틀을 넓히기 위함이고 얇의 틀을 넓히기 위함이다..

다른쪽으로 해석하면....

내가 더 자유하고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른다..

많이 알면 자유한다??

난 그말에 한표를 던지고 싶다...

한정된 지식과 이해의 틀이.....오류를 범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번뇌를 가져온다.

많은 책을 읽고 학문을 하다보면

이해의 틀이 넓어지고 사고의 틀이 넓어지며

타인을 이해하는데도...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좀더...넓은 생각 깊은 생각으로

다가서게 되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이해와 배려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갈등의 폭이 줄어들어 마음의 번뇌를 줄인다는 것과 같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행복하기위해...평안히 살기위해 살아가는것이 아닌가?

행복을 방해하고 평안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뭘까?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과 어머니 품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그리하면 스스로 마음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적어져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가능성이 커질테니까

열린생각.....

내 생각이 중요하듯 다른사람의 생각도 존중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면 다른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나???

사랑하면 행복하고 인정해주면 힘나고..이해해주면 고맙고.....

살면서 위의 원칙을 세워놓고...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초등3학년때부터 나는 집에서 설겅이와 음식만드는것을 도왔다.

저녁밥을 먹고 설겅이는 항상 내 담당이었다.

난 정말 설겅이하기가 싫었다...

그래서..투덜투덜 표현도 해보고 그릇도 억지로 소리내어 설겅이를 했었다.

그러면서 나는.생각했다.

자기들이 하기 싫은거...난들 하고 싶나??

왜 나만 시키는거야???

어린나이지만..난 깨달았다.

내가 하기 싫은것은 남도 하기 싫다는것을.....

어린나이인데도.... 난 그런 생각을 했으니....

지금도..

그때 깨달은 진리는...통용된다....

내가 하기 싫은것은 남도 하기 싫다는것....

그래서인지....누군가 해야할 일이 생긴다면

내가 먼저 해 버리는 일들이 많아졌다.

왜냐하면...내가 하기 싫은일은 남도 하기 싫어할테니까.

그냥 내가....해버리면 내 마음도 편하고..다른사람도 편하니까.....

육체는 힘이 들지만..마음만은 편하다.

오늘 철학의 이해 수업을 받으면서....

공자 제자중 어떤이가 그랬단다.....내가 하기 싫은것은 남도 하기 싫어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어....나는 철학 안배워도..저거..초등 3학년때...깨달은것인데.. ㅎㅎㅎ

그것참...!

성경은 말한다.

마른떡 한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17장1절

육선(진수성찬)

번뇌스러운 마음으로 100년을 산들...뭐하겠소?

그제인가....택배가 왔다는 것이다.
어....택배 올 때가 없는데....
집에 와서 경비실에 가서 찾아왔다.

시누이가 과일을 보냈던 것이다.
고맙게시리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신세만 지는 것 같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꼭 이 고마움을 갚으리라...생각하고.
포도상자를 뜯었다.
두박스라서....마지막 박스를 뜯으니...
선물상자가 보였다.
뭐지??....
선물상자 위에는...
사랑하는 올케..생일 축하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아주 멋진 스카프가 포장되어 있었다...

잠시잠깐....감동...
특히,사랑하는 올케 라는 말이....
마음을 짠하게 했다...

시누이에게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나는 잘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니...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고.
다음에...정말 이 감사함을 꼭 갚을게요...라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시누이에게 받은게 너무 많다.
맨날 받기만 하고 나는 주지 못하고 있다.
내 형편이..아직은 시누보다 못해서....
사실 여유가 없다...

그러나....
평생 내가 받기만 하고 살까보냐..
언젠가는 꼭 고마웠던 마음들을 갚을 날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한다.
꼭 물질적이 아니라도.....
몸이 아프던지..또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때..
분명 내가 도울 일이 생길 것이다..

살다보니..

고마운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긴다.

마음에 그 고마움을 새겨놓으면서...

언젠가는값을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직장생활하기전에는

매일 휴일이라...토요일이든 법정휴일이든 개념이 없었는데..
요즘은...금요일..출근하면서 오늘만 일하면 내일 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약간의 설렘이 생긴다...

어제는 아이들과 견학을 갔다.

김해국립?박물관..경우해서...연지공원까지...

나는 어린이집에서 가는 견학은 처음이라..

과정이 어떠한지 궁금했다.

대형버스를 빌려서...아이들을 태우고 국도를 통해..김해로 넘어갔다.

근대...

박물관이 처음인지..

운전기사하고 원장쌤하고..해매고 계신다..

그것참...(이렇게 허술할수가...)

나는 아이들 아동부 어디 데리고 갈려면 먼저 사전답사를 하고..

경로 과정등등을 꼼꼼히 체크한후..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아뭉튼 네비게이션 보고..박물관 주위를 몇바퀴 돌고 찾아갔다.

김해국립박물관인가,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참 잘해 놓았다..볼것도 많고....학습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특히..아동들..초등1 이상)

박물관을 돌고 연지공원으로 가서...김밥으로 식사를 했다.

아이들이 가져온 과자도...얻어먹고..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먹어보세요..하고 가져온다.ㅎ

아침에 한 아이는...선생님...이거 드세요..음료수인데요..

우리 엄마가 사줬어요...내가 이거 선생님 드려도 되요? 라고 물으니까요..

주고 싶으면 줘도 되요..라고 했나보다.

그래서...

아이가 먹을 음료수를 나에게 준 것이다..

나중..점심 먹을때...그 아이 나에게 와서...선생님...나 음료수 없어요...

ㅎㅎㅎ 자기 먹을것을 나에게 주다니...그 마음이 너무 이쁘고 귀엽다.
(원에 놔두고..안가져왔는데...)

6세 아이들 특징...
서로 고자질 하기...
조그만 스쳐도 선생님 누구누구가요...나.밀었어요 때렸어요 ...꼬집았어요 ㅎㅎ
선생님알....
고 자 질 하지 마세요!!!
그런 너는 다른 친구에게 안그러냐?? ㅎㅎ
.....

근대..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잘 보일려고..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발견된다..
어쩌면 선생님 관심을 더 받을까...시험이라도 하듯이...
유독 눈이 가는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있다.
눈이 가는 남자는 나의 이상형 스타일일까 ㅋㅋㅋㅋ
아뭏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아이다..

여자 아이는...
빨강머리앤 처럼...그냥 성격도 밝고...무난한...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아이이다.
심부름 시킬때 그 여자 아이를 시킨다...

편애하지는 않지만...(모든 아이들이 천진난만.순수.하다 이런 깨끗한 마음들이
어른이 될때까지 유지되면 이 세상이 참 아름답데.....알면 알수록 많이 살면 살수록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강박해지고 이기적이 된단말이야....
그것참...서글픈 현실이로다)....

속으로는 좋아하고 눈이 가고 맘이 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내일 토요일이니까..오늘 운동가야지.
은근히..설레기도 했다.
근처에 운동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했는데.

예구 안하다가 하니까...왜 이렇게 안되던지...
피로도 쌓인상태라서..그런지..
아뭏튼...안오면 더 나을뻔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뛰는 자체로.....즐거워야 하는데.
게임을 하게 되면 승부욕이 발동.

지면 스트레스. .이기면...만족..
그리고 서로 기대되는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기 위한 자기노력 등..
이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일지도 모르지....

보여지는..행해지는.....느껴지는 모든 느낌과 생각들을
어떻게 해석하냐..그리고 욕심을 내냐..버리느냐....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등등에서....
작은 부담에서부터...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를 받기도 하는것 같다....

다..버리고.....무 상태에서 살순 없을까.....

.

교회에서....아침부터 기분이 언짢았다.

일요일 아침되면...나는 내가 맡은 아동부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도록 유도하고...

또 차량 탈 아이들 ...전화로 깨워서 준비시켜..태우고 온다.

아침에...

내가 맡은 아이들 엄마 두분이...

근처에 사시는 집사님을 통해서..

아침에 목소리 좀 밝게 해서 전화해 달라고....부탁하더라는 것이었다.

말을 듣고..

이상하네 내가 어두운 목소리도 아니구..그런다고...

엄청 오바해서 말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아뭏튼 그들이 느끼기에 어둡다 하니..

톤 좀 올려야겠네...라고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갈려니

은근히 기분이 상했다.

사람이...얼굴도 틀리고 목소리 색도 톤도 틀리는데.

내가 왜 그들이 주문하는 대로 해야해?

내 목소리 듣고 하루 종일 재수가 없는것도 아니구..

그런다고 기분상한것도 아니구..

나원참....

아침에 아이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힘들구만...

그런 소리까지 들을려니 마음이 썩 평안하지는 않다.

그냥 이사람 스타일은 이러려니 하고 이해하면 안되냐고?

왜...이래라 저래라 주문이야?

내가 지네들에게 돈 받고 봉사하나?.....

순간..일요일날 전화 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오후에 작은 음악회..행사가 있었다.

2년전에...성가대 가운 말고..음악회 입을 블라우스를 단체로 산적이 있었다.

내가 워낙 살이 없다보니...

허수아비에 옷 입혀놓은 꼴이라...

음악회에 그 옷을 입어야 하는데...내 모습이...너무 바보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에 하얀 블라우스에 아래는 검정 치마나 바지 입으면 되지 않을까?
내 옷 중 잘 맞는하얀블라우스를 옷을 입을 생각이었으며
함께 맞춘 단체복 블라우스는 입지 않을 거라 말했더니.

권사님 한분이 절대 안된다는것이다.
단체적으로 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니.....

아니..대회나가는 것도 아니구.
위에 하얀색 아래 검정색으로 맞추면 될것을...
권사님이 강하게 나와서
또 기분이 상했다.

죽고사는 문제도 아니구...
무슨 큰 대회도 아니구..우리 교회에서..
찬양 두곡 부르면서....꼭 이렇게 고정관념안에서..벗어나지 못해야하는 걸까?
사실 이 블라우스를 입든 저 블라우스를 입든....
그게 뭐가 중요한말인가?

권사님 알.
그건 집사님 생각이다 라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다.

이유는...

만약 권사님이.....그, 블라우스를 입었을때..
허수아비에 옷 입혀놓은 바보같은 모습이라면
본인은 과연..단체를 위해서 바보같은 모습도 감수하고
꼭 입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실지...
단체라도...대회도 아니잖는가...
무슨 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왜 상대 입장에서 이해를 안하려고 하는가?

과연 자신의 모습이 그 옷이 맞지않음으로 인해
바보같은 모습이 된다면...그렇게 쉽게 말을 할 것인가???

자신은 아무 문제 없으니...
다른 사람도 문제없다? 이런 논리인지..
항상 자신의 주관에서 남을 평가하고...자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냥 말하는 사람이 엮겁다.

왜 틀을 깨지 못하는가?
그게 ..살아가는데....그렇게 중요한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살다보면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들이 있다.
그건...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 같은일은.
그게 무슨 큰 일이고 대수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강하게 밀어붙이는가?
남의 입장도 이해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바보같은 모습으로 서고 싶겠는가?
당신같으면 그런 모습으로 서고 싶겠는가? 묻고 싶다.

삶에 있어...항상...내 입장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하고...
이해하고 난 다음..그래도....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
강압적인 말투가 아니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하지 않는가?

이런 대화의 기술들이 부족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도 이 세상에는 그리도 많고
내 주위에도 그렇게 많은지.....

기분이 상했지만...
집에 와서...
블라우스를 바늘로 꿰었다.
안그래도 살이 없는데..
나에게 너무 큰 옷을 주고.....
옆에는 허리선도 없이...
무슨 보리자루 입은 듯한 모습

옆에 바늘로 허리선을 좀 넣어서 꿰맸다.
약간 어설피지만...처음보다는 나았다.

검정 치마를 입을려고 준비했다가.
교회에서 준 블라우스는 치마와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검정 바지로 갈아입고 교회에 갔다...

나는 다른사람들에게 이렇지 말아야지...
내 생각이 아무리 옳더라도..
상대의 환경 기분, 마음등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아프듯...
다른 사람마음도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프겠는가/

인생을 왜 사는가?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면서..스트레스 받기 위해 사는가?
서로 조금씩만 이해하고 배려하면...
서로 기분상한말 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예쁜말 사용하여
마음 기쁘게 해주며 살면 안되나?.....

사랑하기도 바쁜 세월들인데...

왜 이렇게 하찮은 것까지...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마음을 내리자..
다 내속에 내가 나오고 내 마음이 교만해서일거다..
그래...
누구 탓을 해..
내가 마음이 높고...내 감정을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게 이해 안해주니...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는가?

마음을 내려놓자.
어찌 부족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으려 하는가?....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남자 친구들 영진이와 전영이를 보고 있노라니..
몇달전에 전영이가 시집을 냈고
시집을 우편으로 보내왔었다.

전영이는 시인이다.
지금까지 시집 출판한 것만도 7회정도 ..
아름튼 전영이는 나에게 많은 자신의 시집을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사실 다 읽지는 않았다.
이 친구또한 삶이 기구해서...글로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색깔이..
많이 어둡고 고뇌스럽다.
그렇지만 마지막은 항상 희망을 남겨두고 희망을 쫓아가는 쪽으로
결말을 맺는다.

마지막에 보내준 시집은 단숨에 읽었다.
시어 선택이며 내용이 많이 밝아졌기 때문에
읽기가 좋고 이해하기도 좋았다.
과거 시집들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글을 쓰고 표현을 했기때문에
이 친구의 인생관 또는 자신이 쓰고 싶어하는 글의 색깔을 잘 알지 못하면
읽어도 이해가 안가는 글들이었다.

언젠가..물었다.
야..~ 너는 남들이 읽어도 이해가 되는 시를 써야지..
너 혼자만 이해되고 남들은 이해 안되는 시는 왜 쓰냐?
물은 적 있다.

그랬더니....그 친구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어와 내용은 상업성의 글이라는 것이다.
그런 글을 가장 싫어한다고

야...그래도....시를 통해 인생을 노래하고 남들이 가지는 인생의 고뇌이든 사랑의 즐거움이든 설레임이든..느끼고는 있는데..표현을 못하는 사
람들을 대변해서
니네들이 시를 통해 글을 쓰고 읽는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아니냐?

너만 이해할 시는 왜 쓰냐고?
안그럼..시어표현을 좀 쉬운걸로 바꾸던지....

그런 대화가 3년전에 있었는데....
최근에 보내준 시는 아주 밝아 보여서 좋았다.

단숨에 읽으면서...
나와 관련된 시도 찾았다.
그 친구와 함께 했던 시간들,,,그리고 문자대화내용들에 대한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글들이 몇 편 있었다.

읽으면서..
이거 전영이와 대화와 나누었던 대화내용같은데....가우똥...

나중 그 친구와 통화하면서..
시 잘 읽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그 친구왈...
시 읽으면서 뭐 느낀거 없냐??
음....나와 관련된 시도 몇편 있던것 같더라...
맞나??

어....맞어..
너와 문자로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좋은 감정들,
고마운 글들..긍정적인 사고의 힘들들..
수필로 써 넣은 것도 있고 시로 표현한것도 있어..

어쩐지...ㅎ

아뭇튼 고맙다야..
내가 ..시집에 나온거네...푸하하,...
영광스런 일이네..그것참....

오늘 문득...전영이 사진을 보면서.....몇자 적어보았다.

전영이는 나와 동갑이고..
결혼해서 딸 하나 두고 이혼하였다.
그리고 내내 인생을 고뇌하면서..
엄한 교육자 아버지 밑에서 이리치이고 저리 치여서
딸을 가진 아빠로써 대우도 못받고
늘 부족한 아들로만보여서 아직도 구박도 받고
무시도 당한다고..

그래서 너무 삶이 싫다고.
아버지가 죽이도록 미울때도 있지만...

마음을 스스로 달랜다고...

또한 이 친구는....많이 아프다.

과거에 간암에 걸려서 오래 못 살것 같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그 말이 사실인지는 잘 모른다.

이 친구 단점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

자신이 인정받고 남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한다...

과거에는 뭐 ..이런 친구가 있어 라고 적잖히 실망했는데

자신이 살아온 환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될 만도 하다.

워낙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커서

아버지가 너무 엄하셨다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들에게 시선을 끌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픈건 사실인 듯 하다.

실제로 보면...아주 말랐다..비 정상적으로...

좋은시절에 자신이 가장 사랑한 여인이 죽었다.

그때부터 이 친구는 인생을 고뇌하기 시작했고

슬픈 시를 적었고..사랑한 여인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시로 적었다...

언젠가..말했다.

나도 죽으면 그녀 옆에 묻힐거라고....

가장 사랑한 순간이 마음깊이 각인되어서

언제나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생각도 해 본다.

언젠가 또 만날날이 있겠지만.

몸과 마음도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바라는 맘이 든다.

오늘 원장선생님 나 좀 보자고 해서....갔더니...

행복반 선생님이 12월까지 다니고 그만 둔다고 했는데.

안그래도 맘에 안드는데...오늘도..아이들 칭찬보다는..맨날 꾸중과 벌만 세우고

아이 중 한명이.. 어린이 집 오기 싫다고...그전부터 했는데....오늘 벌을 세우고 있는 광경을 또 목격했다는 것이다..

그만 둔다고 해서 맘이 떠난는지...성의도 열의도, 없고, 그냥 낯간사람처럼

앉아만 있다라는 것이다..

속이 터져서 미치겠으며...당장 선생님을 바꾸고 싶은 맘이 꿀떡 같지만.

어머니들의 인식때문에..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

정선생님이..행복반을 맡아주면 안되겠어요?

정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장선생님 말씀을 다 듣고...말을 했다.

제가 공부도 하고 있고 학교 일도 보고 있으며

12월 초에는 기말시험이 있어서....

행복반을 책임지고 맡는 다는 것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가르치고 자료 준비하는것이야...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주간 계획도 짜야하고..월간도 짜야하고...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환수첩도 적어야하며, 일일보고서도 적어야 하고....

제가 마치는 시간 안에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재롱잔치 큰 행사를 두고...선생님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가지 행사차질에도 문제가 있을 성 싶습니다.

정선생님이 맡아만 준다면...

재롱잔치 안하고 영어와 관련된 행사로 바꿀수도 있어요.

생각 좀 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시험이 눈앞에 있는데..제가...여러가지 일을

다 잘 할수 없어요..혹..한다고 해도.제가 먼저 힘이들어서..

지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그 선생님이 맘에 안들어도....어머니들의 인식도 있고..그러니까.

어찌 어찌 잘 달래서...12월까지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말만 끝나면...파트 타임이 아니라 정상근무도 가능합니다.
그때는 얼마든지 제가 해 낼 수 있지만...기말 시험을 앞두고는 안됩니다.

이야기를 듣고....원장선생님도 많은 생각을 하셨다.
사실 1년 다 끝나간 시점에서 새로운 선생님을 데리고 온다는 것도..
힘이 드는 일이며, 또 선생님이 이번에 2번째 바끼는 거란다.

원장님 마음은..충분이 이해가 간다.
승질같아서는...당장 그만 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지라도...
내년 재원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래도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제가
걸려있어서....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엿볼수 있다.

그렇지만 어쩌랴~
감정대로 하고 나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결정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해야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일은....그냥..속이 뒤집어 지더라도...
원장선생님은.....행복반 선생님을 잘 다독겨려서..12월까지.
가는 것이...현명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는 교사라면...
차라리...한시라도 열정있고 사랑있는 교사로 바꾸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지각 차이에는.
각 사람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때문에....
원장은 자신의 입장보다는 학부모입장서 먼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것이다.

아뭏튼 ...난...주저없이 No라고 했다.
더이상 생각할필요가 없이....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도...컴터 안되면..원장선생님부터..나를 부르고...
뭐가 문제 생기면 나하고 의논하고....

직장이며...학교총학생회 일이며 공부며..
집에 오면 빨래와 밥 청소,,,,,도 해야하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도 해야하고..

너무 너무 바쁜 사람이...나다.
그래서 몸도 피곤하다...

다음주에는...교회에서. 작은 음악회 행사가 있어서...
합창단 복장으로 앞에 나가서....찬양도 해야한다.
이래저래.행사가 많아서...
너무 힘들다...

요즘 내가 잘 웃지 않는다.
내 스스로 나를 봐도,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웃는 시간이.
바로 운동하는 시간이다.

운동은 나에게 즐거움과..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

어제 신랑은..
당신 차 한대 뽑아야 안되나...
정말?
차 사주면 좋지...
유지비는..누가 대주는데?
당연히...내가 대주지(신랑)

사실....부가가치세도 천만원대 밀려있는데..
차는 무슨...ㅎ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기분은 좋았다.
그래서 웃었다...

내가 좀처럼 즐거운 일이 없어서 잘 안웃는데.
오늘...웃고 싶네...ㅎ 어쨌든 마음은 즐겁네...
그랬더니...
신랑도...웃었다.

지금도 아니라도...
차는 있어야 한다.
내년에는 차를 사야지.

영민이란 아이가...인형을 가지고 놀았는데...
성인몸을 가진 여자인형이였고..
옷을 입히지 않는채..
긴 노란머리에..
볼록 솟은 젖가슴이 보이는 인형이었다.

옷을 입혀줘야 하는데..
벗겼다 입혔다 하니까..
벗겨진채로....
영민이는 가지고 놀았다.

영민아~~
이 인형은 여자야 ? 남자야?
영민 왓...여자예요..
그럼 영민이하고 다른점은 뭐야??

영민왓..
인형 머리가 길어요..
오...그렇구나.
영민이는 머리가 짧고...여자인형은 머리가 길구나...

또 다른점이 뭐가 있을까/.
(놀이를 통해 학습을 하는 의도였다 남자 여자 구별법..자신과 다른점 찾기)
영민이는....아무말도 없었다..

영민이 가슴은 얼마나 해??
영민왓...작아요....

옆에 들고 있던 정호친구....
우리아빠 가슴은요...
또렷한게...딱 달라붙어 있어요
(4세 아이가 할머니 같은 투로 말을 했다)

그순간....옆에 있는 선생님들..박장대소...

나도 너무 웃겨서....아이를 안고 툭엎었다..

무늬만 아이지....

생각은 영감같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아이에게 말도 조심해야겠고

행동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너무 멀리 왔나요?

그가 손짓하네요....

그의 눈빛은 젖어 있어요

그의 마음은 슬퍼해요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애타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소리쳐요

가지마~~~

제발....

돌아와줘~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나를 보고 있는 그 눈과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힘들때, 눈물흘릴때 마음 상할때...

어디 계셨어요?.....

그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왜....

왜.....

나의 모든것을 아는 당신께서...

왜....

시작과 끝을 아시는당신께서...

왜,,,,,

서로 가슴아파하고 있나요?

5분 더 빨리 출근을 하여서 어린이집 차를 타고 처음으로 차량을 돌았다.
아이들 집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모셔? ㅋㅋ 오는 일이다.
덕분에 아이들 어머니들 얼굴도 익히고....나름 재미있었다...

또...

내가 빈 자리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다
나보다 나이가 있어 보였고 경력도 많다고 들었는데
보조선생님으로 오셨다.

아줌마들은 오랜 시간 근무하기를 거부한다.
가정이 우선이기때문에..
그래서 시간때문에 적은 월급을 준다고 해도
만족하며 일을 하는 것 같다.

어찌보면 원장들은 그것을 역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다.

오늘부터 난 5시까지 근무를 한다.
사실 오후 수업마치고 반일반 아이들 보내고
종일반 아이들 낮잠을 잔다...

3시반부터 나는 이리저러 일일교육일지 와 주간계획서 또는
내일 할 자료를 찾아 준비해야하고..
내가 맡은 반 청소를 한다...

오늘 나름대로 5시까지 보내보니..
사실 4시면 모든 중요한 프로그램이 다 끝났다.

그 이후로 쌤님들은 아이들과 간식먹고
아이들이 30분 놀다가 집으로 귀가 했다.

내가 5시에 퇴근 할 즈음
종일반 아이들도 이미 갈 준비 끝내고..
가방 메고 집에 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나도..
거의 모든 하루 일과를 다 끝내는 것 과 같은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왜 작게 주는겨..~~

2틀전부터....
아이들 어머님들이 보내신 땡초 고추와 묵을 주부 선생님들에게
나눠주었고 나한테도 가져가라고 말을 여러번 했다.

다른 선생님들은 잘도 챙겨 가는데.
나는 맨날 까먹고 안가져온다..

오늘도 원장쌤님이..
정선생님 오늘은 까먹지 말고 꼭 챙겨 가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잊고 내 몸만 데리고 나왔다.ㅎ

그것참....
손에 쥐어줘야...챙겨오는 아줌마네..

저번에도 총학사무실에 갔을때.
동문회 걷기 대회에서 얻은 막걸리를 관리국장님이
2개 가져가라고 했었다.
꼭 가져간다고 해 놓구..ㅋ
또 까먹고 안가져왔고...그 막걸리는 나를 기다리다 지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말았다...

내가 그런것을 못 챙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내 정신이 항상 바쁘기때문이고
다음스케줄이 이미 내 머리속에 꽉 차 있어서...
정신적 여유가 없다고 봐야 맞을것이다.

그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만큼 바쁘다...
단 10분이라도 그냥 보내기 싫어서..책을 들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나닌까...

어찌되었던 바쁜 시간을 잘 쪼개서 활용해야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먼 지나간 나의 바쁜 삶을 회상하면서..
참 후회없이 열심히 살았구나....
내 스스로 나를 높이 평가하고..멋지게 평가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되며

이렇게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삶을 살지만.
또 시간이 흘러.....
마음에 여유를 가지며.....
살아갈 날이 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젊지 않는가?

젊을때는 열심히..미친듯이...뭔가에 도전하며 살아야 하지 않는가?.....

결과는 모른다...

그렇지만 도전하는 삶의 결과는 아마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을 것이다.....

좋은 결과란 무엇인가?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때...
후회없이 살고 멋지게 살아온 삶이라는 것이다.....

당장 내가 죽어도..
그래 난..지금까지....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도 않았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기에 여한이 없다..
미련이 없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내 삶이 60이 될지 70이 될지..
어찌 알겠는가..
내일일은 알수가 없잖는가?

단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잘 쪼개어서
후회없이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것일뿐!

주일인데...

과제물 제출하러 학교에 갔다...

아동부 사회도 봐야했고..차량도 돌아야했고 성가대도 서야했지만..
아무것도 못했고

오직 두 학교를 오가면서..과제물을 제출하고
다른학우님들은 중간고사를 치렀지만..나는 과제물로 대체를 했다.

과제물 제출하는데...5분정도..
5분을 위해서..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음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쩐랴~..
단짝 같은 친한 친구가 있으면..
야~ 나 아동부 예배 때문에...9시대는 못갈것 같다..
내것까지 내주라 ,,할 거구만....
그렇게 부탁할..마음편한 친구가 없다는것도..
내가 인생을 잘 못 살았나? ㅋㅋ

그건 아닌것 같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 즐겁고 나 혼자 잘놀고...
굳이...친구가 없어도..밖에 나가면...만나는 친구정도만 있으면..
사실 그런 친구는 많다.
술친구..ㅋㅋ"

술한잔 하자 하면 여자든 남자든 줄 서 있다.

단지 내가 그렇게 안할뿐....

오전에는 교육대학에 가서 과제물을 제출하고
오후에는 금명중학교에 가서 과제물을 제출하고..
집으로 오는데....몹시 피곤....

지하철에서 책을 보다가 눈을 감는다.
슬그머니 피로함을 느끼면서 잠이 들지만.
한쪽뇌에서는...

여기가 지금 어디고 몇코스를 갈거니까..정신차리고 있어..라고 하는것 같다.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다가도..

내려야 할 역에 도착하면...

눈을 바로 뜨고 여유있게...기다렸다는 듯..내려오는 정신력..

집에와서 공부를 하다가...

1시간 잠을 잤다.

잠을 자고 싶을때 잘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

정말 행복하다...

1시간을 자고 일어나서...

집안청소..빨래, 음식물쓰레기버리고 , 종이쓰레기뭉고, 밀린 일을 시작했다.

참..할일도 많다...

이러니..내가 어떻게 견뎌~.....휴...

..

11시쯤 가까운 대천천에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갔다가
오는 길에 두 아이가 손잡고 오던중 한 아이가..손을 확 끌어 댕기는 바람이.
다른 아이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려 넘어지면서...
울긋불긋한 벽돌에 머리를 찼었다.

피가 난다고 했다.
나는 뒤에서 4명의 아이의 손을 잡고 따라갔었다.

깜짝 놀라서 가보니.
동준이란 아이가 울면서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살짝 긁혔겠지...생각했다.

함께 일하는 사랑반 선생님이 얼릉 안아서 이마에 피를 닦아주었는데
세상에...
살이 꼭 패안것이 아닌가.....

패이는 정도가 깊었다...

상태가 심각해서 얼릉 원으로 뛰었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할 일이었다.

어린이집은 살짝만 긁혀도..부모들은 극성이고 좋아하지 않기때문에
모기 하나만 물려서 빨갛더라도 선생님들은 극성을 띤다.
약을 바르고..어디서 그랬니..어머 어떡해.....등등...

원장쌤님은 아이를 데리고 당장 성형외과를 찾아가셨다.

우리반이라서..마음이 영..안좋았다.

살짝 넘어진듯 한대..
하필이면 찌히는 부분이..맨들한게 아니라.울퉁불퉁..큰 돌이 촘촘이 박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동준이 손을 잡아 끈 아이는...아무생각없이 그랬겠지만.
선생님마다 그아이에게..가벼운 꾸중을 하셨다.
물론 나는 아무말도 안했다...
아이가 내가 이렇게 끌면 이 아이가 이렇게 다칠거라 생각을 하고 했겠나...

어쨌든 모든것은
선생님부주의로 돌아오게 된다.

아이들은 순간 다친다..
내내 잘 보고 있다가도 잠시 다른데 보고만 있어서..
어찌 다치든 다치게 된다.

동준이는 심각하다.
퀘매도 너무 많이 패였기때문에
흉터가 생길것같은 느낌이 들어다....

2시간정도 지났을까 원장쌤님이..
동준이를 데리고 오셨다.
이마 5바늘을 꿰맸는데...깊게 파여서...
흉터가 남을거라 했고 10일정도 병원에다녀야 한다고 했다.

이 사실을 부모가 알면..얼마나 화가 날까?
다친 경로가 어찌 되었던..
내가 부모라면...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하면서도 은근히 화가 날 것 같다..

아마.이 부모님도 그럴것이다..예상해본다.

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와서 그나마..마음의 무거움이 조금은 덜할지 모르지만.
동준이를 책임지고 데려오신 선생님 마음은 바윗돌을 올려놓은 기분일거다.

부모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할 것이며
원장선생님 보기에 얼마나 미안할 것인가....
스스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동준이는 이마를 꿰매면서....너무 많이 악을 쓰고 울었다는 것이다..
그말을 듣는 순간....
동준이를 끌어안았다.눈물이 나왔다.

이 어린것이(4살) 꼭 파인 생살을 꿰매기전에 마취를 할텐데.
얼마나 아팠을까.생각하니 그 아픔이 나에게 전해오는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나왔다..

동준이도 내 품에서 울었고...
함께 일하는 선생님도 울었다.

동준이를 한참동안 끌어 안고 훌쩍 훌쩍 ..울었다.
내 아이가 마치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동준이 밥을 먹여야 하는데
동준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동준아 밥을 먹어야...이 상처가 빨리 낫는데..라면서
설득을 하였지만 한사코 먹지 않는다고 했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강한 어조로 동준아 밥 먹어야 돼...라고 크게 말했다.

동준아 밥 먹자....라고 하니까.. 안먹는다고 해서...
나라도...밥 안먹고 싶겠다...라고 혼자 말했다.

그러자..그순간..
함께 일하는 쌤님이..
정선생님....그렇게 말 하면 내 마음은 어떡겠어요? 라고 ...
화가 난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했다...

순간...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 동준이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지요...라고 말을 했지만.
나도 너무 화가 났다.

과거...
엄마나 아빠가..밥상에서 나를 혼내놓고
밥 먹으라고 했을때...
혼난 기분에 어떻게 밥을 먹고 싶겠나?
그래서 안먹는다고 해도
음박지르며 먹으라고 하니까 먹긴하지만.
목에서 밥이 넘어가지 않는 경험이 있었다.

지금 동준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밥이 넘어갈 감정이 아님을 내가 이해한다는 뜻에서...
나라도 밥이 안넘어가겠다 라고 혼자 말한것인데...

함께 일하는 선생님은 마치 자신에게 한 말처럼 해석을 하셨는지,
화를 내신것이다.

저번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또....
이 진짜 이 선생님..성격 이상하네...
정말 열받았다...

아니 해석을 왜 그렇게 하나구.....

물론 자신 마음 무거운거야 내가 이해못하나?

함께 사랑받을 이끌어가면서 선생님이 그런것도 아니구

한 아이가 그 아이 손을 확 끄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책임을 함께 공감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나는 책임이 없고 그 선생님만 책임있다고 생각을 했겠냐는 것이다...

정말 화가 났다...

이 선생님이 스스로 자신이 소심한 에이형이라고 하던만..

진짜 사람 억울하게하네..

말도 직선적으로 거르지도 않고..자신의 주관적 해석으로 바로 그자리에서
말을 하니..

이번에 두번째 당하는거네....

아...열받네 진짜....

아~ 정말 짜증나네...하면서 보란듯,,,투덜거렸다....

그랬더니 선생님도 미안한지..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청소로...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누가 말 할줄 몰라 안하고 있나..

항상 웃고 넘기니까 내가 바보로 보이나....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이 일에 대해서 꺼내기만 해봐라..

기다렸다는 듯 저번 억울했던 일까지..한방 먹여줄테니....

사람 성격이 정말 희안하네....

무슨 말을 못하겠네...

누가 소심한 성격 아니랄까봐..

어쨌든 이 선생님한테는 말조심을 좀 해야할 것같다.

괜히 편하게 생각해서 말을 하게 되면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예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안그래도 아이 다쳐서 마음아프구만.

이 선생님까지 속 뒤흔치게 하네....

물론 그 선생님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거 이해 못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전혀 선생님과 연관지어서 한 말도 아니구..단지 내 과거를 회상하니

동준 맘을 이해하는 맘에서 하는 말이었는데...

동준이가 오늘 다치고 이마 꺾매고

아파서 약을 쓰고 울고 왔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그앞에 밥을 주면서 밥 먹어라

하면 밥을 먹고 싶겠냐고.....

휴~~...

이런 사람들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들다는거 아니겠나..짜증스럽네...

비가 새차게 오는 아침...
출근길 애로사항 많은..

바지보다 치마를 입는 것이...비오는 날..줄을 것 같아 치마를 입었다.
화명역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버스가 한대 지나가더니..이내...물줄기를 내리치고 지나갔다.
이런 ...~! @\$%^&*

아직도 배수가 안되서 물이 고이는 동네가 있더니..
화명동 사람 살 동네 아니네.....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운동 갔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잤다.
11시쯤에 취침을 해서인지..

1주일동안 쌓였던 피로가...풀렸는지.
오늘 근무중에는 건달만 했다..

그전에는..
입에서 아이고 피곤해~ 가 절로 나왔다.

하기사...저번주에는 제대로 쉰 날이 없다.
토요일도 종일 학교에서 컴퓨터작업한다고..그랬고
일요일날은 행사가 있어서....
여러가지 긴장가운데 지냈고....

월요일부터는...과제물완성 한다고 내내 컴터 붙들고 있었고..

아뭇튼 피로가 쌓이고..
어린이집은 종일...바지락 거려야 한다.

회사를 다니면 점심시간에...1시간 쉬는 시간이 있거나 하지.
이 녀의 어린이집은....잠시도..긴장을 늦출수가 없고
앉아 쉴 시간이 없다.

내내 고함질러야 하고 말을 해야하고....

어제는.....5세반 말는 일에 대해서...

괜히 빨리 결정했다,,라는 약간의 후회가 들었다.

조금 더...생각해 보겠다고 할걸~

내 고생길 뻔한데.....

월급 10만원 올려준다고 했다.

담임을 맡은 월급치고는...거의 공짜 수준의 월급이다.

하지만 내가 다른 쌤처럼 정상출근도 아니구.

마치는 시간도...정상 퇴근이 아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나가지 않고.

이래저래..사실 나는 월급 작게 준다고 해도...

왜 이렇게 주냐..라고 권리를 내 세우지 못할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출근하면서....동등한 입장에서..

담임을 맡았는데 왜 이렇게 월급 작게 줘요? 라고 말을 할수 있지만...

그런데..

짜증이 난다.

왜냐하면..

일을 해 보니..내가 받는 월급 그 이상의 노동과 힘듬이 있기 때문이다.

힘든만큼 댓가가 충분히 주어져야...힘들어도 불평하지 않는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겠는가?...

아뿔튼 5세반 말는 것도...사실 받는 월급보다 더..힘든일이 될것인데...

괜히..말는다 했나?...

에이.....돈 작게 줘도 고생은 하기 싫다.

공부도 해야하는데.....

진짜 내가 좋은 사람인지..바보인지....

나도 모르겠다...

기준이 헛갈린다..

내 실속 못차린 면에서는 내가 바보구

인정때문에 내가 힘들어도..참고 도와주는것을 보면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원장쌤님 보자고 하셨다.

간단명료하게....5세반 선생님 내 보낼테니 선생님이 맡아 달라는것...

저번에도 찐빵 고생했는데...

그리고 얼마전에도 내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쌤님은 행복쌤님을 둬서..유익이 아니라..더욱 손해가 되는 모양인지.
다시 제의를 해 왔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도움을 주는 사람이 참 고맙지 않는가?

나.....

개인적으로 하기 싫다.

그런데..원장쌤님 입장에서 보니까....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분명하다..

원장쌤님도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고 그외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거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을 맡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반을 맡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는 뜻도 된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항상 쫓기는 삶을 살면서...

육신이 고되고..더불어 정신도 피곤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나 몰라라 할 일도 아닌 것 같고...

할수 없이..그러겠노라고 했다.

12월에 재롱잔치 는 제가 경험도 없고 시간도 제한적이라

좀 애로사항이 있을 듯 합니다.했더니.

조율을 하겠단다..

재롱잔치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던지..혹 하더라도 1월달로 미루겠다고...

나를 위한 배려같다...곧 그것이 원을 위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다음주부터...

5세반을 맡아야 한다.

말도 드럽게 안든 5세....

이번에는 좀더..아이들을 다루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전에는...무조건 사랑으로 감싸고 안아주다 보니.

내가 몸살 날 지경이라~

혼낼때는 엄하게 하고...

그외에는 사랑으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조율해서 다루어야 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어쨌든..근무시간도 5시까지 1시간 연장에다..

아침에 차량도 돌아야 하고.....

고생길...힘히 보인다.

돈이나 많이 주면....

혹 , 그 만족에 힘이나 날텐데.....

그러나 ...뭐..

세상을 한순간만 살고 말련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열심히 하면..

나중 그만한 댓가(돈이든,능력을 인정을 받든..좋은샘님으로 평을 받든)

가 분명 있을거라 생각한다...

이쪽 분야에서 좋은 평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근무하는곳을 여기저기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겠는가?

또 한가지 원장샘님의 부탁을 허락한 이유는..

많은 것을 해야하기에....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내가 이 일이 직업이라면..

이왕이면 프로가 되는게 좋지않겠는가?

경로가 어찌 되었던 간에.

일을 배우고 경험하기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물론 많이 힘이 들겠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나?

그만한 댓가를 지불하고 얻는것이 아니겠는가?.....

피곤의 연속이다.

지하철에 앉았다 하면. 졸고...

어제 당직이여서 학교가서 과제물 다 끝내고

맞춤법 검사하다가....

졸았으니...

피곤아 피곤아~` 떠나가거라..

어제는 당직 끝나고 오늘 만큼은 일찍 자야지 하고 신랑에게

집으로 퇴근할때 맥주한병 사오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12시라...

나원참..

피곤하긴 한데..

정신은 늘 긴장되어 있고...

누우면 숙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리뒤척 저리뒤척..

도대체...어쩌라는거야.....

종일 쉴틈도 없이...

바지락 거려야 하는 직장일...

이렇게 힘들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급료를 작게 주는 여성가족부....

니네들이 와서 직접 일해봐라.

100만원도 안되는 돈 받고.

이 일을 하고 싶은지.....씩을것들.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노인들은 지하철 입구에서 그냥..완장 하나만 차고

하루종일...있으면 70만원 주고

우리들은 이 나라.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을 양육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최저임금 것도 부족해서...

그 이하로 주고

사회가 썩었고 정책이 썩었어..
이건 불공평 하잖아~~....

무엇이 중요한지 분간도 할 줄 모르나
탁상행정이나 펼치고 있으니.
현장의 일을 어찌 이해하겠뇨~~

에이..썩을 세상...

☕ 커피가 생각나는 날씨....싸늘한 바람이 몸속 깊이..파고든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한해를 되돌아본다...

올 39세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즐거움보다..슬픔과 괴로움, 놀라움, 두려움이 많았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마음도 몸도 힘들었던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너무 힘들어서..
39세 삼재가 들었나.?.믿음없는 생각도 잠시 해 본 적도 있었다.

이제 올한해 했던 일들을 하나씩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

학교총학생회 일도...
교회 봉사의 일도....

새해가 되면 내가 또 다시 선택할 수도 선택아니할 수도 있는 일이기애...
많은 생각들이 교차된다.

총학생회 일할라..공부하라...교회봉사활동, 가정일,,운동, 그리고 직장...
몸이 열개라도 부족한 시간이었고,
꼭 내가 해야할 일이었다.
내 의지이든 의지가 아니었든.....

그래서 ...
내년에는 일들을 줄일생각이다.

먼저.내가 믿음안에서 바로 서야할 때가 된 것 같고...
내가 충만해야..아동부 가르치는 일도..봉사의 일도 즐겁다..

그래서 아동부교사와 성가대 둘 중 하나를 쉼까 생각중이다.
교회가 작다보니 일인다역을 할 수 밖에 없고
상황을 보면...내가 쉬면 안되는 상황들이지만....
내가 먼저 충만함 가운데...바로 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성경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리면서.
다시....하나님의은혜를 갈망해야하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오늘 4여전도회 총회를 했다.

그간 내가 바빠서..임원활동을 모두 거부해 왔는데.

오늘은 회원들이 몰아서..회장을 하라고 했다.

더이상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단계라서.

그냥 ..받아들였다.

회장직을 잘 할려면...우선 시간이 많아야 한다.

이러저리 바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좀 더 마음에 여유와 시간에 쫓기지 않는삶.

내 육신이 고달파..봉사를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그런 봉사는

더이상 계속할 수가 없다.

먼저 내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예배를 마치고....

신랑하고 도로연수를 했다.

어제부터...차근차근 운전을 해 봤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하고 나면.

어깨도 빠근하고 목도 빠근하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안정적으로 운전을 했다.

아직은 내 시야가...좌, 우 백미러 볼 정도의 여유는 되지않는다.

많은 시간 운전대를 잡아야 하고.

브레이크와 엑서레다,,감각을 익혀.

내 몸의 일부가 되어 내가 스스로 조율이 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할 듯 하다....

오토라서 그런지 오르막의 두려움이 없어 ..무엇보다 좋았다.

신랑하고...1시간30분을 함께했다.

차들이 없을때는..마음이 편하던데.

옆에 차들이 뽕뽕 달리면.....은근히..겁이 나는.....

오늘은 뒤에 초보운전이라는 글을 붙이고 운전을 해서 그런지.

뒤에 오는 차들이 배려를 해 준 느낌이 들었다.....

시간날때마다 운전대를 잡아서 빨리...

나 혼자..차를 운전하고 싶다...

재롱잔치 때문에...

요즘..울동을 익히고 있다.

'선생님이 먼저...익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에...

매일 비디오 보면서..

시간날때마다..잠시간을 이용해서..

울동을 익힌다.....

기말시험공부도 해야하고.....

힘들어~~

비가 보슬보슬 내리면서 기온이 내려가는 듯...
썰렁한 느낌을 받는다.

종일 아이들과 전쟁을 치렀다.
2주동안..내 감정이 격해서 두아이에게 감정이 섞인 꾸중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내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얼마나 말을 안듣는지...몇아이때문에 다른아이들까지 모두 동요되어서
수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으니...
처음에는 달래고 화를 내고 사랑으로 안고...여러가지방법을 동원해서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갔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그때뿐이다..뒤돌아서면...선생님이 혼낸것도 잊고 또..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그것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

가장 말 안듣는 5세....
죽도록 미운 5세라고 했던가..~

다른반 선생님들이..나보고 대단하다고 했다.
경험도 없는데도 어찌 어찌 잘 이끌어 나가는 거 보면....

힘들어서 다들 꺼리는 5세반..특히 담임이 2번이나 바꼈다면.
어느 선생님이라도 꺼릴 것 같은...

아뭏튼 멋모르고 달려든 결단의 결과를 맛보고 있다.
달려들었다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원장님 처지를 공감하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선뜻 오케이한 것에 대한 결과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해야할까...

어머님들은 다들 좋아하신다....왜냐...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엄마처럼 잘 감싸주니까... 그런데 나는 너무 힘이 든다.

힘든 반면에 많은 것을 배운다.
어떤 상황발생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등..
그리고 심리파악하는 방법 등....

남들은 1년 거칠 과정을 나는 몇개월에 다 배울것 같다.

아뭏튼 피곤하다..하지만 난 아이들이 좋다.
말을 안들었을땐 혼을 내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건 아이들이 미워서 싫어서 하는 꾸중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은 다 알 것이다.

아이들은 꾸중하고 혼내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도
자신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에 대한 느낌은 내내 기억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다.
인간이란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한 투쟁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사랑을 받기위해..모든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투쟁하는지도 모르겠다.
사랑이란 단어속에는 인정,,존중 존경, 경의 등..많은 의미가 함축된 말이다.

아이를 꾸중해 놓고...괴로워하다가..
원장쌤님에게 물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원장쌤님은 말씀하셨다.... 바른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꾸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선생님 감정을 섞지 않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꾸중한다면..
아이도 알고 엄마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마음이 놓인다.
난..아이들 꾸중하고 하는거...원장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실까.
궁금했었다.
즉.....원을 운영하는 철학 신념이 궁금했다.

재원문제때문에 엄마들에게 무조건 잘보일려고 거짓말하고..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교육을 이끌어가는 본인지,,,아닌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는 본인지 궁금했었다.

말씀하는거 보니까....
올바른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내가 더욱 아이들 교육시키는데...불안해 하지 않고
자신있게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중고차를 한대 샀다.
2주전부터 차를 알아봤고..
마침..괜찮은 차가 나왔다고 해서 서류절차를 밟고 보험을 들었다.
이번 중고차는 내 명의로 샀고 보험도 내 이름으로 들었다.
내가 몰고 다닐거니까...

차종은 아반떼 이고 색상은 흰색(내가 원하는 색)이라고 했다.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저녁에는 신랑이 가져올 것이다.

운전 연수도 해야겠네 아가씨적에 터프하게 운전했던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날지.....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내 몸의 감각들이 다 잊었는

지...잘 모르겠다.

바쁜 행사는 끝이 나서 이제는 공부해야지....생각했는데...
이래저래...바쁜일들이 많다.
그래서 정작 하고 싶은 공부는 뒷전이고 맘만 무거워진다
빨리...시험공부를 넉넉히 해 놓고..
여유를 부려야 하는데...지금 그렇지 못하니 조바심만 난다.

오늘 컴터 인쇄가 안되서..짜증이 났다.
이리저리 만지다가..
컴터 드라이버가 지워진것을 알아냈고...
다시 드라이버를 깔아서..결국 복구 시켜 봤는데..

사실..컴터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조립이라서 그런가?.....에구.

아뭏튼 컴터 고친다고 (마음은 조금하고 빨리 원에 관한 일을 끝내놓고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컴터에 문제가 생겨 신경을 곤드세
웠더니..머리가 아팠다)
시간 다 허비하니 괜히 마음만 쓰리다..

오늘 부산역에 견학을 갔다왔다.
류인악 씨가...화명역에서부터...부산역 왕복...무료로 태워주었다.
혹시 자신이 돈 내고 태워주는 것은 아니겠지.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
원장님도 만족해 하시고..

견학을 갔다와서 아이들에게 기차를 그려보라고 했다.
5살 수준의 기차지만.나름대로 형태가 나오긴 했다..

오늘 교사 회의를 했는데.
1월달에 재롱발표회를 하니까 준비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만 무거워진다.

나는 다른일에 신경 못쓰고 기말시험에 온 심혈을 기울려야 할 판인데...
재롱잔치 준비하려고 하면 비디오 보면서...
울동도 선별해야하고 아이들 가르쳐야 하는데

보통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시간이나 많으면 마음이나 편하지..
이건.....휴~~.....

나 좀 살려줘~~

피곤하다~

방송대 학교 축제도 어제 끝났고..
오늘 교회 아이들 견학 데리고 갔다 오면..
한시름 놓을 것 같다...

갑자기 큰 일들이 3개 겹쳐서..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낸 것 같다.

황산나루제 학교 축제도..
보기에는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임원들 하나부터 열까지..세심하게..챙기지 않으면
곧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허둥지둥 하게 되기때문에...

아뭏튼...일 해 본 사람은 그 마음을 이해할거라 생각된다.

행사는 어제 잘 끝났다.
나름대로 재미있었다..

물론 학생들의 호응도는 썩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고..
꼭 참석한 사람만 참석한다고 해야하나??

그리고..
방송대 특성상..
스터디나 학교에 자주 오는 사람들은..
서로 잘 아니까...행사에 참석하기에 부담이 없는데..

내내 ...나홀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선뜻 참석하고 싶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참석을 기피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나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방송대 사람이니까...

학교 행사는..
학과나 스터디의 대표나 팀장들이.적극..학생들을 권유하고.
홍보해서 이끌어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지만....

방송대 색깔 자체가...원래 그러한데...뭐.....

종일...학교 행사를 카메라에 담았다.

가요제때..

이벤트 박노민.(경영학과 선배님)씨가.

나를 살짝 부르더니..

자신이 사회보는 모습등을 좀 찍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명함을 주었다.

음...약간은 가우뚱..

자신이 이일을 한지가...엄청 오래 되었을건데...

왜 갑자기 자신이 사회보는 사진이 필요한걸까?

지금까지 내내 혼자 다녀서 자신의 이벤트진행모습을

찍어줄 이가 없었나? ,,등..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사진을 열심히 찍었다..

뭐..보내달라고 하니까..보내주면 좋겠지.....

저녁되니까 날씨가 추워서..달달..~

추워서 혼났다...

행사는 아주 잘 마무리 되었고 즐거웠다...

학교 행사는 이제 다 끝났고..

선거철이 다가온다.

학교 회장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벌써 취재 기자들이...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락 거린다.

올해 선관위에 들어가게 되었다.

총학생 회장님이....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선관위 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 왔다.

뭐...

기말 끝나면 뭐든 시켜라..할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오케이 했다.

선관위가 끝나면..

올해 총학생회 일은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즐거웠다...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할까?

학과에서 일을 좀 할까?..

아니면 아예 손을 놓을까?...

만약 학과에서 아무것도 안하면....

동료들이 엄청 짜증내고 화낼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뿔튼 총학생회 일은 이제 안할련다.

공부를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해야 할 것 같다...

즐거운 금요일인데...

우리반 창근이란 애가..옷에다 똥을 싼다.

아래층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니...애들이 선생님 창근이 옷에 똥 싼어요!

그래서 창근이를 살펴보니...어정쩡한 모습으로 나를 뵈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었다.

대충 살펴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모를 난감한 상황

된똥도 아니구..완전..철쭉....아고 냄새야~

손으로 만졌는지 윗옷에 똥도 묻고..

으매...진짜..짜증스럽구만...

일단...

화장실에 가서 바지를 벗기는데....

똥이 여기저기 빠져나오고....

고무장갑을 끼엿긴 했지만.....은근히 짜증스러웠다.

따뜻한 물을 받아서...

아랫도리 옷을 다 벗겼다.

팬티도 안입어서 내의에..온통 오물천지라~

따뜻한 물로...창근이 엉덩이와 다리를 깨끗히 비누로 씻겼다.

사람은 이제 됐는데...

옷에 있는 똥을 ,,,,그 양도 많아서.....

변기통에 내의를 반쯤 넣은 상태에서...

물을 한바가지씩 퍼다가...솔로...똥을 분리해 나갔다.

으이구.....떡을할넘~....

겨우겨우 똥을 분리하고 비누로 바지를 대충 빨았다.

아이가 옷이 없었다..다른친구들 옷은 다들 여름에 갖다놓은 옷이라

짧아서 입히지도 못하고...

창근이 어머님께 전화를 했다...집에 안가시고 밖에 계신다고 하셨다.

창근이가 대변을 싸서..입힐 옷도 없고 윗옷도 똥이 좀 묻어서
옷을 갈아입혀야 한다고 말했다(사실 데려가실줄 알았다..)

어머님 알...

옷 갖다 드릴게요~...(초암네)

40중반에...귀한 아들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는줄 알았더니.
무관심속에 아이를 귀찮아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창근이는 같은 또래보다 많이 늦다..
수업시간에도 선생님 말씀에 불복종하고 규칙을 어기고
울동 배우는 시간에도 비협조적이며 비 적극적이다.
그래서 맨날 나에게 혼나고..칭찬보다는 주의를 많이 받고
꾸중을 많이 받는다.

이빠할려고 해도....도무지 말을 안들어주니.
어찌 칭찬하고 이빠하나?....

또 다른친구들하고 맨날 싸우고 공격적이어서
아이들 얼굴을 핏퐁하는 일들이 많아서..
얼굴 다친 아이 부모님께 내가.죄인처럼 되어야 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어찌나 미운지....

아이상태가 이렇게 심각하고
부모님오셔서 내가 사실대로 상태를 이야기했건만
그래도...아이를 이렇게나 방치하고 귀찮아 하는 느낌에 드니
짜증이 팍 났다.

내가 창근이 똥 치우는 것만 해도 3번째다.
그전 선생님도 많이 그러셨다고 했다.

이게 보통일이냐고?.....
엄청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구만..어머님은 도대체...아이에게 신경을 쓰시는 건지
마는건지...

엄마는 맨날 화장하고 놀러다니기 바쁘고 하기사..50 다 되어가는데
그 어린아이가 귀찮을 것도 같지만 그래도...겨우겨우 어렵게 얻은 아이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키웠을 줄 알았더니.
창근이가 다 공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아뿔튼...그 엄마는 우리 선생님들 상식적인 생각에...

나에게 엄청 미안해 해야하는 것이다.
어린이도 아니구 5세인데 이게 뭐냐고? 똥도 하나 못가려서
단체생활 어떻게 하난말이야~.....

나중...원장샘님이 옷을 가져오셨다.
어디 다녀오다가 창근이 엄마를 만났고..창근이 엄마는 아이 옷을 사가지고
오시는 길이셨는지 원장샘님께 갖다 주라고 하고 가버리셨다.

나에게 미안해서라도 얼굴 비추고 가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물튼...창근이가 밍다...
말도 드럽게 안듣고...내 속을 팍팍 썩히고 목에 핏대 올리게 만든 녀도
창근이고.....
것도 부족해서 똥까지 싸는
답이 안나오네....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분명히...
잠시도 앉아 있지 못하고 학습 분위가 다 흩트려놓고...
내년에 6세반에 올라가는데...심히 걱정되네...

팠수도 없고...맨날 야단맞을 짓만 하고....
야단치기 싫어...그냥 자기 하고싶은대로 두었더니..
갈지마오 이고....에구 에구...징그러~

몇일 안왔으면 좋겠다....

어제 오랜만에 맥주 한잔이 생각나서
수퍼에서 가장 작은거..두잔 반 나오는병 신랑에게 사오라 해서
둘이 한잔씩 할려고 했었다.
신랑이 마시지 않아서 나혼자 꿀짝 꿀짝 마시다가
한병을 다 마시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이 울렁거리고..머리가 아프고 배도 아프고
등뒤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온 몸이 후들거렸다.
변기통을 안고...울렁거리는 속에 것을 토하느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헛구역질만..계속 했다.
작은병 하나면...
예전에는 아무일 없이...마실 수 있는 주량인데
몸이 많이 축이 났는지...못 건디는 것 같았다.
출근준비를 하다가 도저히..서 있을 수가 없어서
잠시 침대에..누어있었다.
내 자신도 내 자신에 대해서 알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몇번 느껴보았다.
이러다..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죽는것은 아닌가.....그런 느낌을 몇번 느꼈다.
잠시 누워 있으니 괜찮은 것 같아서..
출근을 하였다.
아침에 감기약을 먹고서.....
감기약을 2주째 달고 산다.
비염약까지....
약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겠지만....
어쩌랴~
근무중에..머리가 지끈지끈~
아물튼 컨디션이 좋지않았다.
점심시간이 끝났는데..
1층에서 인터폰이 와서 선생님 애인 왔어요 내려와 보세요 라고 했다.
엥?~`
누구지?
내려가봤더니..
신랑이 초코파이와 사탕을 사들고 찾아온 것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복 차림으로...
헐~.....

아침에 아파서 출근하는 것을 보고 근처 안과 갔다가 들렸다는 것이다.
그마음 고맙긴 했는데...
시꺼멀게 작업복 차림에...
에고....어진간하면 나의 체면도 좀 세워줄 것이지...
다른선생님 보기에다 민망하고....
얼른 가세요~
다음에 올때는 좀 깔끔하게 해서...
다른사람보기에다 내가,,덜 민망하게..와~...
보냈다.
어느새 나도...체면이라는 것을....차리게 된다.
지위에 맞게...
이미지에 맞는 차림과 사고...등
잘못된건가?...
변질된 모습인가?.....

여전히....아이들과 매일 전쟁을 치루고 있다.
아침에 출근할때...오늘은 소리를 안지르고 아이들을 다스려봐야지..
생각하지만.....어느새나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만다...

때에 따라 꿀밤도 먹이고..
이러다 폭군선생님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다...

단 3명 때문에
나는 매일 고함도 지르고.화도 낸다..
어휴..저것들만 아니면..
내가 정말...행복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혼내고 고함치고 때로는 매도 맞으면서도..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난...10명의 아이들이 다 좋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 3명도..사랑한다.

오늘..점심시간에 옆반을 갔다.(6.7세반)
부업으로 갈려면 지나쳐야 하기때문에....

조형활동이 덜 끝나서 점심식사 준비를 못하고 있고
선생님은 아이들이 빨리 끝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간 화가 나 있었기도 했다.아이들이 너무 늦게 하니까..(점심시간은 다 되었는데)

어떤 아이가...만들기를 하다가...선생님이 보기에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가셔서 약간 화가 난 목소리로...다시 가르쳐주고
걸어나오면서 하시는 말씀. 병신!!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거였다.

순간 난 깜짝 놀랐다..아니 이번이 두번째다.

예고...쌤님..아이들한테 그런말 쓰시면 안되죠~~ 라고 내가 말하니.
신경질 나니까 글쎄~ 라고 답변했다.

아무리 그래도...아이들이 다 듣는데서 그런 심한말을...

저번에도 내가 맡은 아이가....마지막 도는 차량을 꾸물거리다 타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선생님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 아이에게 하시는 말씀..
이..사탄의 자식아~~.....

윗층으로 들려오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랬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심한말을....
이건 아니잖아~~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뿔튼 저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선생님 다시 봐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한대 때리고 말지.
그런 심한말은..
마음에 상처도 받고.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이란말인가?

아이들도 인격이 있을텐데....
아무리 화가 나도..속으로 그러고 말지..
입으로 뱉어내는 건...정말 좋지 못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 봤다.

보기에는...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 잘듣고...
아주 좋은관계로 보이더니.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스릴때.
아주 못하면..멍청이 바보 라는 소리가..쉽게 나오고도 남을 듯한 상상이 든다.
선생님 말씀은 잘 들을지 모르지만.
선생님과 아이의인격적 교감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그리고 또 염려스러운것이.
아이들은 집에 가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말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아뿔튼..경력이 5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선생님은 아니네 싶다...

내가 아이들을 때리고 야단을 쳐도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한 꾸중은 자신들이 다 잘못해서...듣는것이라
이해하기때문인 것 같다.

적어도 나는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경어를 사용하고...
또..아이들에게 여러번 주의를 주어서..기회를 준다.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안좋은 습관이나 행동이 수정이 안될때는
그때 그 아이를 불러서 야단도 치고 벌도 세운다.
먼저 벌을 세우기 전에..왜 벌을 서야하는지에 대해서
아이에게 말을 하라고 한다.
그래서..자신이 잘못함을 인정하고 그 댓가로 벌을 받는것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이다.

아뿔튼....
교사란...정말..아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자이고 스승이다.
아이들에게 사랑이 많은 교사...
아이들의 마음과 교감을 나눌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금 생각을 해보며

옆반 쌤님 성격이 별로 안좋아 보였다.
왜냐하면....자신이 화가 날 일이 생기면(원장쌤님께 한소리를 들었다든가. 아이때문에 화가 났다든가 하면...그 화풀이를 들어보라는듯..(자신
이 화난 감정을)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를 여러번 보아왔고 그 쌤도 나에게 화가 나면 아이들에게 화풀이 한다고 말했었다.

삭히거나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감정표현을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인 것 같다.

오늘도 괜히...
아이들에게 그런말 쓰시면 안돼조....했다가
종일 내가 그 쌤 심기 살피느라...마음이 힘들었다.

내말이 맞는 말임은 인정할거다..그런데 스스로 열받아 하는 이유를
추측해본건데...자기는 경력5년인데
초짜인 주제에....자기를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남을 듯한..생각이 든다

이 계통에는....경력가지고 엄청...큰소리..

아물튼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의 감정콘트롤 못하는인격은

별볼일 없는 인격이고.

나이가 많은 작든..어떤상황이든간에 옳은 소리 하면..인정할 건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용기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나도 유난히 감정콘트롤이 안된 상대가 신랑이다..

그간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나를 속여와서..

마음깊이 신뢰감도 없고....무의식중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서일거다.

오랜세월 쌓여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기때문에

나도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가 힘이 드는게 사실이다.

옛날에 어떤 설교에서 자신의 원수는 신랑이나 가족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갔다.

그 당시 신랑을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그 말이 이해가 된다.

늘 마음속에 기도를 한다.

신랑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신뢰하지 못하는 내 자신도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는 일이니까!

재롱잔치 춤 연습한다고...

종일...어린이집에서 고함 많이 치다 보니 목도 아프고..
힘들다...

내 가방에는 예쁜스티커와....
매일 사탕을 준비해서 간다.

잘하는 친구...선생님말씀 잘 듣는 친구에게 멧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다.

아이들은 내내 까불고....떠들다가..
어떤 친구가..스티커나 사탕을 받으면....
나도 받고 싶은데.....이야..좋겠다,,등....
부러워한다....

아이들은 아이들이라..
사탕 줄때만 잘하고 사탕의 단 맛이 없어지면 이내....잊어버리는....

어찌 되었든..
맛있는 것을 줌으로써..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교회사람들도.....먹으러 가자고 하면....
기를 쓰고 찾아다니더라....
난 그런 사람 정말 싫다.....
나또한 그런 사람 절대 아니다....

아뭏튼 사람이 친해질려면....
식사대접이나..선물로 하게 되면..
효과가 좋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더라.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고 그렇더라~...

요즘 나는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할지...모르겠지만.
점심식사때마나 난감함을 여러번 경험한다..

서로 선생님옆에 점심을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난리며
울기도 한다....

난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곰곰히 생각한 끝에.

형평성 을 고려해서...

매일 바끼는 도우미친구하고 점심을 먹게 되면

10명의 아이들과 다 함께 돌아가면서 점심을 먹고

서로 불평이 없을것같다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그날 도우미 친구 옆에서 선생님은 식사를 할 것이다.

도우미는 돌아가면서 하니까..결국 너희들 모두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된다.

불만없지???

네~~~

ㅎㅎㅎ

내가 혼을 내고 해도..

내가 좋은가보다....

서로 선생님 가지고 싸운거 보니.....

오늘은 사과를 두개 가지고 가서..

점심 먹은 아이들에게 잘라서 주었다.

아이들 너무 맛있어하고..좋아한다.

울동 가르칠때도 아주..협조적이다.

당근을 많이 먹여놔서 그런것 같고...

잘하면 또 당근을 준다는 것을 알기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학습된다.

우리가...지식을 배우듯..

종교도.....그렇다고 생각한다.

유익한 학습도 있지만.

모든학습이 다 유익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참된 자유를 제한하고 어떤 기득권층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교묘히...학습을 해 가는 부분이 적지않다고 생각한다.....

자유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에게...

은근히 가하는 압력의 힘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그것이 정치,경제..사회, 가정, 나아가 종교에까지 있다는 사실을...

11월 15일..토요일..맑음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하루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시간은....아주 짜임새 있게 잘 사용했던 하루같다.

저녁에는..오랜만에 김치를 담았다....
내내 바빠서 사먹다보니.
김치값도 비싸고.....아무데서나 김치를 사먹기도 좀 그렇고....

내가 시간을 내서 담아놓으면..
1달이상은 신경안써도 될 것 같다.

우리딸과 아들은 엄마가 담아준 김치를 엄청 좋아한다..
김치는 내가 좀 담는다.....

김치 잘 담그면 다른 음식도 잘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한다.
음식의 기본은 김치맛부터 시작되니까!!.....

피곤하지만.....눈이 천근되어 행복할때까지..
책하고 씨름을 해야겠다..다만 1시간이라도....

어느새....새벽..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다.
보통때같으면 12시면...졸음이 쏟아져...정신못차리고 잠자리에 누웠을것을..
내일 토요일이라는 생각에...이 늦은시간까지 있을 수 있나보다.

금요일저녁에는 체육관에 운동을 갔었다.
내가 차를 운전하고 신랑옆에태우고 아들태우고...
운동하러 갔다가 올때도 내가 운전하여 왔다.

30번 연수 받으면 나 혼자 스스로 끌고 거리를 다닐거라고 신랑하고 약속했다.
오늘까지 5번째이다...대부분 저녁에 연수를 많이 하게된다.
어제 처음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신랑없이 스스로 주차를 해 봤는데...3~4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주차를 겨우 했다.

트럭같으면..뒷 공지만 보고도 어떻게 해야할지 답이 나오는데..
승용차라서...뒤가 보여야 말이지.. ㅎㅎ
키가 작아서....여러가지 불편하네...~~
난 트럭이 좋은데...트럭을 몰고 다닐순 없잖냐~~

오늘 아들이....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소감한마디..
엄마 초보가 아니구 중급이다.... ㅎㅎㅎ

주차만....자신있게 하면...
내가 몰고 나가리~~...
아직은 아니다.
30번 연수받고...
충분히...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차를 해 낼수 있을 정도에...
운전을 하리라...

연수하면서 학교도 가보았고
내가 근무하는 어린이집까지 가보았다...

사실 낮이면 주차도 더 잘할 것 같은데..
밤이라서....감각으로 해야하는데..
아직은...멀은 것 같다..

그래도 급할때....차를 몰고 나갈 정도는 된다..

나는 뭐든 어설픈건 싫어한다.

완벽한 걸 좋아한다.

운전도 마찬가지이고..

어설프게 운전해서 밖으로 나가기 싫다는 것이다.

과거에 운전경험이 있어서..그런지..

몇번하니까....운전하는데 여유가 생겼다....

신랑에게 물었다..

어때..?? 당신이 보기에...나의 운전실력이??

역시 내 마누라네..ㅋㅋㅋ

어느정도 신랑도....걱정안해도 될 것같은 느낌이 드는지....그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내가...용납못한다.

아이들 태우고 다닐려면..더욱 능숙해져야한다..

1월달에 있을 재롱잔치 율동준비에....여념이 없다..

율동을 적어도 4가지를 외워서 가르쳐야한다.

한가지는 아이들에게 가르쳐놨다.

오빠만 믿어봐....란 율동을 가르쳐놨는데..

원장쌤님이 보시고..맘에 드시는지.

자신이 다니는 성당에서 이벤트를 해야하는데...마땅히 무얼할지 몰라하고 있었는데...마침 내가 하는 율동이 맘에 드셨다고 했다..그래서 원장 쌤님도 성당 사람들과 어제 3시간을 연습했다고 했다...

지금은 꼭두각시(국악)을 연습하고 있다.

나 혼자만..일단 내가 먼저...다 외우고 가르쳐야하기때문에.

집에 오면...동영상을 3~4번 보고..스스로 해본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비디오를 한개 가져왔는데.

딱 필이 오는 율동이 있었다..

아직도 어두운밤인가봐..전영록이 부른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는데.

외우기도 쉽고 아이들도 신나할 것 같고 부모님 반응도 좋아보일것 같았다.

12월 14일 21일은 시험이 있는 날이다.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야하는데..나는 재롱잔치 율동을 외우고 있는 것이다...

참...충신이다....

나같은사람도 없을 것이다.... 원장쌤님은 참 복도 많지.

나같은 사람을알게 되서.....스스로 생각을 한다.

저번에...원장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샘님하고 인연이 있나봐요...

여기 저기 오라는데 많은데 샘님은 직장을 안구하고 있다가.

우리원에 오게 되었으니.....인연이 아니구 뭐예요? 라고 말씀하셨다..

뭐...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사람이긴하지....

컴터 잘 모르면 불러서 물어보고 해결해주고...

저번에 자판에 어떤 영아가 토를 해서...

자판이 토때문에 냄새도 나고 그리고 자판을 두드리면 다시 올라와야 하는데..

아예...붙어서 올라오지 않아서 글을 쓸수가 없을때가 있었다.

자판 버릴려고 하는거..내가 드리아버로 다 분해해서...깨끗이 닦고

다시 조립해서 연결해 놓으내...

다시 쓸수있게 되었다.

이 얼마나.....쓸모가 많은 사람인가?

다른 샘님은 아예..손도 못대는데.....ㅎ

아롱튼 원장샘님은 복덩이를 만나겨~~,.....

오늘은 원장샘님이...

오징어 조미한거...제법 많이 든 비닐봉지를 샘님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설날도 아닌데..왜 선물.....

난 그것을 가방에 넣으면서 생각했다.

나도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냐하면...

꼭 월급으로 종업원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사고를

전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꼭 월급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간 원장샘님은..과일이며 채소며..많은것을 챙겨주셨다.

물론 자신이 산것도 있고 아이들 어머니가 갖다 준것도 있지만.

항상 선생님들에게 나눠해주셨다.

오늘 오징어 조미한 것은.

본인이 직접사서 선생님들에게 주신것이다.

어쨌든....월급외에 많은 것을 받는다.

경영이 꼭 월급만 많이 주어서 욕구를만족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방법을 배우게 되네...

아침에 원장쌤님하고 차량돌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

원장쌤님도 내가 어떤 인생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어떤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 파악하고 계실거다...

제작년...여름성경학교때...내가 산 비디오가 있다.

제목이..나는 특별하니까....이다...

그래 나는 특별하다.....모든면에서.....

내 스스로 나를 존귀히 여긴다...교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타인을 사랑함은..

곧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할 수 있는 일이기때문이다...

작는 맥주 한병을 마시고...(아주오랜만에 ..이렇게 나름대로 여유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일기를 써본다....

i love mi ran.....

🍊 오늘은 빼빼로 데이..

어제 신랑이....엄청 큰 박스를 사와서...

딸2개 아들2개 나 2개..나눠주었다.

두개를 어린이집에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아이들 중 한명이....내가 가장 좋아하는남자아이,,어머님께서 빼빼로 10개를
챙겨보내주셔서....친구들에게 나눠주어 즐거움을 나누었다.

옆반에 기쁨반 쌤님 나이는 27살...아가씨 쌤이다.

선생님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 메세지를 담은 메모가 붙어있고 예쁘게 포장된 빼빼로 를 나에게 주었다.

순간.....잠시 감동~

난 준비한게 없는데...

쌤님은 너무 예쁘게 정성모아...만들어서 주니..

고마웠고 미안했다.

내가 가져온 빼빼로 2개를 챙겨서....

준비 못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빼빼로는 아이들과 나누어 먹었고....예쁜 글의 편지는...

버리기에..너무 아까워...가방속에 살짝 넣어놨다.

언젠가는 버리겠지만....

누군가를 특별히 생각하고 정성을 들여..준비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고마워서 차마 버릴수가 없었다...

그 쌤님이.나에게 고마워하는 이유를 추측해 보면....

모든 수업마치고...청소를 번갈아가면서 해야하는데...

그냥 내가 하는김에....옆반 쌤님이 해야할 일까지..

처리해 버리는 경향이 많았다.

누가 하면 어떠랴~,,,이미 손을 댔으니..

그냥 내가 해버린다....

그런일들이 잦다보니..쌤님은....물론 그때 정말 고마워하고 미안해

하는 표현을 하셨지만..

마음깊이...고마워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떤 댓가를 바라거나 계산을 바래서 하는것이 아니니까.

그냥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경력이 많아서..

뭐든 똑부러지게 하시니..

나도 일하다가....모르면 옆반 쌤한테 먼저 묻는다..

그러면...옆반쌤님은.잘물어보셨다고....

그런것은...경험이 많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면서...잘 가르쳐주었다...

아뭉튼 고맙다....

오늘은 아이들 데리고...

빙상스케이트장 가서...뮤지컬을 보고 왔다.

1주간...대체교사로 있었던 슬기어린이집 원장쌤님과 여러선생님도

만났고..

또 신라대 동기생이었던...동생도 만났다...

요즘은....

재롱잔치를 위해 하나하나 울동을 가르치고 있다.

1월달에 있을 재롱잔치...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점심먹고 짬 시간이 나면...아이들을 가르쳤다.

아이들이 신나한다..

그런데...그 신나함이 오래가지는 못했다...

요즘은

말 잘듣는 아이에게 스티커를 주어 모으게 해서

가장 빨리 모은 친구에게 반장이라는 명예를 주기로

아이들과 약속했다.

그래서 스티커 모으려고 서로 잘할려고 노력은 하지만.

금새....흐트러지고 만다..ㅎ

애들이닌까....뭐..이해가 된다.

초코렛 과 사탕을 사서....

선생님 말 잘듣는 친구입에 하나씩 넣어주면....

그게 다른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고

선생님 나도 주세요..라고 하지만...

분명히 말한다.

선생님이....분명히..말 잘듣는 친구에게 준다고 약속했잖니..

너...쌤님 말씀 잘 들었니??

.....아니요..ㅎ

...

선생님에게 야단맞고..

간혹 가다가...나에게 맞기도 한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엄마한테 다 일러~

ㅎㅎㅎ 그래 일러라....

니가 잘못해서 맞지..잘하면 쌤님이 때리냐??~~

.....

그리고 나서 다시 뒤돌아서면..

언제그랬냐듯.쌤님한테 붙어서 여기저기 뽀뽀도하고....

아물튼 서로..쌤님옆에 밥 먹을려 하고

산책나가면 서로 선생님 손잡을려고 하고..

지네들끼리 싸우기까지 한다...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할지..그것참..난감하네...

오늘..가장 말 안듣는 민호라는 아이가...나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왜..?

아빠사주세요..

뭐야?? ㅋㅋㅋㅋ

이런..ㅋㅋㅋ

아빠를 어떻게 사???

민호도..씩 웃고...가버렸다..

답을 잘못했나보다..

이렇게 말할걸...

아빠 파는곳 알려줘

그럼 내가 아빠 사다줄께..

비움의 삶.....

모든것이 어렵다...

사람도...

자연도...

신도....

사람의 모습은 겉보기와는 틀리거니....

그사람의 눈빛을 보면.....

사람들은 자주 눈빛을 숨기려한다...

어딘가 숨고 싶은가보다...

왜냐고 물어보지만..대답을 하지 않는다...

비밀이 있나보다....

하기사...비밀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 그렇게.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나도 이제 알았네....

나도 ..감추고 살아가는 일들이.....있기 때문에....

출근길...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편하게 지내는 남자친구들이 생각났다.

전화 한통 때리면.....

기꺼이 만나줄려고 하는 사람이 몇 있다.

그러나 내가 전화하지 않는다....

그래도 가끔은

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한 친구가 3~4명 있다....

좋은 친구들이다...

좀더 가까이 친해질려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관심을 표하면

되지만...

그리하기도 싫은것이.....

너무 가까이..하고 싶지 않고 그런다고 너무 멀리 하고 싶지않는..

적당한 선을 사이에 두고..

만나고 헤어지고....술한잔하는..정도...

너무 가까이 오면

싫어질때가 있고 도망가고 싶다...

그 이유는...글세..

잘 모르겠다.

그냥 싫다...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비행이..번덕쟁이 라고들 한다.

내가 정말 그런가?....

어쨌든 가까이는 오지 마라....

오히려 더 싫어진다.

선하나 두고....

너무 가까이가 아닌....적당한 선을 유지한다면...

그게 내 마음도 편하고 좋다....

문득 지하철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스쳤다.....

오랜만에 글을 써 보네..

내일이 시험이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항상 시간에 쫓긴 시간들이고 만족할 만큼 공부도 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정리가 된다.

오늘 한과목을 공부하면..내일 시험보는데...마음 편하게 볼 것 같다.

감기가 심해서..아주 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도 내 목소리가 싫는데....아이들에게도...다른사람들에게도 미안할뿐이다.

내일 시험만 끝나면..그 다음주엔 2과목이니까..그중 한과목은 공부를 했고

한과목은 반쯤 공부한 상태이기에..1주일동안 충분히 여유있게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연말이라..그런지

원에서도 아이들에게 줄 카드도 만들고,,생일잔치도 있고

재롱발표회 연습은 매일 계속이어지고....있다.

가끔 내가 너무 피곤해 공부를 못할때는 원장쌤님이 원망스럽다.

자신은 어려운 상황을 나를 통해 해결이 되어서 기분이 좋거나 마음 편하겠지만.

나는 너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특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가

피곤에 절여 할 수 없을때..정말 원망스럽다...급료나 많이 주면

급료의 댓가다 생각할거구만....

그것도 아니구...

웬지 나는 희생자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잘 해 주면...알아주거나 하는지 모르겠다.

모두가 헤어지면 그만이고....열심히 해 주었던....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칭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잊혀질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적당히..굳이 애써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이 불쑥 불쑥 나온다.

자기 자신이 애살이 있고 그 일이 즐거워서 열심을 낸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나의 성격자체가...뭐든 하면..최선을 다하는 성격이라..

내 몸이 고달프다....물론 되돌아오는것은..칭찬이고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지만..

글쎄 내가 그런칭찬이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내 성격이.....그래서..내 몸이 피곤할 뿐이다 그리 안해도 되는것을...

어찌 되었던...

한달동안....단 하루도 쉬어본적이 없이...

열심히 앞을 보고 내가 해야할 일에...열심을 내면서 달려온 것 같다.

그래서 감기도 낫지 않고 피곤에 젖어 있지만서도..

내일이면..

마음한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것 같기도 하다...

아이들 문제..신랑사업문제,..직장..그리고 공부...

벅차다...

나 혼자 뭐든 해결하려고 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려니..

마음도 육체도 힘들다.

모두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휴~



피곤해라~

시골에서 엄마가 김치를 보냈고
시누이가 과일을 보냈고...

아침 일찍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다.
사실 너무 피곤하다.
집에 일처리할 것도 많고 밀린 일도 있고~...

부산하게 움직여서 대충 해 놓고 가긴 했지만.
왠지 찝찝한게..~

도서관에서는 피곤해서 집중이 안되었다.
강의를 들을라치면 어느새...강의 소리는 어디간데 없고
나는 졸고 있는것이다.
예구 안되겠다..이건 시간낭비다 싫어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 한숨 잘려고 했는데..
내가 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시골에서 가져온 김장김치는 김치통에 나눠 담고
과일도....

마늘을 찢어 꿀과 섞어 발효시켜 아침 저녁으로 한술가락씩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나 중학교때 엄마가 그렇게 해서 아빠가 아침저녁으로
단지에서 한술가락씩 드신거 봤다....지금 생각하면 아빠가 건강한 이유도
아마 그것이 한몫했다는 생각도 든다.
요즘 대부분 그렇게 해서...먹는다고 한다....그러고 보면 엄마도 나를 지혜로우셨던 것 같다...아빠는 올해 70인데..눈도 좋고 이도 빠지지도 않
고...흰머리도 별로 없다
나이에 비해 많이 건강하시다..)

그래서...나도 신랑에게 해 먹일려고
마늘을 찢다...(어린이집 원장선생님과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 하면서 건강이야기 하다가 마늘 이야기 나오니...원장샘님이 마늘을 챙겨주셨다)

밀린 빨래도 하고..집안청소..
컴 수리도 하고....

단시간내에 많은 일을 해 치웠다.
그리고 공부를 할려고 책을 펴니.
졸음만~....
2시간정도 자고 다시 일어나니..어두운 밤이라~
아이들은 밥 알아서 챙겨먹고
나는 공부를 했다.

오늘 화딱지 나는 일은
내차를 신랑이 몰고 다니는데..
주정차 위반 딱지 4만원짜리를 끊겨서 고지서가 날라온 것이다.

안그래도 돈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4만원을 낼라 치니...열받는다.
주정차 딱지 밀린것이 아마도 3개정도.

정말 짜증나는 신랑이다.

조그만 신경쓰면 그런거 안 끊길건데
아뭏튼 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네..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정차 위반딱지 끊기지 말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일렸건만.
생각이 없는건지..
내 이름으로 날아오니 더 열받는다.

나는 은행이든 어디든..신용에서 A 등급이다.
그래서 이번에 돈 안들이고 신용으로 차를 샀고...

출 퇴근용으로 사용하고
회사에서는 트럭을 몰고 다닐것이지.
왜 내 차를 몰고 다니냐고~.....

내가 차를 안몰고 다니는 이유
아직 주차에 자신이 없기때문이다.
물론 밤에만..주차해 해 봐서...아직 감각을 잘 모르겠다.

낮에 하면 잘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아뭏튼 주차하는 것만 자신있을때까지만....
조용히 살아야지~

딸 성적이 엉망이라..열받았는데
그 뒷날 아들 기말 시험점수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예구 믿을자식은 아들밖에 없는 듯 하다.

몇일째 신랑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다.

돈 없으면 덜 먹고 살면 되는데...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것은
대화의 공감형성이다.

사람이 말이 안통하면....
이거 정말 할 짓 아니다 싶다.

신랑같은 경우와 나와의 경우이다.
나는.대화를 원한다.
문제가 생기면..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하고 예상에 대한 부정적 예후까지도
파악해서 기대 또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대화..

그래야..
내가 뭔가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신랑은...
기다려라..
잘 된다.
걱정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한다...
이런말뿐이다.

그래서 ...
저사람도 생각이 있겠지...하고 존중해 주고
기다리면..
웬걸~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래서 왜 결과가 이러냐~ 물으면...

그게 맘대로 안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대답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열받는다.

왜냐하면...

나한테 큰소리 칠때는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을 것이고

기대대로 되지않았을때 또다른 대책을 세워놔야 했던 것이다

근대 아무 대책도 없이

믿고 기다려라..해 놓고...

상황만 힘들게 해 놓고

넌들 그러고 싶냐?...뜻대로 안되니까.그렇지...이런 답변을 한다면

정말 무능해 보이고 신경질 난다.

처음부터 그런 예상을 하면

기대대로 안되었을때는 이러한 상황이 올 수 도 있다라고

말을 해야..맞지 않는가?.....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주면

적어도 실망은 주지 말아야지...

사업에 있어 일처리가 너무 맘에 안들어

잔소리를 할치면...나만 나쁜사람처럼 느껴지고....

답답해 미치겠다...

내가 또는 내 가정이 먼저 있고 타인이 있는거 아닌가?

신랑은...

내 가정이 힘들어도..그 힘들어하는 원인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생각과 행동에 있어.

내가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못하면.

사업에 손을 떼던지...

것도 아니구 이것도 아니구

살림 사는 사람만 힘들게 하고...

도대체..뭐냐고??

비전이 없으면 접어야 맞지..

예구..말도 안통하고...

사고에 공감대도 없고.

이런삶이 미치겠다 하는 삶이 아닌가?
화병 나기 딱 좋은...부부의 이해도라~~

퇴근해서 집에 오니.

딸 하는말...

수학시험을 봤는데..

60점 아래로 보충수업받아야 하는데

나는 70점 받았는데 그래도 보충 수업받을려고 확인서 받아왔다 라고 했다.

아니..보충 수업대상도 아닌데 왜 가져와?

선생님께 전화해 본다~...

그랬더니..

딸..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사실..보충수업대상이라서 가져왔다고....

할~....

사인을 받아가야 하기때문에

말을 안할수도 없는....

참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네~....

도대체 소망이 없네...

우째 우리 집안에....이런....공부 못하는...호미...

쇼킹 ~..

참~ 할말을 잃었다...

여지껏 나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

공부 못한다는 소리는 들어보덜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 형제들도 다들 한 공부 한 사람들인데.

도대체 누굴 닮은거야~.....

아무리 못해도 그렇지..

어째 보충 학습대상이 되냐고~~

가문에 영광이 아니라 수치네~...

열심히 공부하는 부모가 있으면...

애들도 따라 간다하던만...

딱 맞는 말도 아닌가보다.

내가 공부한다고..아이들에게 신경을 안쓴 듯가네....

다 돈으로 해결하고....

큰 딸에게는 사실 많은 투자를 해 왔다.

학원비만 해도..물론 예능쪽이지만...

구몬수학도..5세부터 13세까지 해왔고

피아노도 7세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바이올린,,,

플룻

에어로빅..

단소....

컴퓨터...

도대체....

해 달라는 다 해 주고

에구 짜증스러워라~...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까지 추락하는거야~~

우리반에 꼴통 3명 있는데.
두명이 자신의 감정표현을....상대아이의 얼굴을 긁거나 꼬집어서
상처를 내는 일들이 많다.

오늘은 월요일
오자마자 손톱검사를 했다
다행히...꼬집거나 혈권 두 아이의 손톱은 짧았다.

오후에 재롱잔치 울동시간이었다.
꼭두각시 춤을 추고 있는데.(나는 앞에서 아이들은 뒤에서 나를 보고)
두 아이가 싸웠는지.
우는 소리가 났다.
음악을 끄고 가보니.

한 아이가 손톱으로 상대 아이의 얼굴을 긁어놓았다.

민호라는 아이는 이번째 얼굴 긁히는것이 5번째 정도 될거다.

심하게 긁어놔서...
순간 열이 팍 올랐다.
왜냐하면민호 아버지께서 데리로 올때마다 얼굴 긁혀 가니까.
별로 안좋은 표정으로 가신적이 한두번이 아니구..
미안하다고 하는 말도 하루 이틀이지..

내내 나는 미안해야하고..(죄인처럼)

그래서 그런일 없도록 주의를 살피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또 얼굴을 긁어놔으니...
민호 부모님께 이제 무슨 변명을 해야하겠는가?....
그런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잠시 잠깐 다른데 집중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아이들이 크다 보면 또래와 싸우면서 크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당연히 문제가 발생된다.
근대 감정표현방법에서 문제를 유발시킨다.
차리리 주먹으로 한대 때리면....더 나을것을

얼굴을 왜 붉냐고??

내가 부모라도 해도....

어느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하루한날 붉어오면.....이해 범위를 넘어서 열 안받겠냐고??..

하도 화가 나서..

내가 사실 감당이 안되었다.

두 녀름 ..울동도 안하고 뺨질거리더니..결국 일을 낸네...

두 녀름 끌고 원장샘께 갔다.

도저히 ..저는 감당이 안됩니다. 라고...

이렇게 얼굴 또 붉어 났습니다.

답이 안나옵니다 진짜..~ (사실 나도 엄청 열받았다..왜냐하면...몇일전부터 계속 민호 얼굴이 붉히니까...원장샘님도 부모에게 맨날 미안하다고 해야하고 이런저런 변명 늘어 놓는일도 한두번이고...그 아이의 담임을 내가 맡고 있으니...

말은안했지만..담임 부주의라고 하지 않겠는가?)

내가 따라 다니면서 지켜볼 수 도 없고.....책임은 다 나에게 돌아오고...

아주 민감해 있는 상황이었었다.

근대 오늘 또 터지니..

생각없이 붉어버린 녀름이 어찌나 알뜰던지..

두 손을 모아서..손바닥을 몇대 때려놓았다.

원장샘님께 데려갔더니.

원장샘님도 할말을 잃었다.

붉은 아이에게

하신 말씀이... 너 왜 민호 얼굴 손톱으로 이렇게 붉었어?....너 정말 병원가서 손톱 뽑아야겠네.....(헐~~)

아뿔튼...

나는 두 아이 엄마에게..전화를 하였다.

두 아이다 우리반 3명 꼴통중 2명이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래저래...아이에 대해서 말을 했고....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도.....집에서도..함께 시정해 가자고 말씀드렸다.

앞에 선생님님...

늘상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 놔서.

엄마들은 정말 자기 아이가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계셨다.

내 생각에는

아이에 대해서....부모에게 거짓없이 이야기를 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선생님도 아이를 진정으로 걱정함에 있어 부모님께 사실적으로 말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선생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 놓은것 같다.

아뿔튼 스트레스

원장선생님께도 미안하고.

아이들 부모님께도 미안하고...

내가 죄인된 기분이다...

안그래도 힘든 나를...

여러문제가 힘들게 하네~~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었다.
옷도 하나씩 사 입고 찬양도 화음을 넣어서...
열심히 연습한 댓가로 1등을 먹었다.
사실 난 딱 2번 연습했다....시간이 없어 모이기가 힘들어서..

곡도 청년들이 부르는 곡인데 어렵다.
무려 파까지 올라가야하는..고난도.의 곡..
곡을 선택하는 집사님이 이제 30대이고 교회 반주자라..
항상 젊고 앞서가는 곡들만 선택해서
40대 가까운 집사님들에게는 약간의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잘 해 낸다.

나는 성가대를 하고 있어서.
악보도 볼줄 알고...
한두번 들으면 금방 그 곡에 대한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고로...
연습 많이 안해도....잘 따라간다..

아뭇튼 1등 먹어서 좋다..상금3만원 ㅎㅎ

대예배 설교시간에도.. 오후 예배시간에도...
봉사에 대해서 어찌나 강조를 하든지...
강조를 하되....
꼭 이런 전제가 붙는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것이라고...
자기 형편보다...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는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흠.....
참 할말 없네.....
아뭇튼 봉사는 충만함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둘러둘려..은근히 믿음과 관련하여 강요를 하는...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을 한다.

물론 성도들은...

다 생각을 한다..

자신의 상황에서...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물론 그 안에는.편한것이 좋아서...안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싫어...또는 자신의 봉사를 알아주지 않아서...등등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성도들도 많다.

그런사람들은 반성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사실 봉사는..자신의 삶...타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제 가정도 못 다스리면서 제 할일도 하지 못하면서..

봉사라는 것은...어패가 있어 보인다...

 저녁에 베드민턴 회원 6명(마음이 통하는?)이 모여 망년회를 했다.
훗집가서 회를 먹고 이런저런 게임이야기...2차로 노래방을 갔다.
신랑이 늦게 합류하였고...
나중 운전해서 갈려고 맥주 한잔 소주 한잔...외는 마시지 않았다.

아뭇튼 새벽2시까지 놀았고 각자 집으로 헤어졌다.

내 주위에는 남자 동생들이 참 많다.
대부분 30대총각이고 누나 누나 하고 아주 좋아하고 잘 따른다.
그래서 ..행복할때가 많다.

좋아해주는 남동생들이 많아서..ㅎ

몇일째 계속 잠을 푹 못 자고 있다.
내일 출근하면 몇일 쉴 것 같다.

아이들 방학이니 시골에 가고 싶지만..
시골 가기에는 너무 이른가?...

하기사...시골 한번 갔다 올치라도 경비가 장난이 아닐 듯 싶다.

경기가 어려워...소비가 줄어들고 있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듯 싶다.

신랑 사업이 빨리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일은 매일 같은 많이 하면서..
왜 수금을 못하는지.....
수금 잘하는 것도 경영자의 능력중에 정말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랑은 다른 건 다 좋은데...그 중요한 걸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다.

에구...
돈이 많이 깔려 있으면 뭐하나?
수금 못하면 어디 자기 돈인가?...

운동을 많이 해서인지..피곤하다.
뭐든 적절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오늘 베드민턴 총회 겸 월례회가 있었다.
집에 오니 신량이 차를 가지고 가버려서 차가 없었다.

신량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총회 참석하자고 했더니 안간다는 것이었다.
당신이라도 갔다 오라고
그래서 아는 동생에게 문자를 날렸다..
전화가 왔다 같이 가자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라켓과 가방이 차에 있어서
데리로 온다고 해도 못갈 형편이 된 것이다.

신량에게 전화가 왔다.
차를 갖다 준다는 것이었다.

얼마후 신량이 회사 일 하다가 차를 갖다주고
다시 회사로 갔다.

차를 가지고 체육관으로 향했다.
50명쯤 모여있었다..회원이 90명 쯤 되니까..많이 모인것도 아니다.
모르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먹을 것을 먹으면서 총회를 하는데...
난 관심없다.
안그래도 머리아픈 일 많은데....어련히 잘 하겠지...
근대 하나같이....좀 생긴 사람이 없어....초암네...

그래도 멋진 사람들이 많아야 보는 낙이라도 있지. 후후후...
다들 생기다 말았나...

내가 우리 클럽여자중에서 탑을 유지하고 있다.
가히 나의 실력에 도전해 올 여자가 없다는 것이고...
모든 남자들이 인정하는 바이고..
좀 치는 남자의 한몫을 한다.

내 스스로도 본능적인 순발력과 발빠름 를 인정하고

좀 치는 남자 못지않는 기술과 기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모든 남자들이...여자중에서는 최고 라고 다들 인정하고
혼복 그리고 남복에서도 균형을 잘 맞춰 여자인 내가 남자 파트너로
들어가서 한몫을 한다.

여복은 잘 치지 않는다.

혹 치더라도 가장 기량이 낮은 파트너를 옆에 붙여준다...잘한다는 이유로...

아뭏튼 시원시원 적절한 때에 따라 게임을 잘 이끌어 가고
또 운전으로 따지면 안전운전과 같은..
수비할 수 있도록 예상해서 공격을 하고 또...강한 파트너에게 공격기회를
잘 만들어주어 득점으로 연결하게 역할을 잘 해 주니..
인기..짱~~ ㅎㅎ

인기가 무슨 소용이겠냐만서도...

객관적으로 그냥 나의 존재를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인기가 많아서 피곤하다.

게임 마치면 쉬어야 하는데..계속 한게임잡아달라고 부탁을 해 오니.
그거 다 잡아주고 나면..내 체력이 바닥...

오늘도 너무 힘들어 제발 좀 쉽시다..하고 앉아 있는데
안된다면서 셔틀 들고 오라는 것이었다.
예구.... 저는 앞에만 볼께요
그리라도 해 달란다 호호호

집으로 올때는 아는 동생(남)을 태우고 왔다.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내려달라고 해서...내려주었다.
운전을 하는 이래.....다른사람 태워본건 처음이네...

🌻 토요일이닷

어제 총학생회 번개팅을 해서 새벽 3시에 귀가를 했다.
그래서 오늘은 맘껏 편하게 잠을 잤고..
일어나니..12시가 다 되어 갔다.~ 행복해라~

그동안..맨날 시간에 쫓겨 스케줄에 쫓겨..
더 자고 싶어도...정신력으로 이겨내며 살아왔는데...
정말 행복하다.

어린이집 재롱잔치 시디 편집을 1시간 정도 해 놓고..
차를 가지고 체육관으로 가서 회원들을 만나 운동을 하였고,
다시 4시쯤 대저 체육관으로 장소를 이동했다.

요즘은 차를 혼자 운전해서 다니는 일이 많아졌다.
길을 잊어버려 여기저기 물어보면서..헤맨적도 있다...
덕분에...운전실력도 짹짹 늘고 있다.

7시쯤 집에 와서 집안 대청소를 하고
차를 가지고 가까운 할인점에 쇼핑을 가서
부식을 사와서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먹었다.
돈은 없어도 마음은 편하다...

내년에...성가대만 할려고 했는데..
내가 아동부를 빠지고 나니 사실...이끌어가는 멤버가 빠지는 것과 같아서..
내 맘이 편칠 않았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거 하기 싫어서...아동부 교사 안한다고 했는지도 모를..
차량봉사만...
결국 내가 맡아 해 주기로 했다.

그것참!
아침 일찍 차량봉사 이것만은 안하고 싶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고 아이들에게 전화 해야하고...

결국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을 내 스스로 자청해서 또 하게 되었으니...
내 마음을 도대체..누가 이렇게 바꾼거야~...

대신...교사는 하지 않기도 했다.
사실 교사는 힘들지 않다.
아이들 관리하는 것이 힘든것!

에구 나도 몰라 몰라 몰라~...

내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여 이렇게 다시 젖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지겠지.

내가...가장 싫어하는 것을 할려고 하겠어?....정말 안하고 싶은 일인데...

아물튼....하나님..나 가장 하기 싫은 일..또 해요
세상에도 하늘에도 공짜는 없다고 하던만요~

헌신하는 댓가를 하나님께서 꼭 지불해 주세요..

우리가 현재 처해있는 어려움 하나님은 아시지요?
설마 밑바닥 까지...끌어 내리시지는 않겠죠?

언제부턴가..내일일은 남몰라요...라고 ..
내 마음을 내려놓았다.
더이상..잃을것도 없고..얻을것도 없고..
그저 빈마음이 되어가는 중이다.

항상 계획된 삶을 꿈꾸며 내일을 위해 준비해 온 내 자신이지만...
사업을 하면서부터 이미 상황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나버려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그래서 자존심 강한 나도..마음을 비웠고.
없는삶에 적응해 가면서.....
나도 결국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하기사...하나님보시기에
뭔가 더 낮아져봐야 깨달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보다...

더 낮아지면....
글쎄.....모든것을 맡길 믿음이 커지는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질런지..내 자신도 모르는 일이다.

상황이 어찌 되었던

글을 쓰는 이시간은 행복하고 평안하다...

 흥가분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났다...

내 마음이 자유하니...더욱 아이들이 사랑스럽다

원장선생님 메모가 눈에 띄었다.

시험때문에 힘들건데...열심히 해주고 아이들이 점점 안정되어 가는 모습에
정말 고맙다 라는 메세지다...

사실 내가 맡은 반..이제 군기를 잡아가고 있다.

아이들이 흐트러져 있을때 숫자 5까지 셀동안...자기자리에 앉지않으면
안되는것이 훈련이 되어서.

카운트 들어가면 아이들은 갑자기 동작이 빨라진다.

그리고 자유선택활동을 하다가..정리정돈 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서
카운트 10이 들어간다.

그안에...정리정돈이 안돼 있으면 정리안한사람만이 아닌
잘하는 사람 모두가...문밖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칙을 정해놔서.
일사천리..움직이기 시작한다.

아뿔튼 이렇게 군기를 잡아가고 있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서 탈...

나도 아이들이 너무 좋은데~

엄마처럼 생각을 하는지..

항상 안기고 뽀뽀하고...

사랑을 누가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훈내도..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니....

체벌에도 그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껴서 아마 그럴것이다.

훈내놓고도 나는 나중 가슴에 꼭 안아준다..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돼요 라고
다짐을 받는다..

아이들은..선생님의 본 마음을 느껴서 좋아하는 것 같다.

돈은 없지만.

성탄절 선물로

아이들이 주물럭 가지고 놀수 있는 놀잇감을 샀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10개를 주문해서 내일 가져갈려고 한다.
쥐꼬리만 한 월급에
아이들 선물할 돈이 어디 있겠냐만서도..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니.
돈이 문제가 아니게 되네.....

아이들은 벌써 기대를 하고 있다.
내일 자신들이 맘껏 주물럭 거리며 뭐든 만들수 있는 재료를 선물로
준다고 해서.....나도 기쁘다.

이번 6과목중에서 4과목이 90점대를 넘어갔다.
2과목이 약간 기대치보다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엄청 좋은 평점이 나올 듯 하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다.
내 마음깊은곳에서 미소가 지어진다.

저녁에 베드민턴을 치러 갔다.
오랜만에 갔더니 다들 반가워하고..
시험은 다 잘봤냐고 물었다.
내가 학생이며 선생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참 대단하다고 칭찬들 하신다.
그것도 부족해서..베드민턴도 잘친다고...ㅎ

조만간에...망년회를 하자고 했다.
총학생회 임원들과 망년회 계획이 있고.
베드민턴 회원과 망년회 계획이 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저녁 한끼 해야할 사람들도 몇 되고...

일요일날은..시험끝나고..
1차로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고..
2차로 3명이서...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2차로 노래방에 가서 놀았다.
내 정서에는 딱 맞다고 할 순 없지만.
난 사람들이 좋다...그냥 술이 좋은것이 아니라 술분위기가 좋고
노래방에 가서 함께 기분맞추어주는것도 좋아한다...
사실 사람이 좋아서....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집에 오니 새벽2시였다.

다행히 신랑에게 쫓겨나지는 않았다 ㅎㅎ

앞으로 새벽에 들어올 일이 몇일 될 건데..

그건 이해해야지 뭐...

신랑도 그런 건수가 몇 될것이니까...

운동을 해서 기분이 참 좋다.

운동할때만큼은 정말 순수한 웃음이 나오는 것 같다.

웃는 것이 좋다...

☕ 나를 힘들게 했던 시험이 끝이 났다.
시험이 끝나면 마음이 날아갈 듯 해야하는데..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다.

오늘까지 2과목 시험은 잘봤다.
정답도 맞추어봤고 지금까지 가장 좋은 점수이다.
90점대 이상이 3과목이나 나왔다.
그래서 약간 부족한 과목의 점수를 채우고 이리저리 맞추어보니...
참....잘했다...스스로 칭찬하고 싶다.

직장다니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고 마음이 무거웠던가?
그래..이번에는 그냥 패스만 하는 정도로 가자..
시간도 부족하고 할일이 너무 많아서..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했었다.

그래도
애살많은 기질때문에..누군가에게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때문에.
그리고 내 스스로 별볼일없는 시험점수와 결과를 원하지 않기에
이를 악물고....감기는 눈 억지로 떼가면서 공부를 했었다..

입에는 피곤해...라는 말이 떠나지않았고...
1달반동안..한번도 편히 쉬는 날 없었다.
감기가 안떨어져 3주 이상을 앓고..
어떨때 코를 풀면 코피가 났다...
지금도 감기는 낫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어려움 속에서 좋은 결과를 낸 나의 노력과 의지에 내 스스로
박수를 치고 싶다...

너무 열심히 해서...공부가 질린다.
또 내년에 이렇게 해야 이만한 성적을 얻게 된다는 생각때문에
몸서리 쳐질려고도 한다...

뭐든 하면 내 스스로 질리도록 내 한계를 넘는 노력을 하기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에 미련은 없다.

이제..시험은 끝났고

1월에 있을 재롱발표연습에 박차를 가해야하고 하나하나 필요한 물건들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베드민턴도 치러다닐것이고

차 연수도 매일 같이 해서..

아이들 태우고 놀러도 다녀야겠다..

그리고.

내가 꼭 읽고 싶었던 책도 읽을 계획이다.

몇달동안 못봤던 티브도 보고 싶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싶다.

아이들과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먹으면서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고 싶다.

너무나 바쁜삶속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눈도 못마주쳐보고

살아온 시간들이었다.

내년에는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아이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는데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내 삶을 즐기고 싶다.

뭔가 쫓기는 듯 한 삶은 이제..잠시 휴전을 하고 싶다.

신랑 회사에도 맛있는 거 사서 얼굴을 자주 내밀고 싶다.

내 삶도 바쁘고 경기도 어려워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어

더욱 힘든 2008년...

이제는 가계부를 꺼내..

하나하나 기입하여

도대체 우리집에서 수입이 얼마며 지출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고

앞으로 계획도 세워보고 싶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말씀속에 꿀처럼 단 꿀단지

찾는 시간을 보내려다..

말씀속에서 찾았던 보화때문에
가슴벅찼던 그 감동을 다시금 맛보고싶고
그러한 체험과 경험이 내 마음에 성숙을 가져오고
어려운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천금보다 더 귀한...그 말씀을 읽으리라..

내가 바쁘다 보니...

어린이집 다른 선생님들이..내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마음한켠에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든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때...함께 해주고 도와주는것이...

적기에 제대로 필요한 도움이여서 엄청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나중 감사의 표현을 뭘로 할까?...생각을 해봤는데

도서상품권도 좋을 것 같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아들이 마땅하게 따뜻한 잠바가 없어서..

아침이면 이것 저것 입어보고...왠지 내가 보기에 추리해 보여서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면서 신량이 원망스러워진다.

어려울때 내가 이해해야 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이 어려움이....2년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경영학도로써 진단을 해보면.

방만경영의 결과이다.

일을 하더라도....세부적인 계획과..또 어떤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겨낼수 있을텐데..

나름 생각을 했겠지만..내가 보기에는 너무 허술한 점이 많아서.

목이 아프도록 잔소리를 하고 조언을 해도.

별만 나아지는 것이 없고 변화된 태도가 안보였다.

결국 요즘 얼마나 어려운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 하는데...

아물튼.

가정을 이끌어 가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신량이 원망스럽기 그지 없다.

오늘은 퇴근하고 오면서.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 아이가 추리하게 다니는 것은 용서할 수 가 없다 라고 판단.

비상금을 꺼내...

비싸고 아주 따뜻한 잠바를 하나 샀다.

나는 정작 입을 옷이 없어서..

떨고 다니긴 하지만.

내 아이한테는 그럴수 없다....라는 것이..

부모 심정인가보다....

시험결과를 봤다..

사실 내가 처한 환경을 가만한다면 좋은 점수이다.

시험은 생각보다 쉬웠다.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인지...아뭉튼 엄청 쉬었는데

점수를 매겨보니....엄청 쉬웠다는 생각에 약간 빗나가는 점수였지만.

만족한다...

아직 2과목이 남아있다.

중간점수는 만점을 받아놓은 과목들이다.

잘해서 좋은 성적 가두면

어쩌면 지금까지 가장 높은 평점이 나올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평균 85점대만 넘어가준다면...말이다..

아뭉튼 열심히 할려고 하는 중인데..

어린이집에서 일이 너무 많다.

성탄절 카드도 만들어야 하고...

선물 포장도 해야하고...

뭐가 할일이 이렇게 많어..

제발 시험끝날때까지만.....아무일도 없해주길..바랄뿐이다...



마음이 즐겁네요~~

👤 세상에 이런일이.....

우리집에도 일어났다.

스토리인 즉...

우리집에는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다.
그중 한마리는 치와와와 일반개가 섞인듯한 잡종개이고
사람으로 치면 발작증세가 있다.(간질)
스트레스 받거나...또는 피곤하면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30분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는듯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처음 데려왔을때 모르고 데려왔고 주인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전 주인은 강아지(이름은 사키)를 등산갈때 함께 데리고 다니는
습관을 들였고 일반 주택에서 키웠다고 했다.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우리에게 주고 갔다.

사키 나이는 현재 6살 이고..용변을 아직 가리지 못하고 있다.
주택에 살때...밖에 나가서 용변 보는 습관이 들여져 있어서
아파트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지 못하고 여기 저기...내키는대로
싸고 돌아다닌다.

맨날 걸레들고 치운다고 바쁘고 냄새 없이 닦는다고 수고를 하지만.
그런다고 그게 밍다고 아픈 강아지를 어디다 버릴수도 없는거 아닌가?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것 외에는 성격도 조용하고 순종적이어서
맘에 든다.

그런데 애들 아빠는 지독스럽게 강아지를 싫어한다.
그래서 난 항상 당신 마음이 아릅답지 않기 때문에.
동물을 싫어한다고 핀잔을 주곤 한다.

더우기 용변을 가리지 못해서 집안에 들어오면
개 냄새 난다고 짜증내고 사키를 볼치라면...
위협을 준다.

그래서 아빠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사키는 냅다..구석으로 숨어버린다.

2마리중 한마리는 푸들 인데..이름은 두리 이다.

두리는 용변도 꼭 화장실에 가서 본다..그래서 참 좋은데

두리 단점은 점프력이 좋아서..집에 사람이 없으면 식탁 위에 올라가

모든 음식을 먹어치우는. 나쁜 습관이 있다. 그래서 외출시 항상 묶어 놓고 다닌다.

어쨌든 두 강아지가 이렇게 틀리다.

몇일전에 애들 아빠가...

사키를 트럭에 싣고 출근했고 거래처 몇군데를 들려서

공장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묶어 놔다고 했다.

우리집하고 애들 아빠 공장하고는 썩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

낮에 근무중에 딸에게 문자가 왔는데

사키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아빠가 공장으로 데리고 갔다고 ..

그래서 엄마가 당장 전화해서 사키 데려오라고 말하라고 했다.

우리집은 ...(애들이며 나도 포함)

강아지 데리고 가면 난리가 난다.

나도 당장 문자를 날렸다.

아픈강아지 그렇게 대우하면 벌 받는다고...엄포를 냈고

당장 강아지 집으로 갔다 놓으라고 문자를 넣었다.

답장은 없었지만...

몇시간 후에.

딸이 전화와서 사키가...문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다.

아빠가 엄마 문자 보고 얼른 데려다 댔나보다....라고 결말을 지었다.

그날 저녁 신랑과 운동을 갔었고 회원들과 저녁을 먹을 일이 있었다.

저녁 먹으면서 신랑알...

사키... ..세상에 이런일이..내 보내야겠다.라는 것이다.

왜??

아 글썄 내가 아침에 아무데나 똥싸고 해서 얄미워 트럭에 싣고

거래처 몇군데 돌고 공장으로 가서 묶어 댔는데..

강아지 스스로 목줄을 풀고 도망가고 없더라는 것이다.

그래서..부라부라 사키 찾으러 다닌다고 근처를 몇바퀴 돌았나보다.

(만약 잊어버렸다고 하면..그날 애들 아빠는 두고 두고 아이들이나 나가 원망하고 볍일것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안돼서 집에 전화를 했단다.

애들이..

사키 집에 와 있다고 했다고 했다.

아빠가 데려다 놓지 않았어 라고 아이들이 물었고.

아빠는 이왕 이렇게 된거..그렇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애들아빠는 어찌 그놈이 집을 찾아갔다니...

... 강아지들은 자신이 오는 길에 오줌으로

표시를 하고 냄새를 맡고 찾아가는데 그런일도 없이 집까지 찾아간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다.

나도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할 일이다.

강아지가 한번도 가본적도 없는 그곳이고

거리가 가깝지도 않고 ...

큰 도로를 몇번 건너야 찾아올 수 있는 곳인데....

곰곰히 생각을 했다.

애들 아빠가 사키를 데리고 갈때 사키도 이미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함을 알았고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집까지 찾아오는 길을 기억했는지는 모르지만

강아지에게도 분명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생명과 환경의 교과목에서도...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돼지가 몇일 있으면 사람들의 육고기가 될지라도

살아 있는 동안만큼은 돼지가 누려야 할..편안한 공간...풍부한 음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듯....

분명 동물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강아지를 봐도 알수 있다.

주인을 보면 한없이 꼬리를 흔들고 ...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강아지 또한 싫어하고 경계한다는 것을.....

난 강아지가 좋은 이유

물론 어렸을때부터 강아지와 친숙하게 커서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강아지는 주인에 대한 배신은 없다.
밥을 준 주인에게 오로지 충성을 하는 강아지...
사람보다 낫지 않는가?

때리면 그때만 갹~~ 하고
다시 돌아서면..꼬리 흔들고 오는.동물이 강아지이다..

강아지가 좋은 이유는.....
늘 한결같은..마음....주인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강아지에게 잘해주면 강아지는 주인을 위해
갖은 애교를 떨면서 즐겁게 해준다.

어떤 때 내가 늦잠을 자면
일어날 시간에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강아지가 깨운다..
발로 자꾸 몸을 핏킨다.
그래서 이놈 참 용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아물튼...동물, 식물을 사랑할줄 아는 사람은
마음도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일 것이다...

동물 싫어하는 사람은
마음도 특별히 선하거나.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겨울이 정말 싫다.

감기가 심해서 종일 눕고만 싶다.

어제는 거의 허리가 아플정도로 하루중 절반을 누워 있었지만
아침에 출근하려니...몸이 무기력해진다.

그래도 어쩌랴~ 나대신 우리반 책임져 줄 사람도 없고.
행사를 앞두고..
아프는것도 제대로 못하겠다.

특히...어린이집 교사들은 건강해야 한다고 배웠다.
정말 그러한 것 같다.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아이들에게 소홀해 지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그나마
재롱잔치 연습때문에 다른 수업준비를 안해서 망정이지..

올해는 유난히 더..추운것 같다..
직장을 다녀서 그런지..변변치 않는 옷 한벌 없어서 그런지
맨날 떨고 다닌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싫기도 하지만..
돈도 넉넉치 않고...형편에 맞게 살아야 하지 않는가?

토요일날
금정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갔었다.
꽤 먼 그곳까지....베드민턴 회원들과 같이 갔는데
베드민턴 관련 기능성 옷을 세일하고 있었다.

아주 괜찮은 잠바 3만원 .텍에 적힌 옷값은 15만원을 넘어가는 옷인데
매장이전하면서 미끼 상품으로 내 놓은 옷 같았다.

거저 라는 생각이 들어 신랑에게 줄려고 잠바 를 샀다.
내가 사니 함께 갔던 사람들도..여러명 샀다.

황재한 거나 마찬가지로..

3만원이면 원단값도 안나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괜찮은 옷이었기 때문이다.

신랑은 사 줄 수 있어도 내 옷은 못 사는...

나는 바보다.

그래서 나는 맨날 떨고 다니나보다.

재롱발표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것저것 점검을 하고 있다...그전까지는 전혀 실감이 안나더니

이제는 실수라도 하면 어떻하나?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때...재롱잔치에 늘 구경꾼으로 갔었고

또 실습할때는 도우미로 도와주었던 경험 외에는

없는데...

이제 내가 아이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약간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따라 할건데.....

혹 내가 울동을 하다가 틀리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약간 든다.

가끔씩 내가 틀릴때가 있기때문이다.

그때마다 아이들..선생님이 틀렸잖아요~ ㅎ

알았다 ..미안....할때가 몇번 된다.

그날 엄청 분주하고 아이들 옷 갈아입혀 준비한다고 바쁠텐데

정장차림으로 오라고 한다.

많이 불편하겠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정장을 입고 와야 한단나..

아무래도 보기에는 좋아보이겠네~

나에게 있어 첫 무대인만큼 좋은 평이 나온 재롱잔치가 되길 바라본다.

오늘 근무중에 머리가 아파 ..두통약을 먹었다.
머리 아픈 이유는....

재롱발표회 초대장을 옆반 쌤님이 만들었다.
나는 usb에 저장해 집에 와서 내가 맡은 이름 하나 하나 쳐서 작업을 했고..
치다보니...내가 다니는 또래또 어린이집 문구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왕이면..이쁘고 덧보이게 하기 위해...또(녹색)래(빨강)또(파랑) 색으로
옷을 입혔다.

그래서 오늘 인쇄를 했는데.
옆반쌤님이 보고...노발대발
자신이 해놓은 문구대로 안하고...수정했다는 것이다.

내가 젤 처음 또래또 와서....또래또에 색을 입혀...다른쌤님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고 검정색보다는 색깔을 입히니 훨 덧보였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컴퓨터를 하려고 내려왔었는데..
바로 옆반에 와서...나에 대해서..나쁘게 말을 하는 것이였다.
자기 맘대로 한다면...다같이 똑같이 나가야 하는데..왜 자기 혼자 그렇게 수정했냐는등...

컴터를 하면서 그 소리가 다 들리고...
참 기분이.참담했다.
직접 나에게 와서 말을 할 것이지.....
왜 바로 옆에 선생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냐공~~

선생님들이....눈치를 주었는지...
나에게 왔다.
나도 한마디 했다.
선생님....집에 가서...문서를 작성하다보니.
그냥 까만글씨보다 색깔을 입으니 더 이쁘더라..그래서..
또래또 그거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화를 내시는거예요?
그리고....그런 문제가 있으면 직접 나에게 와서
말을 하실것이지 ..왜 다른 선생님들에게...이말저말 하고 있냐고..
.....
옆반쌤님...뭐라 뭐라 하시긴 한데..
나에게 쌓이는게 많다나....

그래서 더욱 화가 났다.

나는 그 쌤님이 참 고맙고...잘하셔서....그 선생님에게 아무 감정도 없고 고맙기만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게
그 쌤님..지금까지 나에게 불만이 있었던거..씩 숨기고..
나에게 쌓인게 많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쌓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내가,,뭐...그 선생님한테 어쨌다고....

사람이 얼굴이 다 틀리듯...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각이해 능력의 한계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모든 상황을 긍정적이고 이해로 넘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좋은 것도 사실 자신의 제한적인 이해능력부족으로 인해.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비판하는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선생님은 경력이 5년차라 했다.

근대 컴터도 못하고...그래도 못하는거 표 안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가 객관적 판단에 판단을 하자면....
자기는 경력이 가장 오랜 된 연장자인까 뭐든 자신이 옳다는 식이다.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아이들 가르치는것에는..능숙한데..
문서처리나 이런부분에서는 미숙함이 보이는데
스스로 그런 부분 노출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잘 못 다스렸다.
나이가 28세이면....자신의 인격성숙을 위해 노력을 해야할 나이같은데.
이 쌤님은 너무 자신의 감정대로 말을 하는 성격인 것 같아서.

베드민턴...잘생기고 순진한 총각 소개 해 줄려다..
포기했다.
옆반 쌤님을 알고 보니....성격이 너무 별로여서 .괜히 소개해 줬다가
좋은소리 못 들을 것 같다는 생각과 여자든 남자든.
자기감정대로 다 표현해 버리는 성격 ...너무 살벌하지 않는가?

나에 대해 은근히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너무 좁은 사고에서 현상을 해석하여
스스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성격이다 즉 소심형이라는 뜻이다.

괜히 나는 뒷통수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 글자 색 입혔든 안입혔든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
내용이 바끼는 것도 아니구.
문서를 작성하다 보니...이렇게 하면 더욱 초대장이 이쁠것 같아서
한 건데...

혹 ..그 쌤님이 작성한 문서를 내가 수정을 해서 더 나은 초대장이 된다면
그건 우리 원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이쁘고 멋지면.
이게 더 멋지네요 라고 칭찬도 할줄 알고
자신의 문서작성의 부족함도 인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오로지 자신이 경력자라는 이유로...
뭐든 자신이 옳은줄만 알고 있으니.....츠암네..

어쨌든 그 선생님도....나에게 사과를 했다.
나도....혹 그 일로 선생님 마음이 불편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이게 사과할 일까지는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그 선생님은 나하고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는 그냥..바라보고 그것참 기가 차네..라고 할 뿐이다.

그전에는 항상 웃고...
아무 일도 없었듯 지냈는데..
오늘 나에게 쌓인게 많았다니....
그말에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물었다.
도대체 내가 뭘 선생님에게 잘못하고 했길래..
쌓인게 많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그 쌤...사실은 그건 아니구요..
저번에 어떤 일때문에 화가 난것이라고..변명했다.

아몰튼 그 쌤...스스로 울면서
자신이 사회생활경력이 5년밖에 안되서...
부족한 게 많다고 말했다.

쌤님.~~
그렇게 마음속에 불평을 쌓아놓고
지금까지 아무일 없듯이 저에게 친절하고 웃고 그러셨어요?
단독직접적으로 따져 물었다.

왜 말씀 안했어요?
문제가 있고...자신의 생각과 틀려 감정이 좀 상할치면
대화를 요청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풀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 소극적이고 주관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해석일수도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어찌 완벽할 수 있어요?
서로 부족하니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내가 뭘 선생님에게 잘못했다고 뭘 쌓인게 많아요?
침착하게 말을 하면서
분명하게 따져 물었다.

그 샘....나름대로 말을 하긴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열등감 같았다.
다 자기가 부족하니까.
이제 온 신참이..못하는게 없고...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숙하니까.
질투도 나고....뭔가 자신이 위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선생님 생각이 많이 소극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일도..
못 넘기고 씩씩 거리는 일들이 한두번이 아니다...

얼마전에..놀란 사실이 있다.
점심시간에 옆반을 지나가다가..
한 아이가...한쪽 구석에서 밥을 먹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쳐다보니..
토한것을 다시 먹고 있었다.

헐~~

선생님 저애 왜 그래요?
밥 먹을때마다 토해서...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줘서 따로 떼어 놔는데
오늘도 토했네요

그러면서. 그아이에게 소리쳤다.
빨리 안먹나??
손에도 토하고 밥에도 토해 놔었다.

손에 토한것은 입으로 다시 먹다가...휴지로 닦고 있는 중이었다.

식판에 밥 위에도 토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왈...
네 선생님....알았습니다... 고분고분...말을 했다.

참 놀라운 광경이었고
저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었다.

사람이 토한걸..어찌 또 먹으라 한단 말인가?
비 인간적이었다.

그래도...
그 반 선생님 학생이니..뭐라 할말은 없다.
자기반에 대해서 터치 하는것은 금기상황이라~...

물론 선생님도 속이 터져서 그러지 않았을까.이해 할려고 해도
저건 아니다 싶었다.

아이가 어디 아픈거 아닌가요? 집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지요?
라고만 할 수 밖에 없었다.

2틀 후....
저 아이 집에 전화를 해 보셨어요? 물었다.
집에서는 안그런다고 했단다...
글면 왜 원에서..밥을 먹다가 자주 토하는 것일까?

혹시 선생님이 너무 무섭게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 보았다.

왜냐하면..
옆반 쌤하고 나하고 돌아가면서 아이들 낮잠을 재우는데.
내가 맡은 아이들은 매일 나에게 묻는다
선생님이 오늘 누가 재워줘요?
옆반 쌤이....라고 대답하면..
에이....싫어...라고 다들 말한다.

그래서..애들아 옆반 쌤 무섭니? 물어보았다.
그렇다고 했다.

옆반 쌤 그 아이가 토한걸 다시 먹이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말했다.

푸하하하...교육적인 차원이라...
혹시 쌤님...바보 아냐?(속으로 생각에)
먹기 싫은 밥을 억지로 먹고...
갖은 억압을 줘 가면서 자신이 원하는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 교육인가?
혹시 권위적인 선생님의 자세를.
참된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거 아닌가?..

속으로 기가 찼다.
웃기고 있네...교육적인 차원?.....
갈수록 형편없는 실망투성인 옆반쌤님 인격....

그러면서....자신과 너무 틀린 교육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가 좀 다르단다...ㅎ

난 아이들이 서로 선생님 좋다면서 안기고 같이 밥 먹는 날에는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을 가지는 아이들로 만들어 놔는데.....

이렇게 교육한 내가 문제인가?

아뿔튼....
옹졸한 생각..제한된사고...로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서..
자신이 최고인줄 알고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고
지내온 듯 싶다...

신경을 썼더니 나도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었다.

밑에반 쌤님들이..4시에 라면 끓여먹자고 했다.
난 싫다고 했다..그럴 마음이 아니라고...했더니
자기들도 안끓어먹었다...

제발..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은...
무슨 상황이든...부정적인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잖는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잘못한 사람처럼..몰아가는 사람들
정말 싫다...

피곤하다.

잠 좀 푹 잤으면 소원이 없겠다.

어제 학교 특강이 있어 마치고 2시 다 되어서 집에 귀가.

특강 끝나고 교수님과 학우들과 술자리...

한잔 안할 수도 없고...차는 가지고 왔고...

이리저리 피하는 것도 민망스러웠다.

원래 내가 빠는 사람 아닌데...

차를 가져와서...제한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소주 몇잔에 대리를 부를려니 돈이 아까워서 못 부르겠고...

소주 2잔을 콜라를 섞어 마셨다.

그 이후로..교수님이 주는 술잔도 거부했다.

혹 몰라서...노래방까지 따라가서 노래를 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음주운전으로 걸릴일은 없겠지 싶어..노래방까지 따라가서..

분위기를 띄어 주고..살짝 빠져 나왔다.

1시 반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고...

올해...

경영학과 회장이 된 조현진회장이....어딜 가냐고...붙잡는데.

내일 출근해야한다고..하니...

더 붙잡고 싶어도....이해한다는 뜻이 놓아주었다.

아뿔튼 이래저래 피곤하네..

재롱잔치 준비때문에....할일들..생각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댄스나 율동종류는 무대의상을 빌려 입기 때문에..

빨리 입혀주기만 하면 되고 연습은 충분히 된 상태이기때문에

별 걱정안한다. 그리고 약간 못해도...이제 나이 5세이니.

마냥 귀엽기 때문에....율동 틀리고 이런것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영어대화와 챗트가 2가지 있다.

이 프로그램에 입어야 할 의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

에구.나두 .모르겠다...

머리복잡네

날씨가 추우니..활동범위가 움츠려든다.
일요일날 베드민턴 치고 회원들과 저녁을 하고 다시 볼링장으로 가서
내기 게임을 했다.

근 8개월이상 볼링을 안 친것 같은데 잘 쳐질려나 했는데
역시...기본 베이스에 깔아놓은 기본기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

3게임 토탈해서 에버러지 180을 쳤으니...
남자들이 혀를 내 두를 만도...ㅎ

난 왜 이렇게 잘하는게 많은지 ㅋㅋ....

갑자기 안쓰던 근육을 써서
고생중이다...

어제는 운동을 가지 않고
재롱잔치가 10일 가까이 와서. 준비할게 많아 집에서
컴터로 재롱발표 순서표대로 음악이 나오도록시디로 굽는 작업을 했다.

피곤해서 일찍 잘려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일 끝내고 나니 또 12시가 넘어갔다.

아이들도....힘들어도 잘 참고 연습에 임해주어서 참 고맙고
아이들이 먼저 즐거워서 ...선생님..어떤 음악 틀어주세요.~` 라고.
주문을 한다...(쉬는시간인데도....)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면.자기들 끼리 연습을 한다.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그것참!

조금 신기한 것이.
처음에 율동을 가르칠때...2~3명 아이가 비적극적이여서.
저것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걱정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다..따라하고 적극성을 띠어주었다.
그래서...그것참 신기하다...생각하고 있다.

동작은 .완벽하게 소화 못해도.

아이들 나름대로 열심으로 몸을 움직인다.

5세아이들인데..

내가 너무 완벽을 바라는 것도...무리수가 있어서

조금 미숙해도...그냥 넘어간다.

아뭏튼 그날 실수없이 계획대로 웃입혀서 무대내보내는 일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한가한 토요일이다..

일요일만 쉬고 또 출근을 해야한다는것이 벌써...맘이 무거워진다.

그냥 더 많이 놀고 싶고 쉬고 싶으니까...

내일 주일날 아동부 장부도 정리해서 넘겨줘야하고.

4여전도회 회장을 맡아서...신년계획서와 인명부 작성을

파워포인트로 작성했다.

영화를 보러 갈까 했는데..

오후 3시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시간도 어중간하고.

아이들도 안간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가지 않고.

이불빨래를 하고 나니...

6시 가까이 되어..

체육관으로 운동하러 갔다.

내기 게임을 해 이겼다.

운동마치고

국밥집에 가서....

간단히 맥주 한잔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요즘 거의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간단한 술을 한잔씩하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음...이건 아닌것 같은데...

내기 게임해서 이겨..어쩔수 없이 온 것이지만...

우리 클럽이름은 자유클럽인데...

요즘 클럽에서 말이 많다.

경기이사님이 여자분이신데 나이가 50대이며

베드민턴 용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시다.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다가가서 베드민턴도 가르쳐주고

클럽에 끌어들어...본격적으로 베드민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용품을 팔기 위한 목적이 크고
사람들을 끌어 들이는 것은 수단이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그 분이 참 고마운 분이라고 다들 그런다.
나도...그런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분이고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너무 장사속..상술속...사람 봐 가면서 셔틀판매를 달리 한다는 것이며
쉽게 말하면 순진한 사람에게 이것저것 더 사게 만든다는 것이다.
어짜피 필요한 용품이니까 사긴 하지만.
자신이 원해서라기 보다는...그분이 이런저런이유로 필요하다면서 밀어 붙여서
어쩔수 없이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결국 회원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붙여져 나온 모양이다.

내가 들어보니..사람 보면서 상술속의 장사는 좀 문제는 있다는 생각을 해봤다.
같은 메이커 셔틀을 팔때...다 같이 같은 가격으로 팔아야지..왜 사람보고 달리 파냐고...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며...
아무리 유익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고 있는
이해의 범위 한계를 넘어가면...문제가 분명 생기게 되는 것을...

사람은 정직하게 신뢰를 가지도록 해야 오랜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인데
한치 앞만 바라보고 눈앞에 이익만 위해 영업을 한다면..
그 고객은 오랜 고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아물튼...그분이 잘한 점은 잘했다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많은 거짓말을 하며 산다.
단지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나....거짓말은 대부분 들통나게 되어 있고
불의한 목적을 품은 사람들의 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것이
세상의 위치인 것 같다...

거짓말 뻔히 들통 날 것을...
하는 사람보면....어리석기 그지없다.

우리도 그렇잖는가..
처음에는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진솔하게 믿었는데
그게 나중 거짓말이었다고 알게 되면

그사람의 신뢰도가 거침없이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그다음에 상대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는 것을...

아뿔튼 진실하게 살아야 됨을 다시금 다짐해본다.

늦잠 잘 수 있어 행복하다.
시간이 많아서 행복하다.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평일날 ..
그동안 은행에 꼭 가서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내가 쉬는 날은 휴일이라..어찌 처리할 수가 없었다.

평일날 쉬는 것이....정말 은행 일 처리 하는데..귀한 시간이였다.

인터넷 뱅킹으로 밀린 공과금 다 처리하고...
유료 환급금이 나와 있었다...난 것도 모르고..
언제 나오나...기다렸는데...
밀양 시누이 가게가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되어 있다.
그래서...나도 유료환급금 대상....

아물튼 24만원 환급받아서
그동안 신랑이..내지 못한 세금 및 주정차 위반딱지...
그리고 시누이가 내지 못한 세금등..
정리하니까.35만원....

신랑도 유료환급금 입금이 되어 있었는데..
카드 값을 정리 못해서 카드회사에서 입금되자마자 출금되어 빠져나가버렸다.

아물튼..전부는 정리 못했다.

딸이 학교에 저축한 통장이 있는데.
아~ 글썄...2005년도..
북부산 우체국이라서....딸을 데리고 찾으러 가봤다.
근대...등본이 없으면..찾을수가 없다나....
헛탕치고...다시 집으로 오는길에 농협에 들러 아들적금 만기찾아서
다시 만들려고 갔다가..것도 등본이 필요하다고...

두군데 헛탕치고 집으로 왔다.

다시 딸을 데리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르게 하고
올해 중학교를 가는데.

딸이..다른아이들보다 키도 작고 성장도 느리다.
작년여름에 보약을 먹였지만.
이번 겨울에..내 비상금 털어 ...보약을 지으러 갔다.

살다보면 적기 라는 것이 있다.
꼭 필요할때 적절하게....하는거....
딸아이가 성장하는데....지금 보약을 꼭 먹여야 한다는 판단에..
없는 돈이지만..그것만큼은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진단하고 보약을 신청해 냈다...

아빠를 닮아서 키가 커야 하는데.
아뿔튼 나를 닮으면 절대 안된다...
성격이나 아무친 것은 꼭 나를 닮아야 하고...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아빠를 닮아야 하는 것이다.

저녁쯤..전화가 와서....아는 분이...저녁 하자고 했다.
신년이고 해서 ...만나서 ...가볍게 맥주 한잔 했다.

저녁에 운동가야한다고 5시에 만나서 7시에 집에 왔다.
맥주 한잔 먹었는데.운전하는데 괜찮겠지....생각하고.
차를 몰고 체육관으로 가서 운동을 했다.

맥주 한잔도 ...설마 문제 되지 않겠지...생각했는데.
체육관 주위 동생들에게 말을 하니까.
큰일난다면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다.

운동을 마치고...
맘 맞는 회원들끼리...화명동으로 이동해서 다시 맥주집에 갔다.

내가 좀 방탕한가? ㅎㅎ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하고 꼭 참고 있었는데.
시간도 되니..자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직장생활하고 바쁘면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화명동으로 이동해서 맥주한잔..
신랑도 호출해서 불렀다.
안온다고 하더니....나중에는 자리에 합류했다.

1시가 넘어가는 시간...

같은 방향으로 가는 남자3사람을 태우고....중간중간 내려주고
신랑과 집에 왔다.

맥주자리에서....

운동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켈 좋아하는 동생(남)이 도마위에 올라 안주거리가 되었다.

그 동생이...체육관에서 가장 베드민턴을 잘 친다.

그리고 한때 나와 파트너 였고 지금도....파트너하면

아주 강력한 혼복팀이다..

그애는 올해 30살이며,,,,

말수가 없고...그런다고 다른사람들과..먼저 가서 악수를 하고

살갑게 대하는 성격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체육관가서...그 동생을 이리저리 게임에 넣어달라고

다른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게임을 붙여주었다.

근대 동생이....레슨을 받고 부터..기량이...엄청 좋아져서

남자들이 감히.도전장을 내밀지 못한. 실력에 올라가 있다.

남자들끼리 그 동생이 교만하다는 둥....사가지 없다는 둥...그렇게 해석을 하고

씹었다.

내가 아는 동생은 그런 애가 아니다.

원래...먼저 악수하자고 내밀지 못하고 한게임잡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성격이 아니다. 잘치기는 하지만..그런다고 다른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
게 행동할 그런 동생은

아닌데....

남자들은 곧잘 그 동생에 대해 나쁘게말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다 질투의 맘에서 나오는 생각같다.

아물튼 한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다..

내가 말했다.

그 동생보다 다들 나이도 많으면서 먼저 가서 실력좋은 동생에게

한게임 잡아주라....말하고 오히려 형님처럼 잘하는것에 칭찬하고

감싸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아물튼.사람들은 참 못됐다.

왜 마음들이 밴댕이 속알머리 처럼 좁을까?

좀 더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살면 안될까?

그래서 나에게 인정받는 남자들이 적은 것 같다.

난..

나보다 생각이 깊고 이해하는 범위가 넓은 사람

일처리에 있어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생각해 내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사람을 존경한다.

내 스스로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평가가 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다들 한참....아래의 사고와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어제 송구영신예배 드리고
오늘 11시까지 잠을 잤다.

어제 신랑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새벽 2시에 들어와서..
한마디 했었다.

신랑은 나름대로 그럴만한 사정을 이야기 했지만..
나에게는 변명이며 젤 1순위가 뒤로 물러갔다는 그 자체가..
싫다.

신랑은 내 눈치를 살피면서 내 옆에 오지도 못하고
아이들하고 잤다.

아침에 다시 내 눈치를 살피며...옆으로 왔다

새해아침인데 떡국 해 먹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다.

떡국 사놓은게 없다면서
그냥 밥해서 먹으면 되지....라고 했다.

그랬더니 어제가 내 생일이었는데...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옹?
신랑생일은 음력 12월 5일....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1월로 넘어와서..
그냥 1월달에 있겠지...생각했었는데
12월 31일이 생일이였다고 했다...

미안하게시리.....

못챙겨줘서 미안해....

신랑이 수퍼에 가서 떡국을 사왔다.

맛있게 떡국을 끓여 가족과 함께 먹고

할인마트에 가서...

사야할 생필품들을 사왔다.

그리고 신랑은..신랑차로 창원에 한번 갔다오면 7만원 용차료를 받는

아르바이트가 생겼다면...

함께 가야할 사람이 있는 근처에 내려주고 나는 집으로 왔다.

아이들은 집에 두고 다시 체육관으로 가서

운동을 하였다.

7시쯤 운동을 마치고...

회원들을 데리고 우리 동네로 와서

닭지볶음밥을 시켜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다.

계를 만들자고 하였다.

계...좋지. ㅎㅎ

유일하게 여자는 나 혼자..호호..그것참!!

1월 둘째주에 다시 만나 계모임을 하자고 약속하고

돌려보냈고 나는 집으로 왔다.

오늘 체육관을 가다가

좌측으로 차선을 옮기려다.

뒤에서 뺑~~

사각지대에 걸렸는지..

분명 좌측백미러를 보고 차선을 변경을 시도했는데...

바로 뒤에 차가 왔던 것이다.

뺑~ 소리 듣고 멈췄...바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다.

옆에 차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뒤차 옆에 지나가면서..뒤풀라...하는 모션...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여줬다..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차를 운전하면서 처음으로 당황했던 순간이다...

어린이들을 인솔해서 눈 썰매장을 갔다.

장소는 양산해운청소년수련관...

총학출범식할때 왔던 곳이네..

아이들 안전에 잔뜩 신경을 쓴다고 딱 썰매 두번 타봤다.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와서 조금은 복잡했다.

우리반 아이들은 서로 선생님과 함께 썰매 타야 한다고...

옆에서 귀찮도록 졸졸 따라다녔고

버스오를때도

선생님은 어디에 앉을거냐면서 벌써부터 아이들은

내가 어떤 친구 옆에 앉을지..신경을 곤드세우고 있다.

그것참!

난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거야? ㅎㅎㅎ

민호라는 아이가 썰매 한번 타서 내려오더니 이내 자기 맘대로 안되고

겁이 났는지..

선생님 나 썰매 안타고 선생님하고 놀거예요 이러는 거였다.

그래서 민호야...

나하고 같이 썰매 탈래?

민호..입이 짹 벌어진다...

그래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반 다른아이들 와서.

선생님은 왜 민호와 썰매를 타요? ㅎㅎ

그게 말이야 민호가 썰매를 안타겠다고 해서..

썰매 타러 와서 안타고 가면 안되니까...선생님이 같이 타자고 했어...

그렇게 말했더니 아이들이.

그럼 선생님...민호 타고 저하고도 타야해요?

여기저기서..선생님 저하고도 꼭 타야해요...

선생님하고 썰매 타고 싶어요아우성들이다..

..

애들하고 다 타고 싶지만...내 몸은 하나인데...

눈썰매를 타고 시간이 남아서.

아이들과 눈싸움을 했다.

내가 선생님인지 애들인지 나도 분간이 안간다.

아뭏튼 나는 왜 이럴까? 내 스스로 난 어른같지가 않다.ㅎ

다른 선생님은 다들 몸 사리고...혹시나 옷 버릴까봐 스타일 구길까봐..

저멀리 떨어져 아이들만 보고 있는데..

나는 장갑끼고..애들아 덤벼라~

기쁨반 10명 행복반 8명정도 .와 나 혼자 눈싸움 대결을 했다..

여기저기에서 눈 뭉치가 날라왔지만..

파워가 없는 눈뭉치 ㅋㅋ

나는 장갑끼 손으로 눈을 긁어모아서..아이들 모여있는데

눈 뿌리듯 뿌리면 아이들 얼굴에 눈이..ㅋㅋㅋㅋ

재미있어 죽겠네 정말.....

아이들이 미쳐 눈 긁어모으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치니까..

아이들은 도망다니기 바쁘다...

너무 재미있었고.

아이들도 너무 신나했다.

그래 눈 싸움은 이렇게 하는거야..라고 톡톡히 가르쳐준 현장학습이었다.

피곤한 하루였지만.

아이들이 즐거워 하니..너무 기분좋다.

저녁에...

원에 남아서 7시까지 컴퓨터로 원에 관한 업무를 보고 집으로 왔다.

늦은 저녁에는 상가집을 가봐야겠다.

아침부터 컨디션이 영~~

속이 미식거려서

아침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빈속으로 가면 힘은 어디서 나나..싫어서

몇숟갈 물에 말아 떠 넣고 출근을 하였다.

종일,,하루가 피곤하다.

나뿐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재롱잔치 휴우증이 아직

덜 풀렸는지..다들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고 속도 미식거린다고...

거참 이상하네...

아래반 사랑반선생님도 증상이 나와 비슷했고

두 선생님은 어제 병원에 갔다왔다고 했다.(속이 안좋아서)

금요일날 회를 먹었는데 혹시 그때 먹는 음식때문예??

에이..설마 금요일날 먹었는데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어쩌나...

월요일은 종일 피곤하고 눕고만 싶어지고 속도 미식거렸다.

겨우 하루를 보냈다.

매회 몇 원을 지정해서 국공립절차를 밟아 민간이 국공립이 되는 모양인지

우리원도 신청을 할거라면서...만약 신청이 확정되면

연이틀 서류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하기때문에 늦게 퇴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국공립..좋지..

국공립이 되면...교사 월급이 올라간다.

국공립은 국가에서 몇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호봉수로 정해져 있다.

국공립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는데..

우리 원이 되기만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모든 원의 선생님들이 아파서 내일.모래 연이틀

서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퇴근을 하면서 시골 친정엄마가 전화가 왔다.

여동생 시어머님이 아까 전에 돌아가셨다고..

여동생 시어머님은 젊었을때 자궁을 떼어냈고
20년이 지나 난소암이 생긴것이며
발견이 늦어서...몸에 전이가 된 상태라고 했고
오래는 못 사실 거라는 예후가 좋지 않았다.

그래도 3개월정도는 사실 거라 예상하고 있었고
요양원에서 여동생이 매일 같이 가서 간호하고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일찍 가서버린것이다.

전화를 끊고...
인생이 참 허무하다 생각되었고.
아직은 젊으신데...너무 일찍 생을 마감하신것 같아.
마음이 슬퍼졌다.

여동생이 결혼하자 마자 3년 지나 시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이제는 시어머님도 난소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제부네 부모님이 모두 암으로 돌아가시니..
제부나 또는 아이들까지 유전되는거 아닌가 싶은 노파심도 든다.

여동생은 나보다 4살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나가면 여동생이 언니인줄 안다.
애도 4명이나 낳아서..고생하고
시어머님까지 보살필려니..얼마나 힘이 들겠나..

형제라고는 달랑 제부하고 여동생..
여동생은 결혼해서 루마니아로 선교를 떠났다.

무엇보다 가슴아픈 사실은 딸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고 하니....

그님의 선교가 원지...
부모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병들어 죽어감에도
쉽게 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선교한답시고...
그런 삶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아물튼 구원파들은 무서워~

더욱 무서운것은....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고들이다...

여동생 시어머님도 눈을 감을때 딸을 보고 갔다면 더욱 좋으련만..
무슨 생각을 하시며 눈을 감으셨을까? 혹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 정직한
마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2000년전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은....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천하보다 능력있는 분이 옆에 떡 버티고 계시는데..
무엇인들 못하겠단말인가?

그런데 지금은...다르잖는가?
그때 당시하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도 없고...오직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힘인데....
그러한 힘도 계속 공급해 주지 않으면 다시 연약하고 의심많은 인간의 본성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아물튼 큰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한..
생명까지도 내놓고 선교한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다.

오늘 어머님 떠나고 내일 루마니아에서 온다니.
싸늘하게 식은 시체와 대면하겠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간 선교니 뭐니 하면서 딸로써 어머님께 다정다감하게 했던 시간도 없었고
병들어 누워있을때도 손한번 만져 드리지 못하는 불효...

평생..마음에 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떠난 뒤 후회한들 뭐하며 아쉬워하면 뭐하리...

아물튼...오늘은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마음도 슬프네..

만덕에 가서 동생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놓고 운동을 갔다.

내가 가장 즐겨워하는 운동~

오후 3시 넘어서 갔다가 6시쯤 와서 7시에 총학생회 27대 이 취임식행사에 참석해야지 계산했었다.

5시 40분쯤 체육관을 나와서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오니

차가 밀려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었다.

클 났네..

학교에서는 지금 빨리 안오냐고 난리고..

은행도 들려서 돈도 찾아가야하고.....

당황스러웠다.

뭐든 내가 목표하고 예상하면 특별히 벗어나는 일이 없이

진행되는데

이번만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거의 7시 되어 학교 도착해서

이.취임식장에 참석했다.

이, 취임식에 대해 이미 우리 26대는 끝났고 27대가 시작되는거니까.

우리의 참석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다.

근대 다른임원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고

아주 큰 의미를 지닌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이상한건가?

다른 임원들은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앞에 나가서 당연히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글쎄 나는...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앞에 나와서 칭찬을 해주든 안해주든 이 행사 참석에 의미를 두고 있을뿐

빨리 끝나주길 바랄뿐이다....그것참!

내가 아뭏튼 보통사람하고는 틀리는 것 같다..

나는 어렸을때부터 늘 칭찬과 격려속에서 커 왔다.
제발 나 좀 조용히 살게 해 줘...제말 나 좀 모른척 해줘 라고
할때가 많이 있었다.

어렸을때부터 욕상으로 유명인사가 되다니...
내 성격은 과거에...내성적이였다..사람들이 나를 많이 아는 것이
정말 싫었다.

지금도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사람을 알기 위해 말을 많이 한다든가
오바하는 행동은 질색인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안좋아한다.

아뿔튼 나는 내가 하는 모든일에 늘 노력하고 또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결국 인정을 거의 받는다.

잘하기만 하면..
그냥 가만 있어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데...
뭐하러 애써 앞에 나가 칭찬해주길 바라며 살까?
내면의 실력을 키우면.. 타인이 먼저 인정해주는데...말이야..

나는...1년동안
총 학생회 임원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점이 있다면...

사람들은 많은 인격수양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낀 점이다.

너무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고 이기적이여서
자신의 감정대로 말해버리고 지조없이 여기서 이말 저기서 저말
아뿔튼 자신의 입술에 멍에를 매지 않다 보니..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화를 발하고
시간이 지나서 미안하다..죄송하다....
아니 그런말 하지 않고 미리 좀 생각하고 자신을 다스리면 안되나??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냥 자신이 겪어보지도 않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는다는 것이다.
참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나하고 너무 틀린 사고방식이다.

나는 누가 뭐라하든..

참고만 할뿐 그사람은 이런사람이라고 선입견을 갖지않는다.

사람을 평가할때는

내가 직접겪어보고 판단한다..그게 가장 사람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닐까?

인간의 마음은 완악하여

상대가 잘되는 꼴도 못보고 온갖 시기 질투가 많기 때문에

상대의 좋은점보다는 허물을 들춰내서 여러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사람의 사고주머니는 개개인마다 틀리다.

어떠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인생은 즐겁게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닌가?

자신의 제한적인 사고로 인해

스스로 번뇌하는 삶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냥 마음을 넓게.....나도 부족한데 하물며 너도 인간인이상

안부족하겠냐 생각하면

이해못할 일도 없다는 것이다.

내가 늘 하는 말이 있다.

죽고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라고..... 그게 마음에 번뇌를 줄이는 방법이고

평안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말하고 싶다.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민감하다

이겨먹으면 뭐하고...

조금 손해보면 어떠리.....

그럴수도 이럴수도 있는것을...

괜히 작은것에 감정상하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고..

마음에 아름답고 선한 마음보다 강박한 마음 돌처럼 굳어버린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마음밖에 더 있겠냐는 것이다.

굳이 그렇게 인생을 살 필요 있는가?

안그래도 짧은 인생

20대는 직장다닌다고

30대는 결혼하고 아이키운다고..

어디 인생이 내 인생이던가?

40대는 아이들도 크고 어느정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나이이다.

40대는 뭐든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고

50대는 뭔가 서서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기.

60대는 ...건강지키기위해 등산이나 가야할 나이

70대는 ..글쎄...손자 보는 재미?

이도 성하지 못하고. 얼굴이 아름다워 삶이 즐거울까? 몸이 건강해서
인생살맛날까?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나?

80대는...이제 삶을 서서히 정리하고 마감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이래저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건강하게 80세까지 살아도 복을 받는 것이며

질병으로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을.....

나에게 내일이 항상 찾아온다고 생각지 말자...

그냥 주어진 시간에 후회없이 사는 것이.

내가 언제 무슨일을 당하고 혹 내 생명이 다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더라도 내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다 하지 않겠는가?.....

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

감기가 너무 심해...

코를 풀때마다 코피가 줄줄~

심각하다..

콧밀도 헐고 입술도 바짝바짝 말라서 립스틱을 발라도 붕붕 뜨는 듯한 메마른 느낌이 든다.

재롱발표회는 잘 끝났다.

20여가지 넘는 프로그램을 1시간 40분만에 해 치웠으니.

거짓말 아니구 한가지 끝나고 바로 대기실로 뛰어가 입었던 아이들 옷 죄다 벗겨

다음 의상을 입히고 데리고 나가야 하고

무대 뒤에서 줄 세워 자리 정해주어야 하고

음악과 함께 무대가 열리면

앞좌석앞에서 무용도 해주어야 하고

영어챗트시에는 마이크까지 챙겨야 했던~~

너무 너무 힘들었다...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었다.

사회자가 중간중간에 이벤트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녁시간이고 다들 바쁘다 보니..

될 수 있음..짧은 시간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하기때문에

선생님들이 죽사발 나는것 같았다.

특히 내가 맡은 5세반은...

분위기에 마음이 들떠 망나니처럼 이러저리 돌아다니는 바람에

이름을 부르고 빨리와라 웃벗어라..

발 놓으라 손 놓으라..돌아다니지마라 줄서라..앉아라...

휴~~

아이들이 들떠 통제가 안될때 정말 감당이 안되었다.

큰소리칠수밖에 없는데

밖에는 부모님들이 와 계셔서 소리도 칠 수 없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예쁜 미소를 지으며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고 영어챗트를 해서 참 기분이 좋았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단지 아이들 표정이....밝지 않다면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일인데...다행히 행복반 아이들은 너무 신나했다.

순식간에 끝났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아뽀사~~

컬러 영어챗트때...앞에 세워둘 간판(소품)을 제대로 사용도 못한것이다.

힘들게 만든것인데.....어쩐지 뭔가 하나 빠진 느낌이 들더니..

아깝다..애써 만든건데 써먹지도 못하고...너무 정신이 없다보니.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

재롱발표회 마치고

횃집가서 저녁을 먹었다.

차를 가지고 와서..술을 먹지 않고 있다가...

원장님 남편분이...대리값줄테니 마시세요 자꾸 권해서.

에라 모르겠다....

소주 3잔을 함께 마셨다.

마지막 헤어질때..원장쌤님께서 ...

선생님들에게 수고하셨다면서 봉투를 하나씩 주셨다.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봉투가 보여서 열어봤더니 3만원이 들어 있었다.

지하철에 앉아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았다.

소주도 3잔 마셨겠다...머리가 핑 돌았다.

집에 와서...

씻고 바로 누웠다 12시 넘어가는 시간이었다.

....

아침부터 또래 또 어린이집 전 원아가..함께 모여
총 연습을 하였다.

우리반 아이들은 은근히 긴장되었는지
오동작이 나오고 음악보다 동작이 빨라지는....

아뭇튼 연습할때보다 더 못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다른반 쌤은....그정도면 잘한다면서 칭찬을 하셨다.

글쎄~

내일 부모님들이 많이 오실텐데...
더 긴장하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

연습할때보다 더 못하면..난감할 듯 하다

아이들이다보니...이쁘게 봐 주겠지만.
또 가르치는 선생님 맘은..그렇지 않다..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자야겠다.

내일 정말 좋은 반응속에 재롱잔치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연습했던 그 이상 좋은 결과가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총연습끝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윤이한테 시윤아 왜 그렇게 긴장해??
긴장하지 말고 마음편하게 해 라고 했더니..

시윤이.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안떨려요?

헐~~ ㅎㅎ

듣고 보니..시윤이 말이 맞네..

맞어....떨리지? 선생님도 어렸을때 떨리더라..

그래도 꼭 참고 연습한대로 했어.

너도 그럴거지?

네~

에고 ...나이는 작아도 틀린말은 아니네 호호호...그것참

아침 차량을 도는데..

월요일날 나는 냄새...술냄새가 또 났다.

월요일 났고 화요일 안났고 수요일 오늘 또 났다.

요즘 원장님 남편분이 학교 방학이라서 운전을 해 주신다.

원장님 남편분은 모 중학교 체육선생님이시다.

월요일은 남편분이 처음으로 함께 도는 날이라.

술 드셨냐고 묻고 싶었지만 행여나 실례가 되지 않나 싶어 물어보지 않았다.

오늘은 냄새가 더 많이 나서...

혹시..약주 하셨어요? 라고 물었다.

남편분 알...아니 냄새 많이 납니까? ㅋ

월요일도 났고 화요일은 안났고 오늘 또 나네요~ ㅎ

술을 많이 먹어서..큰일입니다 이러면 안되는데..라고 하셨다.

뭐든 적당히 하셔야 과하면 건강해치지요 라고 말했다.

술 그렇게 드시면 원장님 좋아라 하십니까?

지금은 포기하고 삽니다 ~ 라고 말씀하셨다 ㅋ

그래도 담배는 안핍니다. ..

그것참 다행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이라...술보다 안좋은것 같아요~

아뭇튼 이러한 대화를 하면서 차량을 돌았다.

난 창문을 살짝 열었다.

나도 술..한두잔 하지만..

술 고래하고는 절대 못살것 같다.

울 신랑이 과거 몇번 술이 딱이 되어 정신을 못차리고 술냄새 풍기며

옆에서 잘때...

정말 죽을만큼 싫었다. 다행히 신랑은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못하고 담배도 피지않는다.

하물며 맨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술냄새 풍기며 사는

부인은 얼마나 짜증스러울까? 거기다 담배까지 피운다면..

으악~~.....그나마..난 신랑 잘 얻은거네~

사실 5일전인가....그날 차를 가지고 다른 동네 과메기를 먹으로 갔다.
신랑은 다른곳에서 합류하기로 했고
난 그날 술이 먹고 싶었다.... 신랑이 내 차를 운전해서 가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소주를 4잔 마셨다. 퍽퍽퍽 먹어서...뭐 취할정도는 아니고
약간은 초점이 흐려지는 듯한 느낌은 받았다.
경직된 마음이 조금 풀어진다고 해야하나?.....

일행들은 우리 아파트에 차를 두고 내 차를 타고 함께 왔었다.
그들이야 택시를 타고 가면 되지만 신랑도 차를 가져왔고
나도 차를 가져왔고...
신랑트럭은 그대로 두고 내 차를 신랑이 운전해서 집에 가자고 했다.
신랑이 안된다는 것이다.
자기만 따라오면 음주 안걸린다면서...
운전해서 오라는 것이었다....
좋은거 가르치고 있다..ㅎ

그래서 어쩔수 없이...운전대를 잡았고...
일행 3명도 내 차에 탔다.(남자3사람)
그리고 신랑만 졸졸 따라갔다.
골목골목으로

아뭏튼 그래서 집까지 무사히 귀가를 했고 일행들도 우리집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를 했다.

차를 파킹 시키고집에 와서.
아니 당신은 내가 술을 먹었는데.. 주차하는데...
걱정도 안되요? 라고 말했다.

씨익 웃으면서 하는말.
당신 운전실력을 믿으니까 걱정안하지..이러는 거였다.
그것참~ 할말 없어지네..
아뭏튼 나도 음주 운전 을 했던 경험이 있었었다.

다음에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겠지..

내일 재롱발표회 총연습하고
모래는 재롱발표회 당일이다.

은근히...긴장이 되어진다.

연습을 시키면서...좀 더 잘 맞추면 좋으련만...~

아이들을 잡을수도 없고...아이들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심하지 않으면 스무드하게 넘어가기로 했고

의상을 입고 약간만 흔들어줘도...아이들은 불만하다.

무용연습하고 있는데 사랑반 쌤님 와서 구경해도 되냐고..물었다.

그러라고 했다

아이들은 열심을 다해 한다...

못한다 꾸중들으면 갑자기 아이들 인상이 변하여

의기소침해진다.

칭찬에 살고 꾸중에 죽는 아이들 ㅎㅎ

될수 있음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여러번 이야기해서 시정되지 않으면 혼도 내야 교육이다.

아이들 율동을 보고 사랑반 쌤님 소감...

행복반 친구들 너무 잘한다....면서...웃 입고 하면 정말 멋질것 같다는 것이다.

얼마전에 재롱발표회 다녀왔는데..5세반 아이들 우리반보다 못해도 이뻐다면서

하물며 이렇게 잘하는데...웃입혀놓으면 너무 멋질것같다는 것이다.

선생님 가시고...애들아 니네들 너무 잘한다고 사랑반 쌤님이 칭찬하셨다...

아이들..우와~~ 우리가 잘한대~ 라고 서로 좋아라 했다.

율동하면서 나에게 혼 안난 친구들 한명도 없다.

혼나면 다들 눈물이 글썽 거리면서 율동을 한다.

어떤애는 아예 울기도 한다.

그러면 내 맘이 안좋아서 그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준다.

다음에는 잘할 수 있지요? 라고 물으면..

그아이..선생님 품에 꼭 안겨서...네 선생님..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을 이렇게 달랜다

ㅋㅋㅋㅋ 울렸다...달랬다...하하하하....나도 참 웃긴다..ㅋ

어떤 아이는 선생님 싫어~....우리 엄마에게 다 말할거야~ 라고 한다.

그래 일러라...엄마 얼릉 모셔와라 나도 누구누구가 얼마나 말을 안들어

선생님 속상하게 하는지 ..엄마에게 다 말해줄거다..라고 오히려..반박을 하면

이내 할말 잃은 아이들..ㅋㅋㅋ

아뿔튼 재밌다..

아이들이 말 안들때...
나 다시 아랫층 사랑반으로 내려가야겠다.
니네들이 말을 안들어서 ...

그러면 애들 전체가
안돼요~ 난 선생님 좋아요....라면서
다들 매달린다.. ㅎㅎ
ㅋㅋㅋㅋ
유도심문이었는데...것도 모르고 ㅋㅋ 메롱메롱~

오늘은 재롱발표회때 사용할 소품을 만들었다.
나름대로 준비하지만.
아마 당일날 ..뭔가 2프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을 듯 싶다.
얼마전에 초대장 및 프로그램 순서를 만들어서 아이들 편으로 주었다.

아이들에게 주기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원장님으로부터 4분 선생님이 다들 봤는데도.
우리반 아이성이 잘못되서 나갔다는 것이 아닌가...
왜~ 아무도 그것을 못찾아냈을까??

다들 사실 ...마음속에 분주함때문이였을 것이다.
아롱튼....당황스러운일들이 자꾸 생긴다..(마음이 바쁘니까 실수도 나오는 듯 싶다)

.....

재롱발표회가 끝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썰매를 타로 간다.
우와 신난다~...
아롱튼 기대되는 다음주... ㅎㅎ

차량을 끝내고 들어갈려는데...

원장님 남편분이....'잠깐만요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뭔대요?

자신의 무쏘차 문을 열더니...

베드민턴 셔틀 3통...메이커는 막스제품

어디서 나셨어요?

옛날에 쓰던거예요....

차량돌면서 인생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성격 음식 등등

그분은 나보다 4살이 많은..모 고등학교 체육선생님이시다.

그분이 운동과 연관되어 있고 나또한 운동을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나는 베드민턴을 치고 있다고 했고 원장님 남편분은 대학교때..

베드민턴 강사 자격증을 따 놓았다고 했고 그때 치고

지금은 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차량을 함께 돈다.

선생님이 방학이라서...아침 오후 차량 운전을 해 주신다.

선생님 취미는 등산이고 동적인 운동보다 정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의외이다.

체육선생님이...정적인것을 좋아한다니....

나도 사실은 정적인 사람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운동만 빼고.....

셔틀 3통을 받아든 순간.기분이 엄청 좋았다.

사실 한통 살려고 해도 14,000이상이 된다.

주신 것이 막스제품이라 아마 더 비쌀 것이다.

베드민턴 치면서든 셔틀을 사야하기때문에...솔솔히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물튼 너무 고마웠다.

대학교때 치시고.....

몇년전에 근처 동호회 들어갈려고 했는데 해체된 이후로

안친다고 하셨다.

그리고 잘 못친다고 했다.

아물튼 오래전 이야기 같은데....

하나도 쓰지도 않고 새제품을 3통이나 주시니...

고맙기도 하고...의문스럽기도 하고...

사서 주신것인지,,,,

말씀은 집에 있던거라고 했지만.

베드민턴을 안치신지 몇년이 지난듯 한데

집에 새 셔틀이 3통이나 있다는 것이...약간 이해가 안가기도 했다..

사서 주셨다면..

또 해석이 180도 달라지는데...ㅋㅋㅋ

예구 나도 몰라....그냥 마음이 즐겁긴 하네..

저녁에,,,퇴근도 못하고

서류정리..이것저것 환경판도 만들어야 하고.

특히 컴퓨터 작업을 내가 해야하기때문에

맨날 나는 집에도 못가고.

내가 못가니.일이 없어도 다른샘님들 먼저 갈 수도 없고...

오늘 애써 만들어놓은 파일을 옮기다가..

지우는 실수를 했다.

1시간이상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미완성 파일이고

내일 파일작업을 마무리 하기로 했는데...

그만 옮기는 과정에서 지워지고 말았다.

짜증이빠이네....

다시 그 작업을 한다는 자체가.....

앞이 깜깜해졌다.

어린이집 컴은 느리고 용량도 딸려서...맨날 멈춰서 속이 터진다.

30분 할 작업을 중간중간 멈춰서 1시간이상을 한다...

그러한 과정을 알기 때문에...속이 답답해 왔다.

안되겠다 싶어서...

파일 작업할거 제 USB,에 담아서 집에서 작업해 올께요....

그러라고 했다.

그래서 필요한 파일을 다 복사해서 집으로 가져와서 단 1시간만에
다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마 2시간 넘게 컴하고 시름해야할 일이었다.

여유가 있어서 목차도 하나 이쁘게 제작해 두었다.

컴퓨터를 좀 잘 다루어서 ...일복이 많네...내가 없으면

작업이 안되잖아...이거 별로 안좋네....흠...

이번주 토요일에도 출근해서

환경정리를 하란다..

짜증나네 진짜...~

올해 2월 내가 맡은 5세반 윗반으로 올려주고

어린이반을 맡으라고 했다.

3세가 될지 4세가 될지..모르겠지만.

현재 4세반선생님하고 번갈아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어떨것냐고 물었다.

내 맘같으면 난 파트로 뛰고 싶은데....

지금까지 정교사를 해 보니..

뭐 할만은 한데..

페이가 너무 작으니까..불만이 많다.

일은 엄청 많이 시키고 페이를 작게 주면..누가 좋아라 하나....

올해는 페이에 대해서 말을 좀 해 볼려고 한다.

나뿐 아니라 다른선생님도 페이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다른원보다 훨 작게 주니까...

그래서 나 일 많이 시키면.

은근히 짜증난다.

요즘같이 매일 컴터 작업 시키고 늦게 집에 퇴근하고...

명절 전날에 10만원 주고...

이렇게 시켜먹을려고 그랬던 모양이다.

아직도..할일이 많다.....

 아침에 농협에 갔다.

신랑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밀린거 정리하러....

지금까지 정리한 것만 해도 20만원 넘을 듯 하다

물론 범칙금 정리 하는 것 외에 통장관련 업무목적도 있었다.

근대....

직원이..엄청 불친절하게...업무를 봐 주는 것이다.

내가 잘못된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상할라 했다.

그래서...

아니..왜 그렇게 불친절하세요? 약간 불쾌해 질려고 하네요...

라고 했더니..

이내 직원이 태도를 수정하여

아....죄송합니다...

밖에 날씨 많이 춥죠? 라면서

태도가 바뀌었다.

애써 더이상 묻지 않고

이것 저것 물어보았다.

엄청 친절해졌다..ㅎ

행여나...불친절하다고...위에 보고가 들어가면 어쩌나 싶은지....

AMT 자동화 기계에서 범칙금을 정리하는 중...

문제가 생겨 왜 이러나? 두리번 거리는데

아까 그 여직원 뛰어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며...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었다.

그것참!!

아침에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사진관에 가서 그간 현상해야할 사진을 현상했다.

오후에 체육관에서 운동 약속이 있어서 신랑한테 가자고 했더니.
안간다고 했다.

몇번 권유해보았지만 안간다니...할수없이
나 혼자 갔다

주차장가서 차 빼다가..뒤에 공간이 넓어서 스톱안하고도
돌릴 수 있겠구나 싶어 후진을 하였는데.
퍽~` 에고...
벽하고 부딪혔다.

주차장 가장 어두운 곳에 신랑이 차를 주차해 두어서...
내려서 차를 먼저 봤다.
또 범퍼쪽에...상처가...
페인트가 가뭇에 땅이 갈라지듯 갈라지면서 떨어져 나갔다.
하얀색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엄청 보기 싫었다.
오랜 된 차라서 그런지..

쑥 패이고 그런것은 아니고 살짝 벽에 부딪혔는데...
부딪힌 자리에 페인트가 일어나서 떨어져 나가니.
또 손을 봐야 할 듯 하다..

에고 ...미치겠네 진짜..

신랑에 뭐라고 말을 하나?
이제 부끄럽네...
운전을 어떻게 하고 다니나? 라고 말이 분명 나올 듯 하다.

무거운 마음으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했다.

1시간 후에 신랑이 체육관에 왔다.
앵~ 이사람이 가자고 할 때는 안오고,,,,,어쩐일이래??

잠깐 들렸다고 했다.

운동도 안할려면서 뭐하러 들려??

글고 뭐 타고 왔어?

트럭타고 왔다고 했다.

뒤에 범퍼 페인트 벗겨졌다고 말이 목에서 나올라 말라.

빨리 말을 해야.내 속이 편할텐데...

접촉사고난지 얼마되지도 않는데..또 벽하고 박았다고 하면...

에고...위신 안서네..진짜..

신랑은 오늘 불링시합이 있다고 했다.

돈따러 간다고 했다.

1등 상금이 얼마데?? 100만원이라고 했다.

오늘 1등 해서 100만원 타와라.

안그래도 아까 주차장에서 차 빠다가 벽에 퍽~

페인트가 갈라져서 떨어져 내려 엄청 보기 싫던데..

기가 찬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ㅎ

차가...오래 되서 약간만 부딪혀도 페인트가 갈라지면서 떨어지던데...

(즉, 세계 안 부딪혔다고 나름대로 변명을 했다)

차 운전 잘못해서 그렇지 뭘 페인트 타령이여? ㅎㅎ

에고 할말 없어지네....

신랑은 갔다...

운동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다시 한번 뒷 범퍼를 보았다.

에고 속상해라~...

내 자신에게 짜증이 난다..

운전 똑바로 안하고

아까 주차장에서 중간에 한번 스톱하고 앞으로 가면 될 것을..

괜히..조금 더 후진했다가..

에잇..짜증..

이번에 새로 고치면...

조심해서 타고 다녀야지...

자차를 들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지금 나갈 돈으로도 충분히 자차 보험료 하고 남았을 것을....

중고차 라고 자차를 안넣는다는 것이 현명한 생각은 아닌 것 같다.

나 같으면 10~20만원 더 주고 자차를 넣어서
중고차 접촉사고 났을때 새로 싹 갈겠다.

보험 수가 올라가는 것이야....1~2십만원...
그정도 올려주고 그 이상의 혜택을 받으면 더 이익 아닌가?
보험을 도대체 왜 넣는걸까?....

아뭇튼 신량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안넣은 것 같은데...

나 같았으면 넣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운전이 초보이다보니...접촉사고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 더 주고 혜택을 받는 것이...더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괜히 10~20십만원 아끼다가...

내일은 아침부터 바쁠 것 같다.
새학기 등록도 해야하고...
평일이라 그간 밀린 은행업무를 보러 다녀야 하며
2시에 어린이집에 출근을 해야한다.

 동생네 집에 가서 오후 내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윷놀이를 해서 돈을 모아 찜질방을 가기로 했다.

난 윷놀이 같은거 잘 못하지만 4팀으로 만들어서 나는 아들과 한편을 먹어
첫판은 꼴등..
두번째 판은 1등 ㅋ

모두 차를 타고 우리집 근처 시설 좋은 찜질방으로 향했다.

신랑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차 수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어디에 맡겨야 싸게 하는 것이 신랑의 관심이었고
나는 현대차이니까..현대서비스수리 센터에 맡기면
믿을 수 있고 더 잘 고치지 않겠냐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다.

나는 잘 모르지만..설마 뭐..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

신랑은 모르면서 그런소리 한다고 화를 내었다.

갑자기 화를 내니까..당황스러웠다.

보험 넣을때 자차도 넣는걸로 신랑이 나에게 말한 것 같은데..
사고 난 후..중고차를 왜 자차 넣느냐고 말했다.

그래서 저번에 넣었다고 하지 않았냐고..재차 물으며
이상하다면서 난 그렇게 들었으면서...말을 했다.
신랑은 그런소리 한적 없다고 우겼고...

신랑이 사실 자신이 해 놓은 말을 자주 까먹고 내가 언제 그랬냐면서
오리발 내밀때가 많다...그래서 신랑말을 잘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증거를 대면 내가 언제 그랬나? 라고 인정을 할 때가 많아서..

당신은 원래 말 쉽게 해 놓고 안했다고 하잖아~ 라고 말을 했더니

그말에발끈..~ 갑자기 화를 내어서
내가 무척 당황했다.

은근히 나도 화가 났다.

찜질방 주차장에 도착해서....내려야 하는데..
정말 열이 받아서 미칠 것 같았다.

화 낼 일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화를 내서 당황스러움이..
엄청 모멸감 비슷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차 안에서 핸들쪽으로 던져버렸다.
(나의 참는 한계가 넘어간 행동이었다.)
핸드폰은 이내 부딪혀 신랑이 열어놓은 운전석 문밖으로 내 던져졌다.

((뒤에는 제부네가...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제부네 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한 후... 신랑이 다가왔다.
문을 딱 열었더니 벽에 퍽..소리가 났다.
잘먹고 잘 살아라~~.....그러면서...핸드폰을 주워 집으로 와 버렸다.

여동생에게전화를 해서 오면서 좀 다뤄 기분이 영 아니다면서
재미있게 놀다가라고 말했다.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영화를 검색했고
보고 싶은 영화가 상영중에 있었다.

체인질링~~
혼자서 롯데 시네마에 가서 영화를 봤다.
영화는 너무 감동적이고 잘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실화라고 했다.

영화를 보고
집으로 오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 보았다.
아까 한 행동이 참 잘못되었다는 것과.

내가 너무 신랑에게 나의 주장만 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다...내가 부족해서야~ 좀 더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도록 하자..

신랑은 사실 나에게 잘한다.

나는 가끔 정말 열 받으면 욕도 한번씩 쓴다...(나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때....원래 나는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과거 무슨일때문에 신랑에게 오해를 받게 되었다....너무 억울해...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상대는 나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상황에 있을때....욕이 나왔다.. XX

난, 다른건 그런대로 참을 수 있어도 오해를 받거나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것처럼 우기면...정말 참기 힘들다. 그 이후로 .그게 가끔 정말 정말 화가 났을때 욕이 한번씩 나왔다.. 처음 하기가 힘들뿐이지 한번 하고 나면 그것도 습관이 되는지... 그렇지만 난 항상 나를 돌아본다 잘못된 부분에서 반성을 하며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욕을 해도 신랑은 나에게 욕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정말 신기하고 그 부분에서는 존경할 만 하다.

오히려 내가 신랑에게 욕을 한다...

사실.. 신랑은 사람을 정말 열받게 만든다...

화 낼 상황이 아닌데도 갑자기 화를 내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겠는가?

대부분 신랑이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화를 내더라도...

상대가 느낄수 있게 차근차근 감정을 나타내야 하지 않는가?

처음부터 화를 내는가?.....

화가 머리끝까지 내는데도 다 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신랑은 과정 없이..화를 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니까.(나의 기준에서)

내가 더 열받는 것이다. 엄청 모욕적인 느낌이 든다.

오늘도 그러했고....

나도....반성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뭘 던지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 반성한다.

그리고, 대화기술도 다시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듯 하다.

혹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상대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역양이나 단어를 사용했는가?.....

함께 대화 해 줄 친구가 필요했는데...

설날이다 보니....

연락을 할 수도 없고...

.....

술을 먹는 것은 딱 질색이고.....

늘. 문제가 생기면...혼자가 되는 것 같다.

주위에 아는 사람이 많아도 선듯 불러낼려니 망설여지고

다른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불러낼 사람들은 많은데...

언제든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은 많은데...

나는 불러내지 않는다..

왜일까?.....

답은 없다..

상황에 따른 복잡한 감정때문이다.

그리고 기도한다.

하나님....용서하소서... 용서 빌일이 많아서 하나님앞에 항상 부끄럽지만..

완벽한 인간이 아닌 이상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반복적인 기도를 할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니겠는가? 어디 나만 그러 하겠는가?

하나님앞에서는 항상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다고 고백한다.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여 더 인내하지 못하고 분을 발하고 입술에 선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더 낮아지고 마음을 비우게 해 달라고

내 속에 내가 있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만

있게 해 달라고.....

죄책감은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연약할 수 밖에 없는 인성을 가졌고

죄를 짓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인생들이닌까...

단지...괴로운 것은...

죄를 지었든 선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을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심이 심히 괴롭고 힘들다는 것이다.

죄책감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거리가 멀어지고

또 나의 성찰과 성화의 도가 부족하여서

인간이 가진 본성을 성화된 성품으로 이겨내지 못해

패배자,또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과장하에

사단이 주는 생각에 동참했다는 것에..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내가 그 기대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때 내 스스로 괴로움을 느낀다.

평안을 얻을수가 없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다.

하루를 살아도 평안을 얻는 삶이

나의 삶의 의미이며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삶의 목적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한다.

결국 ..

사람이 평안을 얻으며 사는 삶이

즐거운 삶이 아니던가?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부단한 성화과정을 통해 노력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삶의 고뇌와 괴로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을 지켜 마음에 죄를 짓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않는 것 같다.

나는 심는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강조하며 산다.

기독교는 그 진리를 헌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더 중점을 두며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삶에 더 무게를 둔 해석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선택것을 심고

사랑을 심고

배려를 심고

인내를 심고

베풀고

용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이 되고

나중 좋은 열매의 수확으로 돌아올 것을 교회에서는 강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하는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 강조하지 않길 바란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없는사람...천차 만별이다.

물질 해석에 있어서도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다라고 성도들에게 해석하고 설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런 아이러니하고 불확실하고 위험한 발언은

제발 목사님들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메세지가 아니라고 난 생각한다.

인간은 늘 성찰과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고뇌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닮은 선한 인성과 성품을 가지고
자신의 삶 가운데 분별있는 생각과 삶 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혹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뭔가가 세상사람들과는 틀리는 마음의 기준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신이 가진 달란트 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혹...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어
내 형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물질로 도울 수 있을 것이고
물질이 없어..마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따뜻한 마음을 심으면 되는 것이다.

말 한마디라도
상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은 삼가하고
상대 마음속에 들어있는 선악의 마음중에
선한 마음을 이끌어내고 사랑의 마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입술과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악한 마음을 이끌어 내어 분노하게 만들고
악한 것을 발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악한 그리스도인들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 벌써부터 귀경길 전쟁이 시작된 것 같다.
아침에 감기기운이 있어 목소리도 이상하고 코도 막히고...
어제..가벼운 가족점퍼를 입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서
너무 추워서 바로 택시를 타고 왔었는데...

비염이 있는데다가..나는 매일 감기하고 친한 듯 하다.
보약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싶기도 하고

아침9시쯤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다.
형님~ 바쁘시죠? 사람들 많아요??

어...그렇지만 추석때보다 못하지.

형님,,,제가 안가도 되겠어요?

목소리 들어보니 감기도 걸렸구만~

네...일주일내내..직장일로 피곤해요

아참..형님...제 친정집에 또 과일 보내셨다면서요?

맨날 형님에게 면목이 없네요 언제 이 은혜를 다 갚아야 할지.모르겠습니다.

과일장사를 하고 있으니 보내는거야

아뭇튼 저희집에도 과일 보내주시고 시골에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피곤해서 못갈 것 같습니다..괜찮겠습니까?

그래 괜찮아....약은 먹은거야? 병원에라도 가봐~~

네..알았어요 형님...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다.

사실 피곤하다.
토요일은 쉬고 싶은 생각이 꿀떡같다.

집안 청소를 했다.

시간많은 아이들은 청소를 못해서 못하고
나는 항상 시간에 쫓겨서 청소를 못하고....
신랑은 오로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을뿐
집에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쓴다.

난 깔끔하고 깨끗한게 좋다
그런데 가족들이 그렇게 깔끔한 성격들이 아니다.
그래서 늘 난 잔소리를 한다....정리정돈해라.
쓸어라~ 치워라~ 과자봉지 분리수거해라~ 양말이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나?
잠바 걸어라~ 예휴.....지겨워

아이들을 깨워...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켰다.

사실 아이들이 할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구..
안해봐서 못하는거다.
뭐든 직접 해 보고 경험해 보는 것이 학습의 효과가 가장 크듯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주 시켜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안시키면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아이들로 자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집안을 쓸고 닦고 정리하고 나니 얼마나 깨끗한가?

오후에는 아는 동생이 운동하러 가자고 했다.

내 차..어제 굼혀서 조금 찌그러지고 엉망이라서.
그런 차 몰고 가기 싫다.

니가 와서 나좀 데려가라 했더니..
알았다면서 데리로 왔다. 그래서 함께 체육관가서 운동을 하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저녁밥을 해 먹고.
일찍 온다던 신랑,,,현금박치기 일 생겼다면느 늦는다고 전화가 왔다.

일찍 와서 할인마트에 가자고 약속했는데..

내일이 우리 아들 10번째 생일이다.

그래서 미역국도 끓여주어야 하고 선물도 사줄려고 했는데
신랑이 늦게 온다고 하니....

첻....
똥차가 된 차 운전하고 싶지 않지만.
아들 옆좌석에 태우고
홈플러스 할인마트에 갔다.

여기저기 쇼핑을 하다가..
속옷에 눈길이 머물렀다.

시누이와 고모부 선물을 사주고 싶었다.

가장 비싸고 섹시한 걸로 신랑 각시 셀트로 한셀트 사서 포장했다.

맨날 과일 공짜로 얻어먹고....것도 부족해서
알아서 시골에도 보내주고....
면목이 없어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얼른 내가 잘되서..
오히려 내가 더 주고 싶은데..
내 처지가 그게 아니니...

마음에 선물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샀다.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즐겁다.
아이들 고모와 고모부도 선물을 받고 마음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내일은 시골을 가자고 할 참이다.

부모님 살아계실때...
잘 섬겨야지....

너무 안찾아가는것도 불효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교육차원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잘 하지 못하고 있다.

몇일전에 여동생 시어머님 돌아가실적에
친정어머님께서 올라오셨다.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만나...

엄마는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라고 말했다.

멀리있어도 살아계심 자체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 정신적인 지주역활을 하고 계신다.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늘..엄마 아빠가 살아계셔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

엄마..아빠..오래 오래..건강하게 장수하시다...

하늘에서 부르는 그날..평안하게 가세요~

우리반에서 젤 말썽꾸러기 민호 어머님께서
명절이라고 커피셀트를 선물로 보내셨다.
민호가 밝아지는 모습이 너무 고맙다나....
예쁜 카드까지 동봉해서 보내셨다.
참 고마웠다.

양말도 몇가지 들어오고...

옆반 아가씨 쌤은
아이들에게 예쁜포장지를 만들어서 과자를 선물했다.

난...
생각도 못했는데....나중 참고해야할 상황 같다.

아랫반 쌤도 양말을 선물로 주었다.
뭐야~~ 난 맨날 받기만 하고 생각자체를 못하고 있었으니...
미안내...

오늘도 컴터작업을 오래토록 했다.
28일까지 휴무라고 해 놓고... 국공립서류준비때문에 그날 오후 2시에 출근하란다..
에구.~~

그러면서
원장쌤님이 봉투를 하나 주셨다.
10만원이 들어 있었다.
선생님들 일 시켜먹을려니...그거라도 줘서...불만을 없애는 의도라고
생각이 든다.

하도 추워서 오늘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
차가 밀려서 택시비가 택도 없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도로에 돈을 깔고 오는 느낌이 들어...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 약속이 있었는데 차도 밀리고....마음 한켠에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약속한 사람에게 체육관에 올거냐고 물으니 벌써 가고 있다고 했다.

안간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가자 생각하고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왔는데

차가 너무 밀렸다.

끼여주지도 않고....

앞에 버스와 택시가 접촉사고가 나서...차선이 줄어들었다.

어쩔수 없이 끼여들기를 해야할 판인데...

뒤에서 양보를 잘 안해주었다.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밀어붙였더니.

뒤에서 뺑뺑 거렸다.

급한 마음에 핸들을 꺾었는데...

멈춰있는 버스 범퍼를 끌고 나가게 되었다.

얼릉...핸들을 돌려차를 세웠고....

버스쪽에 가보았다.

안그래도 버스하고 택시하고 접촉사고가 나서 서로 해결점을 찾고 있는 터에

버스 범퍼는 까만 색이 벗겨지고 ..특별히 구겨지고 그런건 없었다.

아저씨..범퍼 가면 얼마예요? 12만원이라고 했다.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이래저래 댔다면서...

어떻게 할까? 하니.

돈 주고 그냥 해결하라고 했다. 그래서...아까 원장님이 준 돈 10만원을...

아저씨 그냥 10만원만 드리면 안돼요? 라고 했더니.

그리합시다 해서 10만원 드리고 해결했는데....

내 차를 보는 순간....

에구~~

운전석 옆자석 문짝부터 긁혀 엉덩이부분까지 긁혀 있었다.

긁혀 있는 부분은 스프레이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운전석 옆자석 본넷트와 문 중간사이가 썩 들어가서

차문을 열려니 뽕그덕 소리가 나는 것이다.

정말 속이 상하네...

신랑은 그냥 운동갔다 오라고 했는데

도저히 저런 차를 끌고 창피해서 못 갈 것 같아서

집으로 왔고 주차장에 주차해서 차근차근 살펴보았다.

카센타도 명절지내로 갔을건데..

고치지도 못하고 이 차를 끌고 다녀야 한다니...

마음 엄청 अच्छ네

워낙 깨끗한 새차를

헌차 만든 느낌이 들어서...기분이 अच्छ았다.

주차장에서 30분동안 여기저기 살펴보았다.

30만원쯤 나올 듯 하기도 하다.

운전을 하다보면..접촉사고야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어이 없이...사고를 냈으니...

이제 접촉사고 졸업할 때도 됐구만....

아가씨때 4건의 접촉사고를 냈으면 됐지..

아뿔튼....더욱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비뿔수록 더 천천히 운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았다.

 정신없는 하루이다.

국,공립 서류를 만드는데.. 원장님께서 컴터 막히면 나를 불러 내렸다.
수업하다가도 가봐야 하고 수업 마치고도 봐줘야하고..

어제도 몇시간을 컴터로 문서를 작성해 주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에 모래알 들어간것처럼 까끌거렸다..
피곤하네 그려.

아뭇튼 오늘까지 컴터 작업은 끝냈다.
이제 볼펜으로 글을 쓰는 문서작성만 남았는데
오늘은 약속이 있어...
혹,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할 거라 가방에 챙겼다.

오늘은 방송대 동아리 그리스도군사 모임이 있는 날이다.
카페에서만 알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기대감 반 쑥스러움 반...느낌이 들었다.

많은 수가 모이지는 않았다..6명
회장님 부회장님..그리고 몇몇 임원
여자는 나하고 다른분 한분....

활성화가 안되어서..침체되어 있는 그리스도군사 동아리...

이제 우리가 모여서..일을 하고자 한다.

서로 모이기를 힘써 활동하고 홍보하여
활성화를 시키자는 목적이다.

모두 만나니..참 좋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주장이 없다.....
모두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세상사람들 인격하고는 역시.뭔가 틀리는....
모두 좋은 사람들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함께 기대며 일으키며 가야할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어딜 가나 일복이 많은 나....
할줄아는게 너무 많은 탓에...
일복만 천지네...

저녁을 먹고...
각자 소개를 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신앙생활에 문제점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들었다.

한정식 집에서
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 커피를 한잔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였다.

3월이면.
오리엔테이션 행사와 입학식이 있다.
전단지를 준비하고 그날 활동해야 하는 계획까지..
큰 틀을 짰다.

예고 좀 쉼려고 했더니...
이내 또 일이 생기네.

카페 운영자까지 해 달라고 하니...

다들 컵을 잘 못 만져서...
어쩔수 없이...또 운영자를 해야할 것 같다...

오늘 어떤 형제님이
오늘 만남을 기념하는 뜻에서 모두에게 선물을 사오셨다.
수면양말 이라고 했다

보들보들 한게...

아기 피부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음이 참 고마웠다.
작은 만남도..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아름다워 보였다.

아뭇튼 내 인생이....
나도 모르는 계획속에 어찌 어찌...짜여지고 있는 것 같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또 뭔가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궁금하다.

새벽특송 때문에 4시30분에 일어나 대충 세수하고 옷무새를 다듬고
교회를 갔다.

회원6명인데..이 새벽에..과연 몇명 나올까?
한명도 안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다.

다행히 1명....나까지 2명...
앞에 나가서 2명에서 특송을 불렀다.
근대...왜 이리 떨리는지..다리가 후들 후들.

이상하네....잘 떨지 않는데...별일이네 싶었다.
회원들이 야속했다.
작년 이맘때도 새벽에 특송이 있어...피곤해도 눈이 떠지 않아도
동참해 주었는데....
내가 회장할때는 이렇게 동참도 안해주고....
회장으로써 체면 안서네...

오전에 전화가 왔다.
그동안 운동하고 싶어서 어떻게 견뎌냐고..
동호회 함께 어울리는 동갑내가 남자가 전화를 했다.
안그래도 오후에 운동갈려고 생각중이라고 했다.
당장 금정구 금정 체육관으로 넘어가자고 했다.

할일이 있다고...어린이집 1년치 사진을 현상하러 가야한다고 했고
자기네들끼리 치고 오후에 대저체육관에서 만나자고 했다.

덕천동에 가서
사진을 현상했다.
현상료만 10만원 육박...ㅎ
원장님이 어제 11시 넘어서 ..일 너무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고
마음에 걸린다면서 문자를 주셨다.
아뭏튼 고생한 만큼 국공립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을 넣어주었다.

아침에 원장님 문자와서 사진현상 부탁한다고...
그래서 하고 있다고..이래저래 사람도 많고
현상할 사진장수도 확인해야하는등...시간이 많이 걸리네요.했더니.

미안하다면서....그리고 고맙다면서 문자가 왔다.

1시간정도 덕천동에서 소비하고
집에와서 팔 걷어 부치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했다.
이불빨래도 하고...
2시간을 한 것 같다...몸에 피로가 왔다.

점심 먹고 차를 몰고 체육관으로 향했다...4시 다 되어서..

오랜만에 체육관에 갔더니..
다들...종아라..했다.

내기 게임을 했다.
상대는 남자 2명
내 팀은 남자와 나....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항상 다시 도전을 해 왔다.
돼지국밥 내기를 했고.
3판2승..
2게임 연속해서 이겨....게임마치고 국밥을 먹으러 갔다.
남자 3명에 여자 나 혼자.ㅋㅋㅋ

국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봄 되면 어디 놀러가자는 등~~

국밥을 먹고 서로 헤어졌다.

내일 예배 마치고 체육관에 가봐야 할 듯 하다.

아는 여동생이...복식게임에서
상황에 따른 자리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
필기도구 가져오면 가르쳐 주겠다고 했더니.
내일 꼭 오세요~~ 하는 것이었다.

오늘의 동료가 내일은 적이 될 수 있다???

우리 원에 국.공립서류넣고 환경정리부터 서류정리까지 할 일들이 많아서
매일 늦게 남아서 일을 해 왔다.

이제 거의 큰 일들은 다 해결했고
잔잔한 일들만 남았고 각 반 선생님이 알아서 할 일들이었다.
그래서 될 수 있음 저녁에 남지 않고 낮에 톼툼히 일을 나는 하고 있다.

그런데 웃긴것이. 있다.
3시가 넘으면 선생님들끼리 오늘 저녁에 남아서 할 일 있냐며 묻는것이
습관이다.
물론 나는 묻지 않는다.
일이 있으면 남고 없으면 가는 것 아닌가?

선생님들은 될 수 있음 남지 말자는 것이다.
누가 남고 싶은 사람 어딴다고??....

혹, 내가 일이 있어 조금 늦게 가게 되면.
그 다음날은...선생님 몇시까지 하셔요? 의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며
묻는다.
그 이유는.

원장선생님 눈에 늦게 남아 일하는 사람은 좋아보이고
그냥 퇴근하는 사람은 찍힌다는 이유로..ㅎ

영아반 선생님이 계신다.
영아반을 하게 된지 몇개월밖에 안되서
환경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공립서류 넣은 후...
하나부터 할려니 할일들이 너무 많아진 것이다.

그런데 영아반 선생님은 그냥 말없이 자근자근 하시면 될 것인데
숨씨는 없고 할 것은 많고 늘 입에 달고 걱정을 하는 것이다.
과거 원 운영까지 해 보셨다는 원장님 아닌가?
경력만 해도 10년이 넘어가면서 환경정리하시는데 엄청 겁을 내셨고
걱정을 하셨다.

난..경력도 없는데..

그냥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 나름대로 구상하고 준비를 해서

말없이 한다.

다른선생님들이 나보고..시원시원하다고 한다 말없이 일도 잘한다고...

아뭏튼 영아반 선생님은 남아서 일을 매일 하셨다.

같이 남을때야...문제가 없는데..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다른선생님들 퇴근하면

원장님 눈에 어떻게 비치겠냐는 것이다.

나는, 이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일이 없으면 가는 것이고 있으면 남아서 할 수 도 있는 것이지...

일찍 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할일도 나두고 갈순 없는 거 아닌가?

아랫반 사랑반 선생님과 6,7세 기쁨반 선생님은 엄청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해석을 하신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민감한 반응 같은데...여자들이라 초암네..~

그래서 뒤에서 영아반 선생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나에게도 몇번 말을 했었다 영아반 선생님이 홀로 남아서 일을 하기때문에

원장님 보시기에 우리를 예쁘게 안보신다는 등.어쩐다는등~...

그래서, 그야 일이 있으면 남을 수도 있고 없으면 갈 수도 잇는 것이죠~

있는데 그냥 갈 순 없잖아요~..

글고 시간이 되면 같이 도와서 하면 좋지요.

작년에 기말과 재롱발표회를 두고 내가 준비해야할 일들이

많았고 바빴었다.

그때 영아반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어서 너무 고마웠고

따로 상품권을 한장 사서 고마움을 표시했었다.

나도 내 일만 하다보니 나만 생각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영아반 선생님 예전에 나 많이 도와주었는데..난 미처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나중 도와드려야겠네요 라고 말을 했다.

영아반 선생님만 모른다.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사실을..

에휴...

혹 내가 실수라도 하게되면

이념의 여자들이 모여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거 아녀?~~

열심히 잘하는 미소반 선생님 험담하는거 보니.
그리고도 남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씩을것들...~

아니 지들은 도대체 뭘 얼마나 잘하고 완벽하냐?
누군 말 못해서 안하고 있나?
다....심은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왜들 모르셔~

기쁨반샘과 사랑반 샘님에게...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것도 아닌일도..크게 부각시켜
꼭 무슨일이 일어난 것처럼 해석하고 호들갑이라~`
밴댕이속알머리..
속이 생기다 말았나~
아뭏튼 인격수양들을 좀 많이 좀 하셔야겠네~

피곤의 연속이다.

피곤하니까 더 쉽게 짜증을 내는 것 같다.

우리반 아이들도 새해가 되고 나이가 한살 더 먹어가니까...

더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에너지가 넘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늘 하는 말 있다.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내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산만한 아이를 잘 다루지 못한다.

그래서 맘적으로 사실 힘이 든다.

그래도 뭐...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지 않는가?....

경험이 쌓여 노련미가 있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프로가 되지 않겠는가?

과정없이....되는것이 어딴다고...

우리반에 가장 골통...창근이란 아이가 있다.

올해 나는 3세나 4세를 맡을 계획으로 되어 있다.

창근이가 6세 올라 가는데..

이 아이를 안맡은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무기력하고 인지능력도 평범한 아이들보다 떨어지고

스스로 할려는 적극성도 떨어지고....

손이 많이 가는 아이이고

수업시간에도 교구를 만지거나, 개인행동을 해서...

분위기를 흐트러 놓는다.

아가씨 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맡게 되겠지...

아가씨 선생님이 시집도 안가보고

아기도 안낳아봤는데..

저런 아이를 어떻게 다룰것인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방법으로 다루겠지...

아가씨들이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신이 낳아보지 않고 길러보지 않는한...
가슴깊이 사랑하지는 않는다.

단지 교사와 아이로써 이빠할 뿐이다.

우리원에 있는 선생님들을 죄다 보아도.
가슴깊이 아이를 사랑하고 품는 선생님은.
나혼자 밖에 없어 보인다.

우는 아이. 속상해하는 아이를 가슴깊이
안아주고 달래주고 위로해 주고 눈물을 닦아
주는 행동을 다른선생님한테서는 보질 못했다.

그냥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일뿐이고
남의 아이이며 교사는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시키고
교육시키는 목적외에는 없는 것이다.

우리반 아이들이...
유독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엄마처럼 포근히 안아주고 야단칠때는 치지만..
울고 있는 아이를 그냥 보지 못해..안아주고 눈물도 닦아주면
아이들은 눈물을 툭 그치고 다시 밝은 표정이 된다.

가장 산만했던
민호라는 아이때문에 처음에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유독 선생님을 좋아한다
이유는 모르겠다.
어찌되었던 나도 그 아이가 참 좋다.

민호라는 아이는....
활동하다가도
내 볼에 살짝 뽀뽀하고 도망간다.
물론 민호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그리한다.

2월26일이면 행복반선생님으로 마지막이 될 것이다.
각자 다른원에 가는 아이도 절반이상이 된다.

특히 민호라는 아이가 눈에 많이 밟힐 것 같다.

내 머리속에 엄청 말 안듣고 뺨질거리는 아이로
기억하고 있지만.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이로도 기억하고 있다.

보고싶을 것 같다...특히 민호가...

어제 전기장판의 온도를 끄고 잤더니
새벽녘에 추워서 잠을 설쳤다
그래서 아침에 엄청 피곤하다.

아이들과 바람개비를 만들어 놀았고
오후에는 게임을 했다.
우리반애들은 게임을 너무 너무 좋아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도 재밌다고 했다.

게임을 하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재밌지 않는가?
벌칙으로 엉덩이로 이름쓰기, 꿀밤맞기, 귀잡고 토끼뿔 5번...

게임을 다 끝내고
집에서 비타민 C 열개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었다.

사탕처럼..까먹는 비타민 C
음...괜찮은 보상같다..몸도 튼튼해지고 ㅎㅎ

피곤하다...

토요일도 근무하고 오늘도 10시까지 근무를 하였다.
그님의 국,공립이 뭐길래~ 교사들을 잡네 그래.

어제는 유아전문사이트에 들어가
교사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보고 있노라니.
속이 천물이 나서.....

최저 임금이 92만원인데...
난 그것도 못받고 있으니..
아~...짜증나네~

일은 엄청 많이 시키면서...

4년제 대학 나오면...
기본월급이 2년제 나온 교사보다 높다고 한다.

그래 2년후에..보자...

어제 차 수리 다 끝났다고 가져가라고 했었다.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9시까지 출근을 해서 4시까지
근무를 해야했다.

국,공립 서류 넣고 난 후..각 반에 환경정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비공장이 3시에 근무를 마친다고 하니...

어떡하나..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찍 정비공장 가서 차를 찾아서 바로 출근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정비공장 사장님하고 통화해서 차를 인수 받았고..

바로 어린이집으로 출근을 하였다.

하루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환경판을 만들었다.

나중 다 완성하면 사진찍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루종일 쪼그리고 앉아 일을 해서

허리가 아팠다.

나도 모르게 아이고 허리야~~

자세가 좋지 않으면 나는 허리가 아프다...

4시에 마치고 집으로 왔다.

수리한다고 곁에는 새것처럼 깨끗했지만

차 안에는 얼룩이 묻어 있고..먼지도 많고 해서 걸레를 가지고
닦았다.

내 차를 처음으로 닦아봤다.

수리해 놓으니까...다시 새차가 되었다.

흰색이다보니..

너무 깨끗하다.

교회 청소 당번인줄 알았더니...아니라고 했다.

무얼할까? 생각하다..

운동하러 가야겠다고 생각...

저번에 접촉사고때문에...

약간의 두려움이 없지않아 있다.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신랑차 타고 다니면서...학습되었던것 중

끼여들기 할때..먼저 집어 넣고 본다, 앞지르기할때...

뒷차보다 속도를 더 많이 내면서 차선을 변경해야한다 등등...

이러한 말들을 늘 들어와서 나름대로 학습이 된 모양인지.

내가 운전할때 나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자꾸만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근대 이제는 학습된 모든 정보를 버릴려고 한다.

그냥 편하게 좀 느려도....조심해서 다녀야겠다는 생각만이 자리 잡고 있다.

성급하면....꼭 문제가 발생한다는 과정을 두고

신호등도 잘 지키고 차선 변경할때도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체육관에 갔다가 몇게임 하고 나니

허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저녁되니..기온이 엄청 떨어지고 바람도 차가웠다.

집에 가서 쉬고 싶어서

일찍 왔다..

피곤하다.

 비가 오는 늦은 저녁이다..

영화를 보러 갈까 하다가..

아이들이 안간다고 해서

그냥 운동을 갔다.

이제 운동할 날도 얼마남지 않았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토요일 전수식행사와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이 겹쳐서..

난감했다.

안그래도 선생님 나까지 3분밖에 안계시는데

내가 빠져버리면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나 싶기도 하고...

예구..전수식 참석못하겠다 생각하고

행사 끝나면 26대 총학생회 임원들과 모여서 점심이나 할 수 있겠다 싶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기도를 했다.

이러이러해서...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리고 나서 원장샘님께 토요일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1빠로 행복반 어머님들과 면담하고 빨리 가라고 했다.

10시 에 시작해서 10시 40분까지 하고 가라는것이다..

고마워라...

아뭇튼 작은일에도 기도를 해야되...

6.7세 아가씨 샘님이 안구해져서...

당분간 내가 말아야 할 듯 하다.

월급을 많이 주면 오지.

월급을 많이 안주고..

노동력을 너무 많이 착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나와 다른 선생님들 생각이다.

정당하게 일시키고 깔끔하게 지불하면

서로 마음이 편할텐데...

조금주고 많이 시킬려니.
서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런 관계를 만들까?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다.

마인드가 커야 하는데

작으면 작은것에 안절부절....
아물튼...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래또 어린이집 쌤들 월급이..
다른 어린이집보다 작다.

물론 나도 작다..하는일에 비해서..

6,7세 맡고 있는 5 년차 선생님이 현재 100만원을 받고 있다고
얼마전에 알았다.

난 깜짝 놀랐다.
너무 작은월급이기때문이다.

그러니..
그게 기준이 되다보니..
1년차..2년차..제대로 인정해 주겠나?
하물며 이제 6개월밖에 안된 나에게..푸하하하....나원참...

너무했다..경력 5년차 쌤들을..
100만원을 주다니..

못해도 120은 줘야 맞지....

물리적인 환경이 좋나?
그런다고 월급을 많이 주나?
뭐...내세울 것도 없구만...

선생님들이 아줌마들이라서..
적은 월급이지만.
그냥 노느니 염불한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것이지..

제대로 돈 벌려고 하면
다른데 가는게 현명하지...

이번에도 나는 파트타임으로 해 달라고 했다.

아침에 8시 까지 출근해서 6시 30분까지 퇴근해야 정상이다.

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야 출근이 가능하기때문에
정교사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기때문에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일찍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대 사실.
이번에 영아반 맡기로 했는데
영아반이 보통 힘이 드나?
아이들 다 보내고 ...내 할일 다 끝내고 해도 5시전이다.
그러면 교사로서 업무를 다 보고 마치는 것임에도
파트월급을 주는 것이다..(정식교사와 월급차이가 많이 난다.
사실 일은 똑같이 하면서....어쩌면 영아반이 더 힘이드는데...)

정말 불공평하다.

그래서 좀 짜증난다.

일을하면서도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왜냐고?

억울하니까?

할것 다 하고 파트라는 이유로 월급차이가 나니까...

신입생 오티가 언제 하는지 몰라서...

방송대 홈페이지에 우연찮게 들어가서 과목 변경을 하였다.

이번에 평점 3.5가 나와서 7과목을 선택할 수 자격이 생겼지만...

너무 힘이 들까봐 6과목 그대로 할 생각이였다.

다시 생각해 보니..7과목을 선택해서.

빨리 학점을 따는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빨리 학점따서 졸업조건을 마추어 놓는 것이 지혜로울 듯 하다.

나는 될 수 있음 장학금을 받으려는 계획을 잡고 있었고

장학금을 받으려면 한과목이라도 거의 완전하게 소화를 시켜야..

가능해지기 때문이고 6과목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6과목 그대로 할려는 계획이였다.

그런데...그냥 조금 더 열심히 하고 7과목을 무리없이 패스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되고 왠지 많은 시간과 부담이 가는 1과목을

변경했다.

내가 변경한 과목은 유아교육과 과목인데

내 직업과 관련이 아주 많다...변경한 과목과 추가한 과목이 모두 유아교육과 과목이라 다시 책을 구입해야하는데 2과목중 1과목 책값이 2만원 가까이 되서 심히 놀랍다...에구.하필이면 비싼 책 과목을 선택했다나...중얼중얼!!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업과 연관시켜 더욱 전문성을 견고히 다지고

또 작년에 신라대에서 공부를 했기때문에 공부하는데는 유리한 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다.

아뭏튼 7과목인데 장학금 까지는 욕심을 내지 않겠다.

요즘 나의 머리속에...

장사를 한번 해 볼까..하는 아이템이 하나 생겼다.

내가 어렸을때..

아빠는 매일 꿀단지에서 무엇을 한순갈씩 떠 드셨다.

그게 원지 궁금했는데

바로 마늘을 빵아서 꿀에 숙성시킨 것이였다.

3개월전에.

나도 신랑 해 줄거라고 마늘까서 빵아 꿀고 함께 단지에 넣고

숙성시키는데중이다.

2년을 숙성시킨 다음 먹으면 된다고 한다.

이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마늘을 산지에서 사와서...기계로 까고..빵고

꿀도....산지에서 싸게 사올수 있음 사서..

매일 단지에 킬로로 담아서 숙성시켜 팔면 어떨까?

사실 마늘이 몸에 항암작용을 하는거..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근대 막상 해 먹으려고 하면 만들어서 숙성시키는데 2년이란 세월이 걸리기때문에

당장 먹을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엄마의 지혜로움 때문에 아빠가 올해 칠순이 넘어가셨는데도

이도 빠지지 않으셨고 안경도 쓰지 않을만큼 건강하시는거 아닌가 싶다.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보통 마늘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꿀과 섞으면 바로 먹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드신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살짝 데치면 아무래도 마늘에 들어 있는 항암성분이 파괴될 것 같다.

고기를 먹을때도 우린 생마늘을 먹는다.

데친것보다 생마늘이 좋기때문이며 약효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일단, 좀, 더 마늘에 대해서 효능을 알아본 뒤....

정말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인터넷 판매와 홍보를 잘 한다면

정말 잘 팔릴것 같다.

왜냐하면...

요즘은 건강을 제 1순위로 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닌것이다.

여유만 되면...다들 건강을 챙기기때문에..
분명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다..

차분한 마음으로....그렇지만 썩 상쾌한 기분은 아닌.마음으로
머리속에는 영아반을 맡은것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되서....
어지러웠다.

아이들과 이렇게 저렇게...이야기나누기도 하고 활동지도 하고
게임도 하고...하루를 잘 보냈고 근무는 끝났다.

종일..영아반 근무가 나에게 어떤 점이 유리할까? 계속 생각했었다.

그리고 오후에 결정을 내렸다.
다른선생님들께 말했다.
이제는 영아반에 대해서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영아반을 맡을 것이며,
제가 파트로 해야할지...올 근무를 해야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겨려주셨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다.

영아반을 맡으면

좋은점...첫째..수업준비를 안해도 된다.

둘째 영아반은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특별히 늦게까지 근무 안해도 된다...설마 어린아기를 늦게까지

맡기는 부모는 적을테니까...

넷째: 교구 교재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다섯째: 소풍이나 견학을 안가니..밖에 나가서 사고날 확률이 없다

(다치거나 사고생기면..교사로써 책임이 크다)

가장 나에게 유리한 점은...늦게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별로 맘에 안든점 첫째: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은데 영아반은

그럴단계가 아니라 재미없다.

둘째: 똥 기저귀 갈아야 되고 안아줘야되고 육체적으로

힘이 좀 들것이고 영아들은 눈을 떴을 수가 없다

셋째: 소풍이나 견학으로 밖을 나갈 수가 없다...

넷째: 조금 일찍 마친다는 조건으로 급료를 적게 줄 가능성이 많다(사실 영아반은 무척 힘이 든다...교사 1명에 3

명의 영아를 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개월수에 따라...힘이 덜 들고 더 많이 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 보았고..

현재 내가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는부분이..늦게까지 일안하도 된다는 것이다.

학생이기때문에....내가 마음을 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다.

아직은 영아가 한명도 없다.

앞으로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원장샘님이 나름대로 나를 배려한 것 같다.

안그래도 살짝이 물어보았었다..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좀 일찍 마쳐주면 감사지요 다른선생님들께 방해만 안된다면....

그랬더니...선생님은 공부를 하시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이 일찍 가셔야겠네요 라고 했었다.

큰 아이들을 맡게 되면...

수업준비부터 마지막까지...아이들 보내고 나면..

5시에 마칠수가 없다.

현재 내가 행복반 근무시간이 5시까지이지만.

일일 일지까지 다 적고 청소하고...아이들 보내고 나면 5시 30분 퇴근이 됐었다.

영아반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내가 공부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장샘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하신 것 같았다.

그리고 원장샘님이 컵을 잘 못해서..

바로 원장실 옆에 영아반이 있어서

나를 불러내어 도움받기가 유리하다.

현재 내가 2층에 있어서..나를 필요로 하면.

인터폰을 해서 불러내려야했고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구 자꾸 불러 내릴려면

원장님도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졌었다.

수업중에도 원장님이 부르면 내려가봐야하고.

보조선생님께 내 반 맡기고 컵으로 서류하는거 도와드려야했었다..

이래저래....

장점을 부각시키니까 마음이 편하고

어찌보니까 원장샘님 마음이 고마워졌다.

원장샘님도 이번에 신라대 대학원에 진학하셨다.

함께 공부하는 학도로써..공감대는 분명히 형성될 것이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다.

어느새...나도 경력이 생겼다고 마음이 높아져서

급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을 가졌던 마음을 낮춰본다.

그래....학생이니까...직업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는다.

마음이 심란하다.

원장샘 갑자기...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선포를 했기 때문이다.

3,4세 선생님은 그대로 4,5세 아이들을 데리고 행복반으로

영아반 선생님은 지금 가르치는 1,2세 아이들을 그대로 데리고 3세반으로...

6,7세반은 새로올 아가씨 선생님이 맡을 것이고 ...

나는 영아반으로...

할~~

기존에 가르쳤던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좋다는 원장선생님 생각이다. 모르지 어머니들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갑자기 마음이 심란해졌다.

왜냐하면 영아반은 너무 힘이 들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

한달에 두번 나가는 견학도 못하고 소풍도 못하고..

무슨 낙으로근무를 하나?.....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뭐라...주장도 못하겠고....

갑자기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는 것이....

그래서 운동을 갔다.

그냥 심란한 마음을...어찌할수가 없어서...

영아반을 맡으면 무엇이 좋을까?

곰곰히 생각을 해 보았고...

안좋은 점은 무엇일까?.....

그나마 견학이나 소풍으로 밖에 나가서.

나름대로 답답함을 없었는데...

영아는 그런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싫고...영아는 힘이 들고..
또 재미도 없을 것 같다...

원장쌤님도 너무하네...

아니 이렇게 저렇게 할 계획인데
쌤님 생각들은 어떠신가요?
라고 먼저 ..물어봐야 과정이 아닌가?

근대 그런거 하나도 없고.
오늘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선포식으로 말하다니...
참,,,사람 경영 잘 못하네....

그래서 경영을 공부해야한다고 하지 않는가?

짜증나네...

아침에 분주하지만 출근하는게 좋다.
지하철을 타면서 사람들도 구경하고...

아침에 차량 돌면서 원장님 하신말씀..
아가씨 선생님 한명만 구할거예요~~
왜요?
2명 구하기로 했잖아요
잘 안구해지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지??
6,7세반은 새로올 아가씨 쌤이 맡을것이고...
영아반은 그대로 영아반 선생님이 ..
3,4세 반은 나하고 사랑반 쌤님하고 같이 맡기로 했고
5세는 누가 맡노?

...아가씨 쌤님을 한분만 구하신다면..
예상컨대...내가 4,5세를 맡을 가능성이 있을 듯 예상을 해 본다.

5세도 아니구 4,5세 반을 합반 만들어 놓으면...
글쎄....많이 힘들것 같기도 하고...

아직 결정이 안난 상황이지만....
큰 이변이 없는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하다.

우리반 친구 민호 어머님께서 아기를 낳으셨다.
민호 동생을 오늘 낳으셨고.
민호는 오늘로 지막 또래또 어린이집을 온 것이다.

어머님은 산후 조리때문에...
민호는 외할머니댁에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오늘로써 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젤..장난꾸러기...그렇지만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입술에 뽀뽀도 여러번 해 주고 안아주었다.
아쉽네~

오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 와서 운동을 갔다.
교회도 안가고....
오랜만에 나에게 여유있는 시간이기때문에.
교회갈까? 운동갈까? 갈등하다가...
근냥 운동을 간 것이다.

나는 운동이 좋다.
뛰고 땀흘리고..하는 것이...

사실 마음이 힘들때..
체육관에서 내 몸을 혹사시킨다.
좋은 방법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잊고 싶은 일이 있으면.
미친듯이 뛴다...

오늘 게임을 하는데..
뒤에서 남자분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란씨~~ 그냥 남자해...
여자가 여자같아야 말이지..ㅋㅋ
남자처럼 날렵하고 빠르고 잘한다는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했다.

오늘은 잠시도 쉬지 않고 게임을 했다
한번 잡아달라는 사람들이...줄을 섰다.

뒤에서 어떤 남자분...왠...
인기가 폭발이네...ㅋㅋ

....

인기고 뭐시고 나는 그런것에 관여하지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다.

그냥....
뛰는 것이 좋을뿐이다...
서로 웃고..긴장하고..이러한 것들이 좋을뿐이다.

종일 피곤했다.

감기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다음주면 가입학식과 졸업식이 있기때문에

그동안 모아왔던 사진과 활동지..그리고 아동의 발달상황표도 작성해서

보내야하기에 일이 ..소소히 많다.

발달상황표는...

초등학교로 보면 성적표와 같다.

출,결석 정서, 인지..탐색,수리 사회관계.. 등등으로 구분되어서 ...잘한다 중간..못한다...등으로 나눠 체크해서 부모님께 드린다.

다 하지는 못했다. 내일 해야지.

오늘 재롱발표회 비디오가 나왔다.

나도 2만원 주고,.DVD 구입해서 집에 와서 컴퓨터로 봤다.

감회가 새롭다.

썩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행복반 아이들이 고맙다....소소히 감동도 밀려오고...

아이들이 율동할때 나는 학부모석에 가서 율동을 해 주었는데

그 동작이 어찌나 컸던지....

비디오를 보고 알았다. ㅎ

아이들 율동가르칠때는 오바를 해야한다.

최대한 동작을 크게 해서 가르쳐야 아이들 동작이 그나마 크게 나온다는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오바를 해 가면서 몸을 흔들고 그러는 것이지만.

난 너무 힘이 넘쳤네....푸하하하...

특히 우리반 아이들의 영어..와 챗트...(수퍼마켓)에 나오는

아이들의 의상...이 끝내주었다.

나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였고....

하나하나 제스처를 내가 만들어 내서..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지금 보아도 너무 멋지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모든것이 새로워진다.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된다.

어린이집일은...

일이 있으면 남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도...일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공부도 해야하는데..... 파트로 뭘까? 보조로 뭘까? 어떡하면 일도 하고 시간을 벌어서 공부를 할까?....머리를 돌려보는데.

파트를 할려니 내 재능이 아깝고 보조로 뭘려니 자존심 상한다...

정 담임으로 한다고 이야기 되어 있긴 하지만....

예구 모르겠다..

일도 하고 새벽까지 공부도 하지 머~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아이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애들아~ 선생님과 너희들과 이제 만날 시간도 8일정도 밖에 없어
그 이후에는 4친구만 빼고 다들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갈거야~
그래서 함께 있는 동안에는 우리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자'
해 놓고....
이내 눈에 눈물이 고여왔다.

헤어진다는 것이..왜 이렇게 슬픈지...
선생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아이들이 보았다.
한 여자 아이가....바로 펄펄 울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노시윤이도 고개를 푹 떨구고....
슬픔을 애써 참고 있는 듯 했다.

다른 아이들도 얼굴이 다들 심각해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정이 깊게 들었나보다..
아이들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이상하게 아려온다...

내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고
아이들도 나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아이들 10명인데...
10명에게 물어도..
선생님이 좋아요~.... 다 그렇게 말한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바끼면 저는 집에 그냥 있을래요....~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일이..있을 수 있을까?

11월달에 아이들 맡아서 이제 4개월째인데...

이렇게 가슴이 아려서야....

1년을 맡았더라면...

정말 어쩔뻔했을까?

아마 마지막 날...

내가 올 것 같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눈에 눈물이 살그머니 고이고 있으니까...

원래 눈물도 많은데...

아이들을 가르친 후..더욱 마음이 여려져 버렸네...

내가 오히려 아이들때문에....

행복했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에

내가 오히려 동요되고 그 순수함에 내가 더 기쁨을 얻었던 것 같다...

오늘 점심시간에...

오이와 배 무침 반찬이 있었다.

아이들..선생님이 이거 너무 매워요~

난 맛있는데.....하고 대답했더니

선생님...이거 왜 이렇게 매워요??

글쎄.....오이무침한테 물어봐....그랬더니 (나의 대답도 유치하기 그지없는듯 ㅋㅋ)

선생님...오이가 입이 없잖아요

ㅋㅋㅋㅋ 박장대소..ㅎㅎ

맞네 ..오이가 입이 없으니까 말 못하네..ㅎㅎ

얼마전에..

여자 아이가 따뜻한 털 옷을 입고 왔었다..

누구누구야~ 옷 엄청 따뜻하겠다...그랬더니.

그 아이 왈...

양에 털 뽑아서 만들었대요

하하하하....

너무 재밌고..순수해서..

눈물이 난다....

아이들에게 선생님 전화번호라도 가르쳐 주고 싶다.

내일은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야겠다.

선생님 전화번호 가르쳐줄까???라고..

 비가 오는 날이네...

원장님이 상을 당하셔서..
재부하고 차량을 돌았다.
재부는 나보다 한살 작은 분이신데..
외국계열 보험회사를 다녔다.

전공이 식품영양학이라고 맥도날드 점장으로 7년을 다녔다고 한다..

오늘 하루종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고
보험이야기도 했다.

들어보면서..
마...내가 돈이 있으면 딱 하나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니..
돈이 없으니까....들어줄수도 없고.....

한사람 설득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정보를 주고 말을 하는 수고를
하는데 말이야...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내가 맡은 아이 중 한명은...구속없이 자란 야생마 같은 기질을 가진
꿀동이 한명이 있다.

오늘 처음으로 온 솔비라는 여자친구가 어찌나 울어대던지.

집에 가자고...신발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와서 ..빨리 엄마한테 가자고
2시간을 울고....어이구~`
안아주고 달래도...엄마한테 가야한다고....

2시간을 내리 울더니...지쳤는지....탐색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장난감을 만졌다.

그것도 신발도 신고,옷도 입은 상태에서..ㅎ

처음으로 엄마를 떨어져서 그러한 과정이 다 있기 마련이다.

내일이나 모래 시에서 국,공립 감사가 나온다는데.

교실을 확 바꾸고 교사들이 바꾸고 나니..

비상연락망부터..각 반의 서랍장, 신발장..책상...작품이름등..

모든것을 새롭게 해야할 상황이 생긴것이다..

내가 맡은 행복반은 사실 손떨게 없다.

그런데...

사랑반은....이것저것 모두 낡고 이쁘지도 않고.

맘 같아서는 모조리 새로 만들고 싶은 심정이다.

시간은 짧고...아이들은 뽀뽀 울어싸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점심시간인지....청소해야할 시간인지 갈시간인지

분간이 안갈정도로 분주했던 것 같다.

본격적으로 시에서 6명이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시작했다고 하니

내일이나 모래쯤 아마 들이닥칠 것 같다는 예상..

나름대로 서류를 다 준비한다고 했는데

오늘 점검받은 원의 정보에 의하면.

이것도 보더라...해서 부랴부랴 원장님...그 서류 확인해보니.

작성이 안된 상태라...

그래서 교사들 또 남아서..
작업하고...아이고 피곤해라~

통과되어 국,공립만 되면 좋으련만.
안되면 ..지금까지 노력이 허사가 되는것에 어찌 허망하지 않겠는가?

3세는 고함을 안질러 좋다.
행복반에 있을때는 조용한 말이 안먹혀..고함을 고래고래 질러야..
반응이 왔었고 꽤 힘들었다.
그것도 오래 하니까 서로 적응이 되어서
선생님은 고함지르고 아이들은 마치 그 고함소리가 당연하듯...움직이고...
그러다 보니 내 성격 다 버린것 같아서...짜증나기도 했지만.
나름 보람이 있었다는 사실...

사랑반 아이들은 3세라서...고함같은거 안질러도 된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때문에..
달래주고 안아주고 해서 다스려야 하는 나이다..
3명으로 시작하는데...
중간에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은 연령이 바로 3세나 4세이다...

공부도 서서히 해야하고...바쁜데...
직장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니.....
.....

피로가 누적되어서 그런지...
피곤의 연속이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교회차량을 돌았다.
집에 와서 카페 글을 올리고
예배를 보러 교회를 갔다.

모 집사님이..무슨암인지는 잘 모르는데...
앞전주일날 위독하시고 마음에 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하더니.
오늘 새벽에 천국가셨다는 것이다..
마음이 짊하고 ...인생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나도 죽으면 그때만 슬퍼하고
언제 그래나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죽은 사람은 서서히 머리에서 가슴에서 잊혀져갈 뿐이라고 생각하니..
참, 허무한 인생이구나 싶다.

교회 가기 위해 아파트 입구를 나섰는데
16층 경진이 엄마가 나왔다.
경진이네도 신랑이 폐암인가 간암이 걸려서 간호한다고
힘들어했었다.

경진아` 신랑은 좀 어때??
언니, 몰랐어?
뭘?
작년 9월달에 신랑 죽었어요
어머, ..어떻하니?
작년 내가 어린이집에 취직하고 얼마후 경진이 엄마를 만나서
신랑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달에 죽었다는 말이다..
세상에....

경진이 엄마 나이는 37세인가..38세인가...
딸은 올해 초등 들어간다고 했다.
예구...경진이는 괜찮아?
네....뭐 그렇죠...
마음은 좀 어때? 하고 물었더니.

언니, 내가 이런말 하면 안되는데
나는 더 좋아요..라고 했다.

난 그 말이 이해가 갔다.

경진이 엄마는 신랑하고 나이차가 좀 있다.
관광가이드가 직업이고 뭔가 집에서
매여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고 똑 부러진다.
즉 여대장부 같은 스타일이다.

과거에 나에게 이런말을 한 적이 있다.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혼이야 했긴 했지만..딱히 사랑해서 한 건 아니라고 말했었다.

아물튼 신랑이 암으로 투병중일때 좀 힘이 들긴 했지만.
오래 끌지 않고 가셨다니..
남아있는 사람이 고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자유를 항상 갈망하는 경진이 엄마에게는
더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예구 아침부터 여기저기 죽는사람 소식이네

예배를 보고 너무 피곤해서.
오후예배는 가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홈플러스를 갔고
신학기 노트 구입이나 준비물을 사서 집으로 왔다.

운동가기로 약속을 하였었지만.
몸도 피곤하고 내가 너무 바쁜살을 살다보니
집안 이 엉망이라서 청소를 2시간 반 동안 하였다.

그리고 맛있는 저녁을 지어서 아이들과 먹고 한 숨 잤다.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출근하였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엔테이션이 있기 때문이다.
10시부터 아이들과 어머니와 손잡고 오시기 시작했고
원장님은 한분씩 면담을 하였다.
2009년 회비문제와 연관계획, 및 기타 교육방법 등등....
우리 교사들은 모두 명찰을 차고 기다리시는 부모님께 차 대접을 하였다.

11시쯤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선생님들께 미안한마음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나섰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학교로 갔다.
전수식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행사 끝나면 26대 총학생회 임원 모임이 있기 때문이다.

행사를 끝내고 1시에 총학생회 임원 모임을 식당에서 하였다.
내가 총무를 맡고 있다.
모임을 공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회의를 했다.
매달 1번..26대니까 26일 만나는 걸로..
회비는 1만원....
경조사관련된 문제, 등등...서로 의논을 하여서...
완성을 하였고
내가 총 정리를 하여서 회원들에게 말을 하였다.
회원은 총 18명이다.

동기야 어찌 되었던 함께 1년을 일을 하였고
모임을 결성한 것이다.
살아가면서 내 이웃처럼 함께 편안하게 만남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점심을 먹고 2시에 학교 동아리방으로 갔다.
오늘 다른학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그리스도 군사 동아리 홍보를 하자고 말이 되었던 것이다.

회장님과 총무님...그리고 고문님들이 다 모이셨다.
나는 부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전단지를 손에 들고 학교 입구에서..
오티를 참석하기 위한 신입생에게 인사를 하고

전단지를 돌렸다.

경영학과 회장 및 차를 준비하는 동기들에게 약간 미안했다.

학과 일은 열심히 안해주면서...

작년에는 총학에..

올해는 동아리활동한다고...섬섬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어찌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의미가 다른데...

바람이 많이 불었고.

아니 내가 옷을 얇게 입고 가서 그런지.

많이추웠다.

달달 떨어서 전단지를 다 나누어주고...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한걸..

난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해서 각자 해산하였다.

추워서 감기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종일 뽀족 구두를 신고 왔다갔다 해서 그런지..

쉬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았기 때문이다.

집에 와서 밀린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4시반쯤...일찍 운동갔다가 와서 (몸을 좀 고되게 해서 폭 쉬고 싶었다)

폭 쉬어야 겠다 생각하고 갔더니 월례회 라고 했다.

월례회 도중 회의가 있었는데

유니폼 문제...동호회안에서 말들이 많은지 그런 문제 수습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난 . 관심도 없고...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왜 말들을 많이 하는 지 모르겠다.

아뭇튼 어딜가나..조용한데가 없구만...

따뜻한 수육과 김치가 맛있어서..

종이컵으로 맥주를 3잔이나 마셨다.

약간 알팔팔.....

취중 베드민턴을 치니까.

공이 잘 안보였다.ㅋㅋㅋ 그것참!

그래서 평소에는 있을 수 없는 실수를...(받을 수 있는 공을 몇개 놓쳤다)

아뭇튼 술을 깨고 운전을 해야하니까.

집에 가도 못하고 10시까지 시간을 때울렀다가.

집으로 왔다.

오늘하루가...분주했다.

피곤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 없는 일상속에
즐거운 일이 오늘 생겼다.

다름 아니라..
부산시에서
국,공립지원혜택 지원서 서류를 받아
민간, 가정교육 기관들 중..선별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을 연 1회에 하는 모양이었고
올해 우리 원도 지원을 했었다.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선별작업을 하였고
오늘 그 심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우리 원도 합격이 되었다.

그래서 국,공립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면.
일단 원아모집이 쉬워진다.
원비를 부산시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원아들이 원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원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고 신뢰가 생기게 되며
교사들 처우개선비 또한 좋아진다.

교사월급은 지금까지 민간원에서는
원장과 교사와 서로 타협하여 주고 받았지만
국,공립 혜택을 받게 되면
호봉제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류 작업할때도..
원장님은 국,공립 혜택을 받게 되면
교사들 월급 올라가니까..선생님들에게 더 좋을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다.

어쨌든 우리 원장님 입이 귀에 걸렸고
우리교사들도 기분이 좋았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으니까...

어제 오늘, 학교를 갔다.

어제는 스터디 모임때문에 갔고

오늘은 그리스도군사 정기모임이 있어서 참석하였다.

어제, 학교에 차가 많아서 주차 자리 찾는다고 혼났다.

그래서 오늘은 근무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차를 가지고 학교로 갔다.

역시 조금 일찍 오니까 주차공간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었다.

동아리방에서 그리스도 군사 회원님 7명 모여 예배를 드렸다.

예배 분위기도 좋았고 괜찮았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갔고 함께 교재를 나누다 헤어졌다.

해야할일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다..

아침에 이제 12개월 조금 지난 아이가 첫번째로 타서 차량 거의 돌때까지 울어서..보통 피곤한게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하루종토록 피곤

피곤의 원인을 생각해봤더니 아침부터 우는 아기 달래도 안되고 이리저리 발버둥치며 울어대는 아이를 50분 정도 안고 있었더니...지쳐서 하루가 온종일 피곤

아이들의 사소한 일들이 괜히 거슬리고...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여지도 않고...

교사란....

감정에 흔들리면 안되는데....

감정보다는 내 몸이 피곤하니까..

아이들에게도 평소보다 약간 강한어조가 되는 것 같다.

옆에 영아반 쌤과 나는 거의 매일 녹초다.

도우미 선생님 오실때는 그런대로 잠시 앉아있을 여유가 있지만.

종일 서서 아이들을 돌아봐야하고 아이들 하나하나 행동을 함께 도와주어야 하고 너무 힘이 든다.

파트라고 돈은 작게 주면서 정담임처럼 시킬건 다 시키고..

몸이 피곤하니까..약간의 불만이 생길려고 한다.

아이들 이제 분위기에 익숙해져 서로 친구와 유대관계를 맺고

탐색을 하는 아이들을 붙잡고

바른자세로 이야기나누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원장쌤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이내 마음이 무겁고 스트레스가 은근히 쌓여왔다.

무엇하나 제대로 스스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야기 나누기 하기에는 아직은 이른듯 한데..

사실 이야기 나누기를 할려면 아이들이 바른 자세로 아빠다리를 하고

자기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이제 반을 만든지 얼마되었다고 벌써부터 그런 훈련을 하라고 하니

휴~~ 마음이 벌써 무거워졌다.

오늘 처음으로 시도해봤는데.

3세반 아이들 집중시간은 5분 정도...

그 이상 지나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어떤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흉내를 내면

앉아 있는 아이들 죄다,,그 아이를 따라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야기나누기가 중간에 끊기게 되고 김빠지게 되는 것이다.

집중력 5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바른자세로 집중시킬 수 있을까? 이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내 생각에는

커 가는데는 다 시기가 있던데...

즉...모빌에 관심을 가질 시기에 움직이는 장난감에 관심이 없고

움직이는 장난감에 관심이 가질 시기에는 움직이지 않는 장난감에는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렇듯...

한글을 배우기에 알맞는 시기가 있고

수학을 배우는데 효과가 많은 시기가 있듯 ...

모든 성장에는 다 시기가 있기 마련인데.

원장님은..

..기저기도 안뎀 아이들도 섞여 있는데.

너무 일찍 그러한 훈련을 시키라니...

교사가 보통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그 시기에 알맞는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맞는것 같은데...

하반기쯤 가면 아이들도 크고 모든 발달면에서

교육하기가 더 좋을건데....

아뿔튼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는 공부를 하나도 못했다.

그래서 마음이 엄청 무거웠다.

오늘은 새벽1까지 공부를 하고 자야겠다.

2009년 상반기는 정말 힘이 들 것 같다..

파트로 일하고 있어도 반을 맡고 있기때문에.
다른선생님들 하는거 다 하고...또 반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 한다.

공부하고 이것만 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올해 상반기때..승급교육이 있다.

즉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교육인데 이수시간이 84시간인가 그렇다.
토요일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6시까지...교육을 받는데 3개월을 동안 받아야
시간이 채워지고 이수 과목도 23과목이다.
그리고 시험까지 보고...승급이 되는 것이다..

아~~ 돌겠네..
벌써부터 마음이 벅차다..감당키 어려워질것 같기도 하고...
이번학기에 과목도 한과목 늘려서 7과목 신청해 났는데
이거 공부하기도 벅찬데....

에휴~~

한달에 한번.교구교재도 만들어야 하고...
교사 교육도 한번씩 가봐야 하고..

아이고~~.....
벌써부터 마음이 힘들어진다.

오늘은 신랑이 교회다녀와서 집에 있었다.

금요일저녁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

오늘 아침에 화장을 할려니...상당히 부담스러웠다.

얼굴전체가 까칠까칠해서 화장이 들뒀다...

멀리서 보면 잘 모르는데 가까이서보면

꼭 화장 안먹은 사람처럼 까칠 까칠...화장도 붕 뜨고...

성가대를 서야 하기때문에 어쩔수 없이..화장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였고

오후에는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워 예배참석하지 않았다.

집에 신랑이 있어서..

사업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니 신랑은 듣기만 하고 나는 일방적으로 말을 했다.

아무렇지 않던 신랑이 오후에.속이 따깝다고 힘들어했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다.

약을 사서 갖다주면서 생각하길...

지금까지 건강하게 안아픈것만도 감사할일이지..

차라리 말이나 다른 것으로 좀 표현을 하고 살았으면 좋으련만...

왜..바보처럼 속으로 사키며 사는지.모르겠다.

항상 내가 가진것에 감사를 해야 하는데...

살다보면 또 우리눈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이 우리인생사가 아닌가 싶다.

딱히 정답은 없다.

수금이 잘 되면 모든것이....풀리고 해결된다.

하나님, 우리형편 아시잖아요....도와주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도와주세요~

속히 우리가 번뇌하고 힘들어하는 이 일로 부터.

평안을 얻게 하소서~

몇일전에..세무소에서 온 등기우편을 펼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것이..

작년 2008년 2분기 부가세만 7,500,000 정도 나왔다.

처음에는 그동안 밀린 부가세 갚고 이것만 남았구나.
나름대로 많이 갚았네...싶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한번..점검해 볼겸 봤더니.
작년2분기꺼였다.

헐~~

일을 많이 하는건 좋은데...
전에 밀린 세금도 제법 있을건데...
정말 가슴이 팍 메여왔다.

수금도 잘 안돼서 생활비도 2달째....짬짬이 들어오는 판에
이달말까지 칠백오십만원을 다 갚으라니....
아이고.....답이 안나오네..

신랑에게 전화를 했다.
3번 전화를 했는데도 안받으니...더 답답하고 ..화도 나고...

신랑이 전화가 왔다.

세무소에서 이러이러한 등기우편이 날아왔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온거냐며 따졌다.
일을 많이 했으니까..그렇게 나오지
라고 대답했다.

아니...글면 현재 생활비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많은 돈을 이달안에 어떻게 갚어?
소처럼 일하면 뭐하노?
지혜가 없는걸..

글고 세금관련 책 사서 눈앞에 바쳐가면서...절세해야 된다고..말했더니.
작년 1억넘게 일하면서 겨우 감면받은 돈이 4백이야?
그건 자료가 없어서이고...절세되는 상식을 몰라서 그러는거 아니냐며
소처럼 일해서 국가에 다 바치고.
그 어리석은 일을 왜 하냐말이야~`

현재 깔려있는 돈이 얼마나구 물었더니 3천이란다.

아니 깔려있으면 뭐하냐고?
그것이 내 돈인가?

일만 하지 말고 수금해서 이런거 해결해...제발..

맨날 가산세 물고 등기우편이나 받아서.
가슴졸이며 살고 싶지 않으니까...
가산세 물고 나면.
그것이 남는 장사인가? 손해보는 장사인가? 생각도 못하나??

신랑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속이 너무 답답하다.
이렇다 저렇다 많은 정보를 주고 중요한것은 일이 아니라 수금이다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크고 있으니 ..정상적인 생활비가 조달되도록 해야한다는것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아침 일찍 나가는 남편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혼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생각해봤다.

정말 이러다가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싫은 생각도 들고.....

하나님도 너무 하시네..싫은 생각도 든다.

신랑은 나에게 큰소리 친다.
일을 많이 했으니 세금도 많이 나오지..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한다..라고

그런데 그러한 말을 2년전부터 들어왔고.
별반 나아진것도 없고 진전도 없다.
그래서 난 사실 신랑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자신이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수금관계도 그렇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돈 받기가 정말 힘들텐데.
큰소리치기는....
큰소리친다고 다 자기뜻대로 되었다면.
왜 내가 이렇게 번뇌하고 힘들어하겠는가?

기다리고 인내해주고 신뢰해주었다.

그런데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이래저래 머릿속이 복잡하다..
수금만 잘되면 모든것이 단번에 해결되는데....
그게 뜻대로 안되니까....힘들다.

신랑은 말했다.
어디는..소액재판을 할 것이며 어느 기업은.
매일 가서 돈 달라고 괴롭힐 것이며 등등

그러한 말을 들으니...
그렇게 까지 해야 돈을 받을수 있단 말인가? 절망스럽다..

처음에 일을 해 줄때.
왜 계약서 같은 것을 쓰지 않는가?

열심히 일해주고 못받을것 같으면.
아예 차라리 놀지.....
왜 전기요금 식대 써가며 일해주고
돈을 못받는가? 그건 손해다...

신랑은 말한다.
처음에 그럴줄 알고 일해주나??

신랑말에는 약간의 공감이가긴 하지만.

이러한 일을 한지 4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감이라는 것이 없는가?

휴~

답답함만 더해간다...

이럴때 하나님은 도대체..뭐하고 계시는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식사량이 많아졌다.

처음 출근을 하여 점심을 먹는데..선생님들이 밥의 양이 엄청 많음에 놀랐다.

그런데 내가 이일을 하고 부터는 이해가 갔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말을 해야하고...

아이들의 행동거지를 감시해야하고(싸워서 흥터라도 생기면 안되니까)

어린이반아이들은 작은거 하나부터 손이 가야하는등등...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나도....

이러한 생리를 따라가다보니..

식사량이 늘어난 것을 알게 됐다.

어느정도 안먹고는 허기져서 일을 못하니까.

그래도 살이 안찌는 이유가...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은 일이기때문인 것 같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져온다.
하고싶은것은 많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제안을 받기때문이다.
약간 스트레스가 몰려온다...

생각을 많이 하니.
잠을 자도 꿈속에서도 관련된 꿈을 꾸고
자다가도 별떡 정신이 깨어서...
잠시 멍청하게 있다가
자기도 하고....

에구 질서를 빨리 잡아야 할 듯 한데...

내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이 별로 없다...
대부분 혼자서 해결하면서 살아왔는데...
요즘은,,,나만의 법칙이 무너지고 있다.
내 현실이 그러하니까..
어쩔수가 없어진다.
그래도 발버둥을 쳐야지....

 어제 피부과 프락셀 시술을 받고

오늘 불가피하게 출근을 해야했다.

오늘까지 얼굴에 세수도 안되고 선크림도 안되고 화장도 물론 안된다.

눈썹만 살짝 닦고 모자 뒤집어 쓰고 차를 가지고 어린이집에 출근하였다.

8시까지 출근해야하는데 수정역까지 가다보니 52분 정도...

놀래서..핸드폰들여 어린이집에 전화를 했다.원장님이 받으셨고.

수정역인데...8시까지 정확하게 도착할지 모르겠다면서..말씀드렸더니.

오늘은차량 8시에 안나가도 되고 조금 늦게 나갈것입니다 천천히 오세요 라고 말을 했다....전화끊고...빨리가야 한다는생각에 속도를 높였다.

원에 근처에 도착해서 주차 하니 8시1분이였다.

휴~~...

사실 원장님한테 불만이 많다..나쁜 아니라...다른 쌤님도 그렇다.

그 이유는 국,공립된 후 부터..굳이 이렇게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원래원칙을 적용...일을 많이 시키기 때문이다..

원래 노동자법에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이다. 주 40시간이고..

그런데 보육현장에는 이러한 법 칙을 지킬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 8시간을 정확하게 쳐 주고 그 외 시간근무수당을 주셔야 맞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원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성가족부예산에서 지원을 해 줘야

교사들이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정당하게 노동력의 댓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원장쌤님이 알미운 것은..

열악한 보육현장을 우리가 사실 모르는 바 아니다.

지금은 과도기에 있기때문에...점점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교사들의 권리도 보장받도록 개선되어 가고 있는중일뿐이다.

그런데 보육시간이 교사들의 업무시간으로 말을 한다는것이다.

보육시간은 오전 7시30부터 저녁 7시30분이다.

보육관련법에 의하면 이 시간을 보육시간으로 하되..원장들은 교사들을 탄력적으로 배치시켜야 하는 것이다... 교사가 만약 저시간을근무한다면 하루 12시간을 근무하는꼴이 된다.....그리고 토요일도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억한 마음 가지고 노동청에 고발하면 거의 어린이집 90프로가 아마 법 위반으로 걸릴것이다.

교사들의 근무시간외 시간수당을 쳐 주는 원은 거의 없기때문이고...

교사들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원장쌤님은 이번에 국,공립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원래 보육시간은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이고 그것이 곧 교사들의 근무시간과 같다고 했고 저녁에 늦게까지 해야하는 것도 모두 호봉수에 계산된 거란다.

기가차서....

주임쌤님이 원래 교사들 근무시간은 8시간 아닌가요? 물었다.

원장 알....아니란다..

어쨌든 그렇게 넘어갔고 나는 집에와서...인터넷으로 줄기차게..

교사들의 노동시간과 호봉과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정보를 뒤지기 시작했다.

아니나다를까...교사들 , 즉 우리도 공무원에 속한다..1호봉부터 시작되고

하루 8시간 근무와 주 40일 근무를 초과하는 시간은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교사들을 바보로 아나?.....

차라리,,,

교사들 근무시간은 이렇지만...보육현실이..열악하여 그거 다 지키기 힘들다.

일이 있을때는 남아서 일을 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시간과 상관없이 퇴근하세요 라고 현실이 열악하다보니...이해하시고 좋은날 오기를 바라면서 힘냅시다..라고 정직하게 말을 한다면...

충분히 원장 마음을 이해하고 남을 것을.....

아침시간도 8시까지 안와도 되는 상황인데.

8시까지와야 한다고 하고

저녁 퇴근시간도 6시 30분 이후라고 하고....(거의 10시간근무네)

글고 토요일날...격일제로 나오는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고...

열받네

사람이...항상 가난할때를 기억하고

우물안의 개구리때를 생각해야지.

공,보육되었다고 교사들에게 돈을 많이 지급하니.

어깨가 으쓱하고 고개도 꼴꼴해지고...교만해지는 느낌이 든다.

사실. 교사들 월급 자기가 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나라에서 거의 80프로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채워넣어주면서
큰소리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힘들때 도와준 사람을 기억하고
자신이 어려웠을적을 기억해 겸손해야지....

교만한 사람옆에 선한사람, 성실한사람,,,인격좋은사람은 오래 있지 못함을 알아야지...

오랜만에 글을 쓴다...

내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가장 많은 변화중에 직장이다.

과거에는 학교공부때문에 반을 맡고 있으면서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

일을 하다보니..

원래 계약했던 시간대로 마칠 수가 없었다. 특히 반을 맡고 있어서

반 관련 모든 문제및 관련일은 다 하고 가게 되고

또 원 관련일이면.

파트라고 빼주는 것도 없고...

단지...내가 토요일날 못나오는거,,그리고 아침에 8시에 출근못하고 1시간 늦게 출근한다는것때문에 월급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일을 하면서도 ...주는 월급만큼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면

은근히 원장쌤께 불평 불만이 나오고 미워질려고 했다.

내가 봉사하러 여기 왔나 싶기도 했고...

그럴때마다..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나의 일차적인 목표는 공부이고 직업은 공부를 하기 위한 수단일뿐이다 라고

내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잘 견뎌왔다.

이번에 국,공립 혜택을 받게 되어.

모든 교사들이 1호봉 1,351,000 월급을 받게 되었다.

근대 나는

그들이 일하는 조건을 다 맞추기가 부담스러웠다.

아침 8시에 출근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고 나면...

공부도 충분히 못할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많이 소홀해질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능하면 파트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었다.

사실 파트는 있을수 없다.

민간은 보육의 탄력성을 위해 파트가 있어도 상관없지만 국공립은 투명해야한다.

사실 그전에는 최저 급료 940,000 인가? 아마 그렇게 내 월급이 측정되었고 내가 파트로 일하니까...그 금액을 다 주지는 않았다.

그러니까...원장은 그 돈을 신고하고
나에게는 이중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서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그렇게 서로 합의하여 결정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있어도 그런대로..넘어갈 수 있었다...

국 공립으로 바뀐이후....
출 퇴근시간부터 해서 일들이 엄청 많아졌다.
2틀전에 원장은.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이 파트를 원해서 사실 파트월급을 측정했는데.
80만원 줄게요~~
그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혀서 할말을 잃었다.

정답임에다...일 다 마치면..6시 넘어서 퇴근하고
원에 일이 있으면 나와서 함께 일해야 하고...
말이 파트지..
할일은 다 하고 ,,,또 함께 해야할 파트라고 빼주는 법도 없이...시키면서
80만원이라니...기가 찼다.

그래서
원장님..저는 이 월급 받고 일 못해요..
아무리 제가 파트라고 해도....일하는것에 비해.
이렇게 작은 월급을 주십니까?
다른 쌤들 일은 거의 다 같이 하고 1,351,000 받아가는데.
그리고 사실 9시 출근 5시 마치라고 했는데
반을 맡다보니....모든 거 정리하고 일지 적고 가면 6시 반이였습니다.
제대로 5시에 정시 퇴근한적이 딱 한번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원에서 무슨일 있어서 일을 해야할때..
그때는 저 빼줍니까??.....
같이 일해야 하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월급을 주시면 안되지요...~

원장알...그러면 5만원 더 올려줄게요....85만원...(초암네...기가차서...)
그래도 너무 작다고 말했다.
토요일 그리고 저녁 다른분보다 30분 일찍 퇴근. 아침에 30분 늦게 출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일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가..

완전 나를 봉사직으로 아나??.....

아뭏튼 90만원 맞춰주시면 좋겠어요(순수수령액) 라고 말했다.(세금은 원장이 다 내고,4대보험, 그리고 퇴직적립금까지..)

그랬더니...몹시 아니꼬운투로....

경력이 어찌니, 나름대로 계산을 했는데 ,,불평을 내니까..의외로 받아들여졌다.

내가 더욱 기분 나쁜것이.

나는 영아반(만 2세~3세) 영아 혼합반이다.

5명이상이면 국가에서 교사 급료 80프로 지원을 해준다.

쉽게 말하자면 1호봉 1,351,000 중 80프로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프로도 못미치는 급료를 준다는 말은...

자신의 돈 하나도 안들어가는 것도 감지덕지인데..국가돈을 착취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정말 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 양심이 있어야지....

자기가 더 보태서 안 주는 것만도 감사할 일이지..

국가에서 나온 돈을 쪼개서 파트라는 명목으로 급료를 조금 줄려고 했다니...

정말 상식밖의 일이 아닐수 없었다.

원장은 말했다.

시에서 나와 점검하여 걸릴까봐 사실 걱정된다(나를 파트로 해준다는것에 대해)

그렇지만,,90만원 줄께요 라고 말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었지만...마음 편하게 흔쾌히 기분 좋게 해 주는 것이

아니였기에 은근히 열받았다.

내 속으로 더럽고 치사했다.

내가 그이상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마인드가 좁은 사람은 어쩔수가 없어...쫄쫄해가지고.....

조금 꼼꼼히 생각해 보다가..

결단이라도 내린듯..

원장님!

저는 월급가지고 월가불가 하기 싫고 얼굴 붉히기 싫습니다.

그래서...그냥 파트 말고 정식으로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정식으로 하게 되면..8시출근 7시퇴근, 토요일 격일주로 근무..
교사교육한번씩 가야하고..등등 일이 사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는 너무 힘이 드는 일이다.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하고 새벽6시반쯤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정상근무를 할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전에 집을 나서야 하는 .내 심정..사실..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원장이.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더럽고 치사해서..
차라리 내가 더 힘이 들고 마음 편하게 일하자.였다...

그렇게 말했더니..
원장이...의외의 표정을 지었다..
내가 힘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90만원정도(국가에서 지원한 금액만이라도 급료로 줬어야
그 금액이 많은 적든...보편적인 생각에서 볼때도...그렇게 하는게 맞다라고 다들 (다른 교사님들 생각에도 국가지원금은 그대로 교사에게 돌
려주시겠조 거기서 떼고 주면 정말 나쁘조) 생각을 했다

그러한 보편적인 사고를 원장샘님의 쫄쫄한 마인드로 계산이 들어간 것이다.
자기 힘들때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는가?
공부하면서 선생님 2번 바끼고 엉망진창인 반을 재롱잔치까지 성공적으로 끝내게 해주었던게 나다..

기말과 겹쳐서 정말 힘이 들었었고 ..아이들은 자주 바깥 선생님들때문에 굉장히 난폭하고 혼란스러워했던 시기였기에..질서를 잡아간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내가 그때 당시 자주 쓰던 말이 있다.

너무힘이든다는 표현을...."징글징글하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다.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

천방지축인 아이들의 정서를 2달만에 다 잡아 놓았다.
정상적으로 되돌려놨던 것이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처온 나에게
겨우 대우가 이정도밖에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정말 원장이 얕미웠다.

컴퓨터 못하면 하루에 수십번도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고...만들어주고...

자기 필요할때는 원없이 도움받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되지....

경영자가...일하는 사람에게 월급에서 관대해야지...

그래야 불평 불만 없이 내 일처럼 일을 해주지.

일한만큼 도 인정 못 받으면 왜 불평 불만이 없겠나?

일을 제대로 해 주겠나? 머리가 있음 생각을 좀 하고 살지..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사나? 일하는 사람이 경영자 입장인가?....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구..

하는 만큼이라도 인정해 주어야 맞지.....

아뭇튼..

결론은 정상근무를 하게 됐다는 것이며.

월급도 1,351,000이 고스라히 들어오며,,거기서 세금 돈 10만원 제하면...

1,200,000이상은 들어오게 됐다.

이왕 고생하는거....

고생하고 불평하느니...그냥 내 몸이 고되도..그렇게 하기로 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겠나?

받는 만큼 일을 많이 시키는것이 관례이지.

아뭇튼 베풀지는 못해도

남을 억울하게 하며 살지 말아야지..

회식이 있었다...

내 마음에는 회식이고 뭐고, 지금 먹고 앉아 있을때냐.....

공부해도 선찰을판에....

일주일전부터 시간을 내기로 해서 잡은 회식날인데.

내가 시험공부때문에 이제 와서 참석 안한다고 하면....무슨 생각들을 하실까?

... 그래도 용기 내어 주임선생님에게 말했다.

사실, 나는 앉아서 함께 식사할 여유가 없다고..이번주가 시험인데...

원장선생님께 말씀 좀 드려주시면 안될까요?....

주임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회식도 근무의 연장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를 이해하긴 하는데..될 수 있음 참석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는 뜻이겠지..

휴~~...

저녁 차량을 돌고 들어와서 일지를 쓰고 어쩔수 없이 함께 회식자리로 가야했다.

원에서 출발하기 전에 주임쌤님이 살짝이 나하고 오갔던 말을 했는지...

원장쌤님...왠...

집에 가도 밥은 먹을 거 아녀요? 함께 가서 밥이라도 먹고 가요...라고 하셨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회사에 가서이것 저것 주워먹고..

1시간만에 나는 일어나 집으로 왔다.

남은 사람들은 우아한 곳 또는 옛 정취가 있는 멋진 찻집가서

차 향내를 맡으며 차를 마실 것이고...

원장선생님은 집으로 ..

남은 선생님은....노래방 가서 한국 땡길것이고....

대충 예상이 된다.

나는 한번도 노래방에 함께 안 가봤다.

늘 나는 바쁘니까...

이번주만 어떻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사실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래도 어찌라~ ...졸음을 쫓아내가면서.

어떻게든 문제에 대한 서술을 할려면...많이 보고 많이 읽고

더 중요한건 많이 써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머리속에 많은 것이 있어도 막상 쓸려고 하면....
막막하기 때문이다.

아뿔튼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
어린이집에 일이 많아서 옮겨볼 생각도 해 봤고...
국공립 들어가기 힘든데..우리 원이 국공립 수준에 있는 것이
어쩌면 행운일지도 모르고..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일하는 보람과 보상도 충분히 받는..
뭐..이런저런 생각들이 많다.
휴학도 잠시 해 볼까..생각도 해 보았다.

휴~...
일단 부딪혀보고....

내가견디다 견디다....쓰러지면.
그때 ,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겠다.

직장도 나에게는 중요하다...
어짜피 직장생활을 할려고 자격증도 땃고....
지금은 좋은 기회가 온 것인데...
학업때문에 포기하고 보통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것도
좀...그렇기는 하고.....

내년 1년만 하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제와서 포기한다는 것도....있을 수 없는 일이고....
.....

복잡하네...

☕ 종일 공부를 했어도 뭐가 뭔지 모르..아이러니한 상태이다.
1주일 중간고사를 남겨놓고...토요일부터 책을 잡았으니..
딱 1주일간 공부를 할 수 있긴 한데...

책을 들춰보니....
아이고~....뭐가 이렇게 외울게 많아~
어디서 나오는 정보도 없고..단지 범위만 나와 있는 상태라.
바위에 계란치기네...

책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막상 펜을 잡고 서술을 할려니.깁깁해지는것이....
마음은 조급해지고....

오전에 대예배만 보고 학교로 향했다.
학교도서관에서 3시간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 뒤돌아보면 머리에 남는것이 없네....낭패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섬을 보나?
뭔가 문제가 제시되면..
머리속에서 바로 나와야 하는데....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어떻게 해..
흑흑~~.....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공부를 한다고 해도...
왠지 자신이 없어진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서 오로지 눕고 싶은 마음뿐인데...
집중도 안되고...

이념의 직장때문에....
나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가고 있다...

이왕고생하는거...돈에 욕심을 부렸더니..
결국.내 욕심도 고달프고...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하는데도 어려가지 어려움이 생기네...

아뭇튼 남은 1주일,,,밤을 새서라도...
어느정도 준비는 하고 시험에 임해야겠다 싶다.

화요일날...어린이집에서 회식을 하자고 하던데.
이번에 공보육관련 시장, 구청장 방문때문에 고생했다고...

돈으로 좀 줄것이지....
1호봉속에...시간외 근무하는 돈이 들어 있구나 뭐래나..
교사들을 바보로 아나?...
@\$%@@%^&^@\$@#!#^@^@#~!#
원장 미워~
마음이 나빠....

원래 악한사람은 악한 일을 해도 벌을 안받는데.
선한 사람이 옳지 못한 일을 하면.
이상하게 벌을 받는....(이상하지만 현실이 그러함을 많이 느낀다)

원장님이...교사들에게 너무 과중한 일을 시키고
그에 대한 보상도 안해주는 나쁜 마음은
언젠가 그로 인해 ...마음에 고통을 맞보아야 해....(내가 너무 나쁜가)

원장님은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다.
선한 사람이고 ..머리도 나쁜쪽으로 굴리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 국공립혜택을 받는 원이 되면서부터...
사람구하는거 쉬어졌네, //근무시간외 근무하는것은
호봉수에 다 포함된 것이다 라고.....

푸하하....
웃기고 있네 진짜~

그래....교사들 꼴랑 130만원 주면서 사실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니구
국가에서 80프로를 지원해 주고 꼴랑 자신은 20프로 부담하면서
큰소리는....

원채...교사들 월급을 작게 주고 부려먹어서..기준이 90만원대라서.
그 기준에 비하면 130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어...
그래서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사람들보기에 좋은 것만 찾는 허접의 원장이 되어가는가?

기쁨반 7세반 아가씨 선생님을 한달만에 구했다.
월요일부터 출근하는데...

그 선생님이 없는 그 자리에
3명의 교사들이 채웠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도 힘든일인데...그리고 시장이 오고 복구청장이 온다해서
환경꾸민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4명에서 해도 부족할 판에..3명에서 했으니 교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구...

행사 다 끝났으면..

사실..원장은 따로 봉투를 준비해야 맞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고?

근무시간을 초과해도 너무 많은 시간들을 초과했고..토요일도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근무했고 평일날은 기본 10시반까지 근무를
일주일간 했으니

그리고 7세반 선생님을 못구해서...그자리를 3명의 교사가 메꾸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런데 행사 끝나고 아무일 없듯.....

참,,,,가짤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되지.

서로 헤어지고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그런식으로 마음을 쓰면...

내가 다른데 가서 원장욕을 할지 어떻게 아냐고./.....

혹 내가 다른데 가서.....말할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꼭 말해주고 싶다.

또래또 어린이집은 일 엄청 많이 시키고 원장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마인드가 작아서 돈 10원 20원에 목매는 원장이라
고 말해줘야지~

또래또 어린이집에 와서...

1년에 훑볼 것을 몇개월만에 다 본 것 같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늘 감사하려고 마음을 낮춰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

아뿔튼 원장님..지켜보겠시유~.....

피곤의 연속이다..

피로가 누적되어....술 한잔 하면 바로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다

어제 어린이집 행사를 마치고 저녁에는 정상적으로 퇴근하여

학교 스터디 간다고 갔더니.

내가 선택한 과목이 아니었다..그것참..

마침..동아리연합회 회의가 있었고

그리스도 군사 회장님이 현재 캐나다 본집에 가 있는 상태라

부회장인 내가 참석해야 하지만.

중간고사 공부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어서...

난 회의는 두번째로 밀고 스터디를 간다고 했었다.

그런데 스터디가 나와 상관없는 과목이어서 ..

학교 3층 동아리방으로 갔다.

마침 회의가 진행중이었고.

나는 처음으로 참석한 회의였으며, 그리스도 군사 대표로 왔다고 서명하고 회의석상에 앉았다.

여러가지 안건이 있었고,

나의 소신과 대표님들의 의견을 듣고 보면, 타당한 의견에 함께 따라갔다.

동아리도 알고 보니까,,학교에서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다.

장학금제도등....

그리고 동아리도 하나의 학과처럼 인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한해 예산도 어느부분 정해진 것도 알게 되었다.

아뭇튼 회의를 잘 마치고...

마침..인악씨가 2층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문자가 왔다.

그래서 저녁식사도 못했는데..함께 하자고 했고....

식사하면서 반주로 소주 2잔을 마셨더니...

핑 돌았다.

피곤한 몸에 알콜 2잔은 마냥 눕고만 싶을 정도로 더 축 쳐지게 했다.

집에 와서 공부는 하지도 못하고 씻고 자버렸다.
피곤하니까.....

황당한 일이 있었다.

얼마전에 7세반 새 담임선생님이 오셨다..

29살의 아가씨였는데 성격도 명랑,쾌활하고 내 성격처럼 시원시원 하였다.

일도 잘하고 경력도 많고.....뭐...괜찮았는데..

출근한지 2틀 지나고 마지막 차량을 들고 들어오니...주임쌤님이...

7세반 쌤님 오늘부로 그만둔다는것이였다.

깜짝 놀라서 왜요?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원장님께서 많은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았고. 또 원에 와서 선생님들과 인사하기로 한 날로

늦게오고...아뭏튼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란다.

그래도 그렇지..

내일 당장 1시간 빼주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면서 약간 꾸중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해고까지...

이건 아니다 싶었다..

그리고 7세반 선생님이 이번에 2번째로 바뀐것인데.

첫번째 쌤님은 몸이 아파서.병원에서 한달동안 쉬라고 해서..

도저히 더 못 다니고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이고

그 후임으로 이번 선생님이 오신것인데....기본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2틀만에 해고를 시킨것이다.

아가씨가 마지막날 퇴근하면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고 갔다.

맘이 짠하고....원장쌤님이 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 새로운 쌤님이 오셨다. 이런저런 일로 잘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면접보러 오신 쌤님이....거절을 했다.못하겠다고...

우리는 말했다 원장님...

그냥 그만둔 쌤님 전화해서...다시 오시라고 하세요

2번째 바뀌는 것인데.아이들에게도 혼란스럽고...

한 반 쌤님이 없으니까.저희들도 힘들어요...

같이 일을 해야하는데...허남식 시장님과 50명의 유명인사들이.

15일날 방문할 것인데..할일은 많고..선생님 한분은 없고.

우리만 피로에 찌들려 몸살나고 있는 것이다.

원장님 잠시 생각하시더니..그러면 다시 전화해서 내일 출근하라고 할게요 라고 했단다..

다음날 아침 전화가 왔다...그 아가씨 쌤이었다.

용건은..아침에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간밤에 곰곰히 생각해보고
자신이 마음을 비웠다고 했다...그래서 가지 않겠다는 내용이였다.

원장님에게 그 내용을 전했다.

원장님 의외의 표정이셨다....그래서 한마디 했다.

그 아가씨 상처가 너무 컸을거라고.....눈물을 글썽이며 뒤돌아가는 모습이
가슴아팠다고 말해주었다.

내 생각에 원장님 정말 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공립 지원시설이 된 이후로 마음이 높아져서.

모집을 하면 지원교사들이 엄청 물려들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입맛대로 고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웃긴것이..이제는 원장님이 아닌 상대 교사들이 켄설을 놓고 있는것이다.

원장님은 급한마음에 아파서 쉬고 있는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병원갈시간 다 빼줄테니까 와서 근무해 달라고 부탁전화를 하셨다.

(초암넹,,,, 마음 높일때는 언제고...자존심도 없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럴려면 왜 교사들을 함부러 취급하는거야~ 자기가 맘에 든다고 상대도 맘에 드는 것은 아니잖나.....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다 따라주는 교사가 어딴다고...)

그 쌤은 원장님의 간곡한 부탁에 내일 출근하겠노라고 했다한다.

저녁쯤이었다 우리 교사들은 일하고 있는데 그 쌤에게 전화가 와서
출근 못할 것 같다고..다른 사람 구하라고 했단다...

우리쌤(3분)는 그 전화내용을 들으면서 절망감을 느꼈다.

지금도 너무 힘이 드는데.....함께 일하면 더 쉬울텐데...한분 없는 그자리가 너무 크고 우리를 힘들게 했다.

암후튼 또 골치가 아프게 생겼다.

15일날 부산시장님과 북구청장 기타 보좌하신분들 카메라맨 들 다 와서 우리원을 찍을텐데...7세반에 담임선생님이 없다는 말이 말이 되나
구.....

보육센터에 구인광고를 냈는지 전화가 또 바리바리 왔다.

오늘 저녁에 한 선생님이 다녀갔는데.

그 선생님이 먼저 NO라고 하고 가셨다.

원장님 못된 심보 먹더니 완전 당하고 있구만!

그러니까...왜 심보를 못되게 하냐고....

사람 귀한줄 모르고....국,공립지원시설 되었다고 ...마음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높아지고 성실하게 원장님 말씀에 잘 순응해서 따라주는 고마

움을 모르고.

사람이 심는대로 거두는법이지..

아물튼 우리만 고생길이 험하다...

4사람이면 하루에 차량 한번만 나갈것을...한사람이 2번을 나가게 되고 특강시간에도 2선생님이 필요한데..한선생님이 없으면 그만큼 힘이 드는법이고..

부산시장 오는날 대비해서 환경구성 새로 하고 있는데

그일은 또 어떨까?

4사람이 하면 더 빨리 덜 고생할건데...3사람이 하니...더 많이 피곤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정말 짜증난다.

오늘 목요일날.아침부터 우리 어린이집 옆 하천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북구청에서 나오는 일꾼들.....

하천에 풀 베는 작업을 하고 하천에 널려있는 공사 자재 치운다고 부산을 떨었다.

부산시장 온다니까...

난리가 난 것이다...

도로에 시멘트를 새로 발라야 하고...

앞마당에 응단을 깔아야 하지 않겠느냐 부터 해서....북구청은 매일 우리 원장님께 전화해서 잘 보여야 한다면서...이것저것 준비하라고 주문만 늘어놓고.

지원을 해 주면서준비하라고 해야지.

우리 원장샘님이 원해서 시장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구

자기들이 지정해서 시장님 모시고 오면서 지원은 하나도 안하고

원장님 사비로 다 준비하라고 하니...이렇게 부당할수가 ...

결국 잘 보이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오는 계산이 미리 되어 있고..

세상이...참 요지경일세...

우리 또래도 어린이집 때문에 주위가 깨끗해져가고 있다.

부산시장 허남식이가 오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권력투쟁을 하는지.....조금은 알것 같다.

바로..말 한마디...

그리고 그분....(권력이나 영향을 가진)이 오면 비상대기상태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점검해야하는.....

모두가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멈추고 하는...

아...정말 위력이 대단하구나...그래서 국회의원..시장...대통령.될려고

죽어라 싸우는구나..싶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내가 느끼는 기분은...

내가 또래 또 어린이집 교사로 있는것이 왠지 자랑스러워 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주위 동네 사람들은 시장님 언제오냐고..관심이 대단하다....

전에는 실감이 안났지만.

북구청 각 부서마다...와서 점검하고 주의 사람들이 또래 또 어린이 집이 어디냐고 묻고 시장이 언제 오시냐고 관심을 보이니....이제 이러한 움직임때문에

시장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생각도 들었다.

아뭇튼 우리는 밤마다 10시까지 근무하면서 벽면 환경구성한다고 고생하고 있다.

입에서 단내가 나고..

입에서...아이고 피곤해가 하루에도 30번 이상 나도 모르게 나오는 현실이다.

공부에 공 자도 할 수 없는 피곤에 지쳐..

집에 오면 씻고 쓰러지기 직전이며

책을 펼지라도 ...피곤에 찌들려 집중이 안돼서 봐도 원말인지 모르겠고

오직 자고 싶은 생각에 그냥 책을 덮고 자버리고 만다...

.....

15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제발 빨리 왔다가 가버렸으면 좋겠다.

티브에도 신문에도 난다고 하니...

내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이...11년째 인데...

한방에 홍보 홍보를 날리는 효과가 있겠다 싶다.

출석수업시작이다...

오랜만에 많은 학우들을 만나니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 몸이 안좋은관계로 컨디션이 별로였다.

오전에는 속이 울렁거려 토할것 같아 수업 중에 화장실로 뛰었다.
토하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한참동안 속을 진정시킨후...들어와 수업을 들었는데
내 스스로도 내심 불안했다.
언제 같은 증상이 나올지 몰라서...

어제 약을 받아왔는데 알약과 시럽약이었다.
시럽약은 아이들만 먹는줄 알았더니 어른도 주었다.
비위도 약한데....어떤 맛일까? 내심 불안해졌었다.

시럽을 먹어보니 정말 먹기 싫은 맛이였다.
될 수 있음 혀 안닿고 마시려고 해도 결국 혀에 맛이 느껴지면서
끔찍스러운 느낌이 든다.

아침에도 아마...
그 시럽먹고 비유가 상해서
속이 울렁거리지 않았나 싶다.

오전에 재무관리 교수님은..
역양도 약하고 발음도 안좋고....소리도 작고
강의듣는데 보통 불편한게 아니였다.

재무관리가 계산문제가 많은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답이 안나오는 과목인데...
강의마저...저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나? 은근히 불만이 생겼다.

좀 똑부러진 교수님 초빙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역양도 좋고 목소리도 큰...

꼬박 1시간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많이 걸렸다.

내일부터는 힐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어야겠다.

지하철 계단도 많고 버스정류소까지 걸려면 또 조금 걸어야 하고..
구두신고는 도저히 답이 안나온다..

첫 출근..

원장님 반갑게 맞아 주셨다.

두 아이가 있는데 1'세반...내 반이었다.

처음에는 낯설어서 내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다가오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다가가려다가 그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 주고..

그래...선생님 여기에 있을께,,,,,,OO가 오라할때 그때 가까이 갈께~`

라고 달래가면서.....2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바로 안겼다..

그것참...신기하네..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모양이다.

겨우 2시간이야? ㅎㅎㅎ

이것들이 사람 좋은 것은 알아보네...

원장쌤하고 하루종일...컴터 탁상에 앉아서..

연간보육계획안, 주간보육계획안.일일보육기록 등...

환경정리...등등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짬짬이 아이들하고 놀아주고....점심 먹고 간식먹고...

아이들 사물함도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고

아이들 가방, 칫솔..개인 컵, 침구, 기저기 물티슈....

제대로 가져온 아이도 없고

또 정식으로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처음부터 틀을 만들어가야 할 판.....
어쩔수 없지.
하나하나 원장님과....상의해서...준비해야하고
원장쌤님은 내가 하고 싶은대로 뭐든 하라고 하셨다.
틀을 어떻게 만들든....알아서 하고
만들고 싶은 교구 있음...필요한 재료 적어놓으라고....

원장님이 그림을 잘 그리셨다.
환경정리도 원장님이 조금 해 놓으셨는데 참 잘하셨다.
휴~ 다행이다.
선생님이라고는 나쁜인데 나 혼자 하라고 하면.
얼마나 암담할까..생각했는데..마침 원장님이...그림을 잘 그리셨다.
취미가 그림그리기 였고 원장님이 그려놓은 작품도 몇 작품 걸려있었다.

미대 나오신것도 아닌데....그림을 잘 그리셨다..

오늘은 어찌 어찌 그렇게 시간이 가다보니 4시라....

원장님께서 먼저 선생님 4시예요..어서 퇴근하세요 라고 챙기셨다.

당장 해야할 컴터 작업 일은 집에가서 해 온다고 약속하고
퇴근했다.

대낮에 퇴근하니까 너무 좋았다.

어린이날이다.

애들 아빠가 어쩐 일로 쉬어서.. 아이들 선물 사주러 할인점에 갔다가
신랑과 함께 체육관에 갔다.

신랑은 중간에 볼링 번개 있다고 빠져나가고..
나만 운동의 삼매경에 빠졌다.

정말 오랜만에 머리에 현기증이 날 정도.
체력이 바닥이 될때까지 운동을 해 보았다.

날씨가 더워지니 땀도 많이 난다.

상대 남자 2명하고
내 파트너 남자하고 5판3승제 게임이 붙었다.
상대남자들이 초보가 아니고 남자다 보니까..어쩌면 여자가 낀 내 편이 약간 불리해 보이긴 했지만.
실력면에서는 상대 남자들보다 내가 한 수 위이기 때문에..
붙어볼 만 했다.

역시나...
빅뱅의 게임이었다.
내리 3연승해서...상대가 백기를 들었지만.
이미 3게임째는 체력이 바닥이 나서 체력싸움이 되었다.

내 파트너는 총각이다.
나이는 잘 모르겠고 실력은 초보보다는 한 수 위이고
게임경력이 없다보니까..실수가 잦다고 해야할까?
초보자들과 경력자들의 차이가 바로 실수이다.

초보자들은 시도때도 없이 실수를 범한다.
게임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어진간하면 실수를 잘 하지 않는다.
공격다운 공격으로 점수를 주는 것은 실력차이라서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쓸데 없이 서브미스나..영똥한데로 날린다든가 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는다.

어쨌든 상대 남자들은 자존심 상할 일이다.
여자가 낀 상대방에 졌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3판 2승제하다가 5판 3승제로 바꾼것이다.

아물튼 내리 3승을 하고 바닥에 거의 쓰러졌다.

머리에는 현기증이 났고 다리는 후들후들

그래도 나는 오기와 깡다구가 있어서 곧 죽어도 젓먹던 힘까지
사용하고 끝난 다음에는 넉다운 되는 한이 있어도...
아물튼 내 성향이 그렇다.

그래서 남자같다고들 한다..

여기저기서 한게임 하자고 하던데....
도저히 체력이 바닥이 나서 더이상 게임은 힘들어서 옷을 갈아입었다.

아까 함께 게임했던 사람들과 함께 체육관을 나왔다.
상대편 아저씨 왈...
아가씨~~ 몇년 찼어요?
저요? 2년 쯤 찼을걸요~
나하고 비슷하네요 그런데 정말 잘치시네요~

...

저 아가씨 아닌데요...
아니 아줌마가 왜 아가씨 같이 하고 다녀요??
(이런).... 아니 그럼 억지로 아줌마같이 하고 다닐까요?
모두들 하하하...

그려 난..내가 봐도 아가씨 같어..ㅎㅎ

사랑의 하나님,
과거 편하게 살아온 삶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고뇌와 환란가운데 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뒤 돌아보니
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고백이 됩니다.

현재 삶은 여러가지 환란과 곤란속에 힘들어하며
마음의 곤고함으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삶이지만

이러한 곤고한 삶도 언젠가는 휴식을 취할 날도 있겠지요?

가끔 우리교회 담임목사님의 건강하게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신것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
다...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 목사님 역시 큰 아들이 결혼을 못해 부모마음은 참 번뇌스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국 누가 무얼 피해준다는가 막아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말씀속에 찾는 지혜를 통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
는 것일뿐 이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얻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주셨고
그리고 어찌피 겪어야 할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으로 가르쳐주셨을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잘 살펴보면
결국 자신의 욕심과 지혜로서 준비하는 못한 미련함일뿐..

가슴속에서 피눈물로 고백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변화될 수 없는 환경을 변화시켜주시나요?

회개하고 용서를 바라는 기도를 드린후 하나님의 노가 사그라지는 그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얼마가 지나야 용서를 하고 상황을 변화
시켜주시나요?....

일기, 읽고 깨닫자

블로그 나의사랑나의생명 <http://blog.daum.net/ran-8984>

저자 나의사랑나의생명

발행일 2011.06.26 13:35:34

 블로그